ISSN 1277-1489

KOREA

TEXTBOOK

RESEARCH

교과서 연구

2014. 09. 제 77호

FOUNDATION

특.별.기.획.

'좋은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인가?(Ⅱ)

RESEARCH

TEXTBOOK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두산동아

두클래스는 초중고 교수 ·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고 편리한
교실 수업 지원 사이트,
두클래스

DoUclass
교실 수업 자료의 모든 것, 두클래스

- 풍부한 학습자료
- 쉽고 편리한 스마트 수업

두클래스란? 선생님들께 무료로 제공되는 교실 수업 지원 사이트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	편리한 스마트 수업	풍부한 학습자료 제공	대상 : 초·중·고등 선생님
• 집중이수제 취지에 맞는 수업 지원 • 수준별 학습 가능 • 방과후 수업 대응 가능	• 교실 특성에 맞춘 과목별 디지털 교과서 제공 • 선생님의 개인별 맞춤수업 교안 작성 가능 • 다양한 수업 모형 제공	• 교과서, 지도서, 이미지, 멀티미디어, 동영상 및 사전 13종 검색 가능 • 문제은행 서비스 제공 •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과목별 콘텐츠 제공	• 초등: 음악, 미술, 체육, 실과, 독도, 창의적 체험활동 등 • 중등: 전과목 • 고등: 국어, 문학, 영어, 실용영어,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와 벡터, 한국사, 한문, 기술·가정, 운동과 건강생활, 스포츠문화, 진로와 직업 등

www.douclass.com

목 차

교과서 연구
계간지
2014년 가을
통권 제77호

	권두언
04	교과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길라잡이 / 김성훈
	특별기획 · '좋은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인가?(Ⅱ)
10	기억 속의 수학 교과서 / 전호재
12	생활 속 수학과 교과서 / 김보경
15	나의 국어교과서 사용기 / 심재웅
17	울림이 있는 교과서 / 이정민
19	키팅 선생님과 좋은 교과서 / 정지영
22	무한히 열린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영어교과서를 꿈꾸며 / 조현영
24	'학생'을 담은 사회 교과서 / 강 영
27	잡히는 교과서, 읽히는 교과서, 찾아보는 교과서 / 차경호
29	과학 교과서, 그것이 알고 싶다. / 김유정
31	'좋은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일까? / 이경학
34	기술 · 가정 교과서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 - 중3 기술 · 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 김효은
36	익숙한 교과서 / 김민지
39	소통·공감의 교과서 / 김현용
42	햅쌀 교과서 - 교과서에 대한 생각 - / 전수린
44	교과서 속에 학교생활이 들어 있다 / 이순이
46	교과서 동시 외우던 날 / 황자경
48	좋은 교과서는 좋은 선생님 / 최미숙
51	미래세대가 요구하는 교과서 / 김윤기
	현장교육
64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수업 / 김현태
	논 단
69	좋은 국어 교과서에 대한 생각 다시 생각하기 / 정혜승
	국제동향
74	대만의 교육 제도와 교과서 제도 / 조은정
	교과서 편집자의 변
84	교과서에 열정을 담다 / 조경진
	명사 초대석
88	나의 신라시대 / 주철환
	연수후기
93	교과서 개발 연수 후기 / 김병철
95	교과서 개발 전문가양성 직무연수 후기 / 조창현
	탐 방
97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 / (주)금성출판사 김인호 사장
	교과서 사랑 수필 공모 작품 소개
104	일반부 수상작 / 이혜경 · 이숙희 · 오화석
115	**'교과서 전문도서관' 협약체결 안내**
119	**교과서 개발 연수 안내**
120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122	**원고 모집**

| 발행일 · 2014년 9월 1일 **| 등록번호** · 서초 바 0006호 **| 발행인** · 선종근 **| 편집기획위원장** · 김만곤 **| 편집기획위원** · 김병규, 김윤기, 김정호, 이화성, 홍후조, 홍미화 **| 편집기획 간사** · 유순기 **| 발행처**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우137-80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47
| 전화 · 02-2651-1953, 02-6206-6357 **| 팩스** · 02-2651-1982 **| e-mail** · editor@textbook.ac http://www.textbook.ac
| 표지디자인 · 김윤철 **| 디자인** · 신성인쇄상사 02-2272-0345 **| 인쇄** · (주)미래엔 02-3475-4092
*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의 내용은 편집진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길라잡이

김 성 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교과서는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료로서 교수 · 학습의 질을 좌우합니다.

교과서는 주어진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교육과정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야 하고,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한 교육의 청사진입니다. 그 청사진에는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 · 학습 방법, 교육 평가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는 그 청사진 속에서 실제 교수 및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소재와 방법을 싣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교과서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수 · 학습 활동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자료이자 수단이지만, 교육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교수 · 학습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 길라잡이입니다.

현재 '문 ·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그 시대상과 사회상을 반영하여 변화를 거듭하여 왔습니다. 현재 정부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그동안 지적되어온 문·이과 구분의 교육 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문 ·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으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의적이고 융합적 사고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신장시켜주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중시되었던 인성 교육을 강화하여 개인적 인격 완성 및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교과서에 무엇을 어떻게 담아낼지 모색해야 합니다.

새로운 교과서의 개발 방향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부합해야 합니다. 즉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의 육성에 필요한 지식과 미래사회를 대비한 핵심역량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교과서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학생들이 참고서 없이 교과서만으로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 완결 학습'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완결 학습'을 위해서는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과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됩니다. 서책 교과서는 특성상 자기 주도적 학습을 완전하게 구현하는 데 일정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 수준별 교수 · 학습 자료, 학습 관리 등이 가능한 디지털 교과서를 서책 교과서와 연계하여 개발하면 언제, 어디서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의 활용, 온라인 자료 제공, 화상수업을 실현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교실 수업을 구현하고 서책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여 교실 수업 개선과 맞춤형 교수 · 학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다양한 교과서를 개발합니다.

각 교과서 집필자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소재와 제재를 선정하고 어떻게 조직하느냐, 그리고 선정된 소재와 제제를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어떤 교수 · 학습 및 평가 방식을 동원하느냐 등을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이는 동일한 교육과정을 근거로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그리고 교육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기본으로 갖추고 어떤 내용을 선정하고 구성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교과서의 참신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교과서의 참신성은 다양한 교과서 개발을 견인하는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학업성취도 시험이나 대학수학능력 시험과 같이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시행되는 국가 수준의 평가문항은 모든 교과서를 고루 참조해서 출제됩니다.

교과서의 수준은 우리 교육의 수준과 미래를 보여주는 잣대입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육 목표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초 · 중 · 고등학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교수 · 학습 도구입니다. 교육과정의 목표에 따라 '교육 내용'이 선정 · 조직되고, 선정된 교육 내용이 교수 · 학습 방법 및 평가와 연계되어 실제로 구현되는 산물이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념적으로는 교과서가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교수 · 학습 자료이기는 하지만, 실천적으로는 교수 · 학습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 자료입니다. 따라서 교과서는 항상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과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적 검 · 인정 심사체제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서 검 · 인정 심사는 교과서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교과서 검 · 인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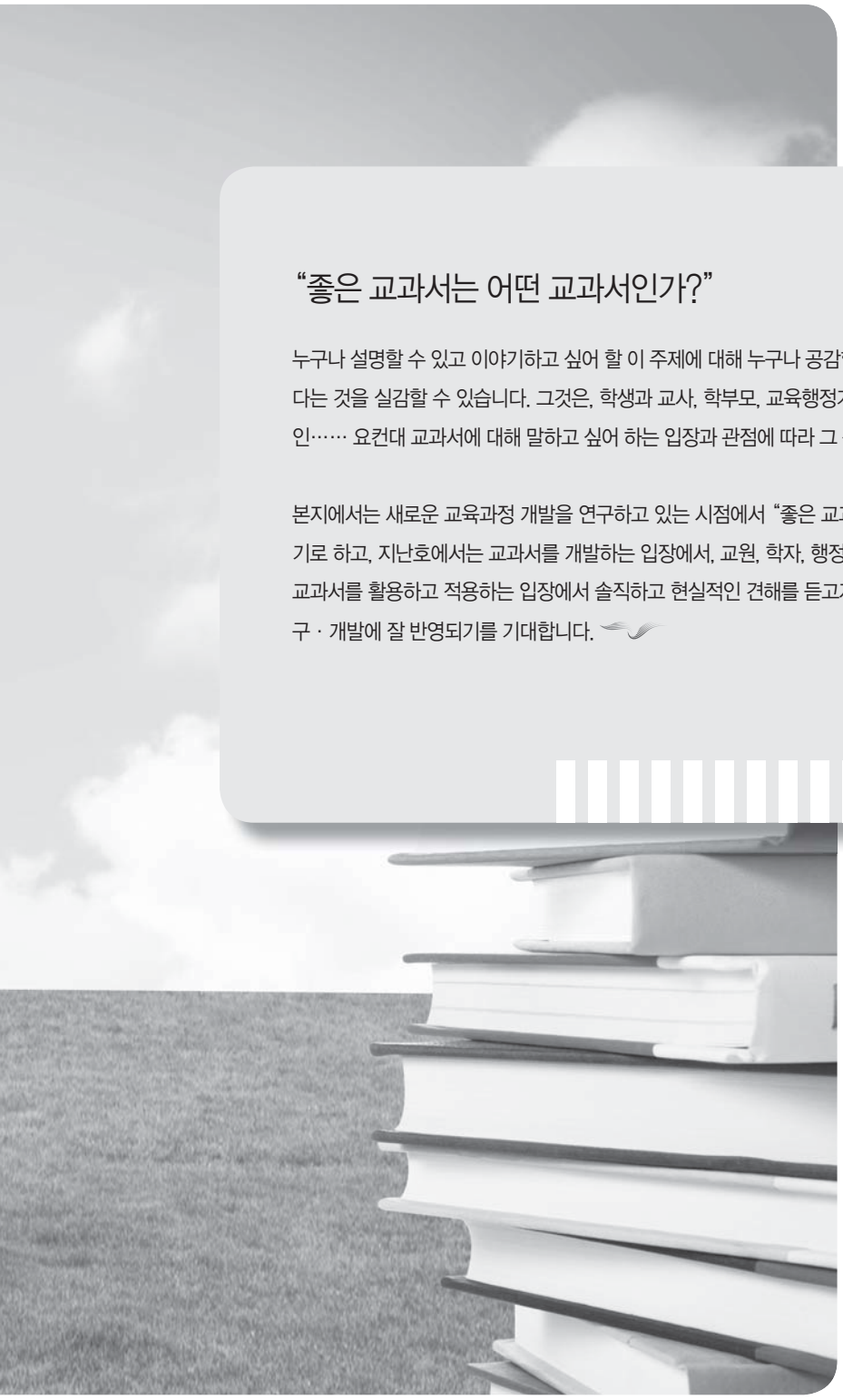
통해서 추구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과정의 개정과 교과서 정책에 부합하는 좋은 교과서 개발을 어떻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문 ·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교육과정과의 정합성이 높고, 창의 · 융합적이면서 인성을 갖춘 인재 육성이 가능하도록 교과서의 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여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갖춘 좋은 교과서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입니다. 교과서 내용의 정확성 · 공정성 · 중립성에 대한 요구는 늘 있어 왔고, 보다 강화될 것입니다.

위의 목적은 누가(심사자), 무엇을(심사 기준), 어떻게(심사 절차) 심사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교과서 심사는 무엇이 좋은 교과서인가에 대한 판단 과정으로서 여러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심사자의 가치 기준, 심사 기준에 대한 해석, 그리고 실제 이루어지는 절차의 특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교과서의 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전문적 검·인정 심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기.획.

‘좋은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인가?(Ⅱ)

- 기억 속의 수학 교과서
- 생활 속 수학과 교과서
- 나의 국어교과서 사용기
- 울림이 있는 교과서
- 키팅 선생님과 좋은 교과서
- 무한히 열린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영어교과서를 꿈꾸며
- ‘학생’을 담은 사회 교과서
- 잡히는 교과서, 읽히는 교과서, 찾아보는 교과서
- 과학 교과서, 그것이 알고 싶다.
- ‘좋은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일까?
- 기술 · 가정 교과서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 – 중3 기술 · 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 익숙한 교과서
- 소통 · 공감의 교과서
- 햅쌀 교과서 – 교과서에 대한 생각 –
- 교과서 속에 학교생활이 들어 있다
- 교과서 동시 외우던 날
- 좋은 교과서는 좋은 선생님
- 미래세대가 요구하는 교과서



“좋은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인가?”

누구나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하고 싶어 할 이 주제에 대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설명을 하기는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교육행정가, 교육학자, 편집 전문가, 언론인, 정치인, 기업인…… 요컨대 교과서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는 입장과 관점에 따라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지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을 연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좋은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인지” 다양한 제안을 들어보기로 하고, 지난호에서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교원, 학자, 행정가, 편집자의 견해를 들어보았고, 이번호에서는 교과서를 활용하고 적용하는 입장에서 솔직하고 현실적인 견해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이 견해들이 앞으로의 교과서 연구 · 개발에 잘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억 속의 수학 교과서

전 호 재
경북대학교 박사과정

어쩌면 필자가 수학 교과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겪는 수학 공부에서의 어려움이 필자에게는 없었다. 중학교 때부터 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수학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왔다. 새로운 개념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으며, 굳이 수학 공부에서 필자가 가졌던 걱정을 들자면 사칙연산 실수뿐이었다. 이후 대학 진학에서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선택하여 필자가 노력했던 부분은 '왜 학생들은 이 수학 개념과 문제를 이해하지 못할까?'의 답을 찾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졌던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하는 필자의 글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필자는 필자의 기억과 경험에 의존해 지극히 개인적인 글을 써보고자 한다.

기억 속에 수학 교과서는 어떤 명확한 이미지가 없다. 일반적 학교 수업에서 교과서의 위상은 해당 교과의 기준이자 바이블이 되는 책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학 교과서의 이미지는 상당히 희미했다. 필자가 공부했던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도 현재처럼 상당한 학습 교재들이 출간되었다. 그 많은 도서들 중에서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도서로서 크게 두 권이 존재하였다. 그 두 권의 제목은 《수학의 정석》과 《개념원리》이다. 이 두 권의 책은 말 그대로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정석으로 이해되었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이때까지도 교과서보다는 이 두 권의 구성과 내용이 기억난다. 필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학생이 이 두 권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며 적어도 한 권은 구매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수학 교과서가 잘 떠오르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교과서와 다른 학습 서적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의 EBS 교재나 기타 참고서들만큼은 아니었더라도 당시에도 수학 교과서만큼 잘 정리된 교재는 《수학의 정석》과 《개념원리》를 포함하여 상당히 많았다. 거의 모든 교재들이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기초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었으며, 더불어 심화 내용과 그 교재를 집필한 저자들이 가진 문제 풀이에 유용한 Know-How들도 제시되었다. 하나의 상품으로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당연한 전략이지만 이는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스타일과 학습 요구를 충족시

켜 주었다. 즉, 다소 수학에서 중간 이상의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수학 교과서 같은 기초 개념을 다루는 교재가 아니라 시험에서 변별력을 가진 높은 난이도 문제를 제공하는 교재였다. 그러므로 필자에게는 수학 교과서는 자주 접하기 어려운 책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교과서 내부의 구성에 있다. 교과서의 목적은 새로운 기초 개념의 제공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교과서는 해당 학문의 전문 지식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을 위해 제작된 도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를 위해 교과서는 각종 예시를 안내하고 예제들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과서는 기초 개념을 학습한 학생들이 후속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예제를 비롯하여 추후 학습의 단서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 맥락에서 단 한 권의 교과서로는 다양한 난이도의 예제를 모두 담을 수 없어 수학 익힘책이 등장했으리라 추측하지만 주어진 학습 시간과 한정된 교과서 페이지로 그 모두를 다루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할 수준이 과다한 나머지 어느 하나의 수준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심지어 기초 개념에 충실해야 하는 부분 또한 예제들을 위한 공간으로 잠식되어가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교과서 본연의 기능에도 충실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수학 교과서는 모든 부분에서 부족했다.

수학 교과서는 변화된 학습 환경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필자가 공부를 하던 1990년대 후반과 현재의 학습 환경은 너무나도 다르다. 현재 공부하는 학생들은 EBS 방송 수업 및 수업 교제, 각종 인터넷 강의처럼 기초 학습 이후의 학습을 보조해 줄 값싸고 접근성이 높은 학습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런 다양한 학습 기회와 방법들은 교과서의 자리를 위협한다. 어쩌면 이미 교과서는 과거에 가졌던 권위를 잃고 수많은 교재들 중에 하나로 전락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요소들이 과거에는 교과서의 위치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어졌을지 모르나 현재는 교과서와 공존할 수 있는 그리고 교과서와 같이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협력자로 보아야 한다. 다양한 학습 기회를 안내하고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교과서의 잃어버린 그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수학 교과서는 많은 협력자를 가진 수학 학습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학 교과서는 학생들의 위치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최근의 수학 교과서는 매력적인 소재들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수학을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학생들의 삶과 관련된다는 수학 소재들은 억지로 끼워 맞춰진 매력 없는 요소들만 가득하며 구성된 수학적 이야기는 학생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비현실적 이야기들이다. 이러한 학생의 삶과 관계없는 소재들은 학생들에게 더욱 수학을 어렵게 여기고 현실과 동떨어진 학문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것이다. 수학 교과서는 보다 더 자연스럽게 학생의 삶에 녹아들 수 있는 구성으로 학생들이 왜 수학을 학습하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수학 교과서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너무나 많은 수의 학생들이 수학 학습을 포기하고 있다. 학생들은 삶과 전혀 관련성 없이 오직 평가만을 준비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수학 문제 풀이에 지쳐버렸다. 이제 수학 교과서는 본연의 목적과 정의에 충실하게 모든 학생들에게 기초 개념을 안내하는 것에 집중하여 수학 학습의 신비와 즐거움을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학생들은 수학 교과서 속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행복교육을 강조하는 이 때, 수학 교과서 또한 학생들에게 행복을 전해 줄 수 있는 진실한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필자소개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학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현 경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생활 속 수학과 교과서

김 보 경
대전 노은초등학교 교사

교과서란 무엇일까? 교과서라 하면 우리는 흔히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책이라고 떠올릴 것이다. 또 다른 의미로 'OOO의 교과서'라고 사용될 때에는 어떤 일에 대한 정석, 정도를 뜻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교과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교과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보았다. '공부'와 관련된 책이라는 응답이 43% 정도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식'이 들어 있는 책이라는 응답이 24%.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책이라는 응답이 21%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어렵고 따분한 것, 문제집, 시험지, 한해동안 내 성적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있었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다소 딱딱하고 지루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었다. 이렇듯 어른이나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교과서에 대한 이미지는 무거우며 교과서에 담긴 어떠한 내용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주고 있는 것 같다.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초등 수학 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수학 교육과 수학 교과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어 현장 연구와 대학원 공부를 하던 중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교과서를 집필할 기회를 얻게 되어 참여를 하고 있다. 평소에 수학 교과서를 보면서 생각했던 점을 적용하여 정말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교사 입장에서는 활용하기 편하고 효율적인 교과서를 만들고 싶은 의욕이 생겼다. 그러나 집필 지침을 전달받고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교과서라는 지면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육과정의 이상과 현실의 여러 가지 제약과의 거리를 좁혀 합리적인 표현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교과서 집필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기존 교과서의 기술 방식이나 제시 방법이 그러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현장에서 교과서가 어떻게 활용되느냐는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입장이나

태도, 학급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학 교과서에는 수학 공식이 제시되어 있고 그 공식이나 수학적 개념, 원리를 이용하여 문제집을 푸는 것이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학생들에게 수학은 우리 생활과 좀 더 가까운 곳에 있으며 수학 교과서 역시 이러한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넓이의 단위에 대하여 공부하는 단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이 단원에서는 이전 학년에서 배웠던 단위넓이 $1cm^2$를 기초로 $1m^2$,1a ,1ha, $1km^2$를 알아보고 단위를 환산해보는 학습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수학 시간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세 가지 미션을 주었다. 첫 번째는 우리 학급에서 넓이가 $1m^2$인 정사각형 모양의 협동화 제작하기, 두 번째는 실과 시간에 관찰할 식물을 심기 위하여 각 학급별로 1a 넓이 만큼의 화단이 주어지므로 화단에 우리 학급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표시하기, 세 번째는 운동장에 1ha 넓이의 정사각형을 그려 우리 학급 친구들을 4팀으로 나누어 릴레이 이어달리기하기로 제시하였다. 이 미션들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도구 사용은 자율이며 수학 교과서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첫 번째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1m^2$가 얼마만큼의 넓이인지 알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학생들은 저마다 교과서를 살펴보고 $1m^2$는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그리고 각자 한 변이 10cm인 정사각형을 만들어 가로와 세로에 10개씩 이어붙이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리 학급 학생 수는 28명이니까 각자 3개씩 만들고 속도가 빠른 친구들은 4개를 만들어 100개를 채우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100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1m^2$가 완성되고 평소 그림에 자신있어 하는 친구가 밑그림을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각자 자기 부분을 색칠하여 협동화를 완성하였다.

두 번째 미션을 해결할 때에도 교과서를 통해 1a는 $100m^2$이므로 한 변이 10m인 정사각형임을 알아냈다. 그 이후에 1a를 땅 위에 나타내는 것은 모둠별로 해결하도록 하였더니 어떤 모둠은 교실에 있는 1m 자를 이용하여 최대한 반듯하게 정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1m를 자신의 발뼘으로 재어 한 변씩 맡아서 1m를 잰 발뼘에 10배를 하여 1a를 나타내는 모둠이 있었다. 약간의 오차가 있었으나 1a가 어느 정도 넓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

세 번째 미션에서도 학생들은 1ha의 개념을 교과서를 통해 익히고 한 변이 100m인 정사각형을 그리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그 중 선택된 아이디어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줄넘기를 이어 50m의 줄을 만들어 그리는 방법이었다. 네 변 중 한 변은 운동회 때 달렸던 100m달리기 라인선을 이용하자는 의견을 낸 학생은 학급 친구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다. 1ha을 나타낸 후 각 꼭짓점에 학생들을 한 명씩 서게 하여 1ha에 대한 양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미션까지 해결한 후 $1m^2$, 1a, 1ha의 필요성에 대해 토의하여 다양한 넓이의 단위가 있으므로 해서 상황에 맞게 넓이의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깨닫게 되었다. 그 후 교과서에 제시된 단위 사이의 변환 관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게 하였다. 2~3명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교사의 도움없이 활동 중 친구들과 함께 밟았던 과정을 생각하며 단위 변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번 미션을 해결하면서 수학 교과서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학생들에게 질문하였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수학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찾아본 것은 처음이라고 하였다. 처음보는 넓이 단위에 대한 약속이 제시되어 있던 점과 자신들이 활동한 내용을 수학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좋았다고 대답하였다. 수학 교과서가 수학 공부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일상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필요한 것으로 좀 더 친근한 느낌으로 다가가도록 하고자 한 의도가 비교적 잘 실현된 것 같았다.

학생들에게 수학 교과서에 바라는 점을 설문조사 하였는데 예상 외의 답변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무조건 쉬운 내용만 제시되기를 원하는 학생보다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나 조금 어렵더라도 재미있는 활동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이번 활동과 설문 조사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는 자연스러운 맥락 속에서 제시되는 상황이 곧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스스로 탐구하고 해결하는 능동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필자소개

2008 대전광역시 주최 수업연구보고대회 수학과 1등급
2009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수학교육과 석사 학위 취득
2011~현재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교과서 집필
평소 수학 교육에 관심이 많아 수학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적용하고 연구하는 데 힘쓰고 있다.

나의 국어교과서 사용기

심 재 웅
서울교육대학교 2학년

아이들이 색연필을 손에 쥐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림이 그려지는 평평한 면들은 모두 연습장이 된다. 교과서 역시 이러한 연장선에 있다. 공부하는 교과서가 연습장이라니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교과서는 아이들에게 줄 학습내용들을 담고 있는 동시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펼쳐낼 장이 되어 주어야 한다. 주어진 문제에 답을 하고,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을 풀어내는 것을 넘어서 낙서하고 그림, 만화, 그리고 교과서 삽화를 바꿔 그리고 하는 자유로운 공간. 우리말과 글을 배우는 국어 교과서라면 더욱이 아이들의 생각을 펼쳐낼 충분한 공간이 주어져야 한다. 국어교과서에는 그럴 만한 공간이 없었다. 글 뒤에는 항상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들 간의 줄 간격이 좁아 답을 적을 때에도 작은 글씨로 적지 않으면 칸을 벗어나 옆장이나 뒷장에까지 적어야 했다.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려면 자유로운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빽빽한 국어교과서 속에는 그럴 만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종이 재질이 광택이 나고 매끈해서 펜으로 쓰면 번지기 일쑤였고 연필이나 샤프로는 글씨가 잘 써지지 않았다. 샤프로 필기할 경우 지워도 그 자국이 남아 깔끔하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국어교과서에는 글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교과서에 쓰고 지우는 것이 편하지 않기에 글을 쓰는 것이 유쾌하지 않고, 지우고 다시 쓰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처음 쓰는 것에 대해 부담이 될 수 있다. 처음 한 번에 쓰는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교과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줄 간격, 여백 같은 작은 구성 하나하나가 학습자에게 큰 영향을 준다. 교과서 사용자인 학생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주는 것이 좋은 교과서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나는 아직도 글을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글쓰기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일단 겁부터 먹는다. 시작도 하기 전에 완벽에 대한 강박에 빠지고, 이게 아닐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국어 수업에서 교과서에 주어진 글에 대해 분석적으로 보는 시각을 학습한다. 교과서가 원하는 방향의 한 가지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을 내면화

한다. 가령 문학에서 시의 경우, 시의 해석을 교과서가 원하는 하나의 관점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시 속의 표현에 대해 내가 가지는 느낌은 이게 아닌데 교과서가 제시하는 것에 감히 반박하지 못하고, 교과서의 해석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문학은 한 가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전문가들의 문학적 권위에 눌려 어떤 자유로운 생각이나 표현도 제한받는다. 영화는 평점을 매기고 자유롭게 평론을 쓰는데 반해, 문학작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자신의 의견을 공공연히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내가 작품에서 받는 느낌이 다르더라도 교과서가 이렇게 말하니 그것에 순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글쓰는 것조차 완벽에 대한 강박을 받고 분석적인 평가를 염려해 글쓰기가 두렵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과서라면 교과서에서 한 작품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을 제시하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글에 대해 완벽주의적인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창시절 국어 수업은 책으로 된 교과서로 하는 수업도 있었지만, TV화면에 컴퓨터를 연결시켜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들을 통해 수업하곤 했다. 그 때는 흥미롭고 집중도 쉬워 그런 수업을 좋아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검증받은 좋은 자료들도 있었겠지만, 인터넷 상에 떠도는 흥미 위주의 정보들도 많았다. 근래는 미디어의 발달로 더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 일이 많다. 수업 또한 더 다양한 미디어 자료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사가 수업 할 때 자료를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잘 안될 경우 학생들은 잘못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책으로 된 교과서와 같이 미디어 자료를 검증해 교과서화하는 방향이나 교과서가 책을 뛰어 넘어 다양한 미디어 교과서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열성적인 교사들은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고 그것을 통해 흥미롭고 모험적인 수업을 진행한다.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고 열성적인 부모님들은 학교 수업 외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경험을 시키고 교육적 환경에 노출되도록 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열의적인 교사, 자녀 교육에 헌신적인 부모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수업을 준비하는 열의적인 교사가 아니더라도,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아니더라도, 누가 어떻게 가르치든 교과서를 보는 것만으로 기본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과서가 할 일이라 생각한다. 교과서는 양질의 다양한 자료들을 담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내용면에서도 충실해야 한다. 열정적인 교사는 교과서 없이 다양한 자료와 수업도구들로 수업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설령 선생님이 지도서를 본 것 외에 수업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도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용을 익힐 수 있는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라고 생각한다.

필자소개

서라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교육대학교 입학. 2012 ~ 2014년 육군 15사단 GOP에서 복무, 병장 만기 전역 후 사회과교육과 2학년 복학. 현재 서울 관악구 난향동에 위치한 낙골공부방의 교사로 봉사활동 중이다.

울림이 있는 교과서

이 정 민
가정여자중학교 교사

"글이 너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운 내용 말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면 좋겠어요."
"교과서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요. 내용 좀 줄이면 좋겠어요."

좋은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들이다. 하나같이 지금의 교과서가 분량도 많고 내용도 어렵게 쓰여 있다는 불만을 털어 놓았다. 참고서 없이 교과서만으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실제로는 현실을 무시한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한 대답들이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화두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다. 교과교실제나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얼마나 했느냐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졌으며, 일반 학교의 경우에도 연간지도계획을 작성할 때 교육과정 재구성에 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게 되었다. 하다못해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할 때도 교육과정 재구성이란 항목은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교과간, 학년간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재구성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다 보니, 대체로 교과서 단원의 순서를 바꾸거나 교과서 내용을 적당히 줄여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했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실에서 좋은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인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굳이 줄이거나 더할 필요 없이-이른바 재구성할 필요 없이 교과서 내용만 충실히 따라가면 성취평가제에서 요구하는 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보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렵고 많은 내용이 아니라 쉽고 간단한 내용으로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교과서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인가? 교과서를 개발할 때 꼭 짚어보아야 할 문제이다.

작년부터 교과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교과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아울러 국어라는 교과목의 특성상 교과서를 집필할 때 이런 점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몇 군데 눈에 들어왔다.

우선 학교급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는 '말하는이', '소리마디'라고 표현하지만 중학교 이상에서는 '화자', '서술자', '음절'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몇몇 출판사에서 발행한 교과서에는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던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사용했더라도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성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글을 고를 때 갈래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글을 선정하기를 바란다. 교사용 지도서에는 설명문이나 논설문이라고 분류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그와 같은 글의 갈래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글이 상당수 교과서에 실려 있다. 특히 논설문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어려운 글이거나 주장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글도 많아서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셋째, 가능한 원문을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싣기를 바란다. 교과서에 실을 수 있는 글의 분량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원작자의 의도와 달리 글을 편집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원래 글이 의도한 내용과 무관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고 심한 경우는 글 전체가 문맥이 어그러지기도 하여 글의 주제를 파악하기 힘들게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교과서에 실린 글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여겨 교과서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기도 한다.

넷째, 좋은 글이 교과서에 실리기를 바란다. 그것이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교과서에 실린 글은 그 자체로서 좋은 읽기 자료여야 한다. 어떤 학생에게는 일생을 통틀어 유일하게 읽은 도서 목록이 교과서일 수도 있다. 또 청소년기의 많은 학생이 일생을 두고 기억하는 구절을 교과서에서 찾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은 반듯한 역사의식과 시대에 아부하지 않는 강직함과 누구에게도 당당한 전문성으로 교과서에 실릴 글을 쓰고 선정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좋은 교과서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은 아직 얻지 못하였더라도 좋은 교과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한다면 머지않아 좋은 교과서가 함께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필자소개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석사
2008~현재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독서한마당 출제 및 운영위원
2013~현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모니터링 위원
2012~2013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국어교과연구회장

키팅 선생님과 좋은 교과서

정 지 영
충남 북일고등학교
국어 교사

1989년 개봉되어 획일적인 우리 교육을 돌아보게 했던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다. 이제는 고전이라고 대접받는 영화로, 영화 속 키팅 문학 선생님은 명문대를 가기 위한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파격적인 지도로 학생들에게 괴짜 선생님으로 통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교탁 위에 올라서서 교실을 조망하는 것으로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라는 가르침을 전달하려고 했던 키팅 선생님의 시도는 학생 자살의 원인 제공자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나고 만다. 그래도 우리는 학교를 떠나는 키팅 선생님에게 학생들이 책상 위에 올라 '나의 선장이여!'를 외치며 자신을 주체적인 인간으로 이끌어주신 선생님을 배웅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키팅 선생님은 시 수업 첫 시간에 교과서 격인 책의 머리말을 찢어 버리라고 학생들에게 말하나, 학생들은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교과서를 찢으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멍하니 듣기만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기미독립선언서'를 달달 외우기에 급급했던 당시의 나는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좋은 교과서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쓰면서도 가장 먼저 회상되었던 것이 바로 이 장면이다. 왜일까? 내가 문학 교과서 집필에 두 번 참여하면서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으나 이 글을 쓰기에 앞서 영화의 한 장면에서 머뭇거린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참여했던 문학 교과서 집필진은 학생들의 눈높이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담아내는 대안 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던 선생님들이 주축이었다. 국정 교과서에서 검인정 교과서 체제로의 변화도 이런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이 취지를 살려 이론보다는 생생한 교실 경험을 교과서에 녹여낼 수 있는 전국 각지의 현장 교사 15명이 모여 첫 교과서를 만들었고, 전국 선생님들의 인정을 받아 현장 교사로만 구성된 문학 교과서를 두 번째 집필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선생님들이 일 년의 시간 동안 한 달에 두 번 정도 모여, 토론하며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을 하면

서 항상 고민했던 것은 '학생들에게 유의미한가?'였을 것이다. '유의미함'의 정의는 다양할 수 있지만 교사와 학생의 시선에서 작품을 선정하고, 학습 활동을 학생들의 실정을 고려하여 재미있고 유익한 풀이 과정을 통해 마음껏 토론과 탐구를 하여 학습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었다. 물론 교과서 검정 시스템의 통과도 염두에 두었다.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하면서 긍정과 부정의 마음이 뒤섞이기도 했다. 나도 벌써 기성세대인가라는 회의를 품기도 했지만, 우리 교과서에 대한 분석적 평가를 통해 다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김주환의 '문학 교과서 텍스트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 연구'(교육과정평가연구 Vol. 16, 2013)'에서 우리가 만든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교사와 학생이 비슷하게 60% 이상이 만족을 보였고, 35%가 보통의 평가를 해주었다. 하지만 연구 결과 중에 아래와 같은 표가 있었다.

한민족의 정신과 문학의 정수를 학생들에게 전수한 바탕에서 학생 스스로 문학 작품을 통해 자아를 성찰함으로써 타인과의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학생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요구를 무조건 다 수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위의 조사 결과는 학생들이 주체적인 가치관과 자유로운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어야만 교실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교과서 검정 기준에 맞추기 위해 어떨 때는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하면서 말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우리 반 학생들에게 '좋은 교과서는 무엇인가?'를 물어봤다. 좋은 답변 중에 '가벼운 것'이라는 '모범생'의 답변에 놀라면서도 고마웠다.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과 수업을 주도하면서 교과서의 주인이 '교사'라고만 생각하지 않았냐는 반문을 해본다. 우리 반에서 생활이나 학업 면에서 모범생인 그 학생의 말은 교과서가 지식 전달 위주의 교과서에서 벗어나, 재미있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 것이다.

여기에서 영화 키팅 선생님이 왜 교과서를 찢으라고

[표 교사와 학생들이 선호하는 작품]

	교사		학생	
	빈도	백분	빈도	백분
① 대중가요나 만화와 같이 가볍고 재미있는 작품들	3	0.81	54	21.1
② 청소년들이 즐겨 읽는 대중소설이나 연애시들	21	5.69	57	22.3
③ 동서양에서 유명한 고전적인 작품들	35	9.49	24	9.4
④ 문학사에서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은 작품들	140	37.94	50	19.5
⑤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알 수 있는 작품들	29	7.86	13	5.1
⑥ 청소년들의 인격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작품들	135	36.59	38	14.8
⑦ 문학에 대한 지식을 익힐 수 있는 작품들	6	1.63	14	5.5
⑧ 기타	0	0.00	6	2.3
	369	100.0	256	100.0

했는지에 답을 구할 수 있다. 학생들의 창의적 생각과 다양한 발상을 유도하는 혁신학교의 수업 모델이 강의식 수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교과서가 학생 중심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찢어야' 한다는 답변을 얻은 것이다. 내가 필사의 노력을 통해 만든 교과서라도 학생들의 사고를 제한하고 닫힌 사고를 만들게 하는 교과서라면 과감히 '찢어야' 한다고 본다. 교과서가 학생의 열린 사고와 사고의 다양성을 키우도록 뒷받침 해 주지 못한다면 이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교과서일 뿐이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가 아직도 화젯거리가 되는 것은 미국의 1950년대와 한국의 1990년대의 교육 현실과 오늘이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교과서만이 아니라, 교실과 사회가 함께 '학생 중심'으로 탈바꿈해야만 진정한 '좋은 교과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필자소개

현재 북일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문학' 교과서와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문학 답사' 집필에 참여하면서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다.

무한히 열린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영어교과서를 꿈꾸며

조 현 영
인하대학교 박사과정

필자의 학창시절 영어교과서는 하나의 단원에 주제에 따른 지문이 제시되고, 각각의 페이지 하단에는 관련 단어와 숙어가 정리되어 있었다 또, 그 뒷부분에는 지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이나 문법, 단어가 포함된 대화 연습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해당 내용을 정리하는 연습문항이 나오는 방식으로 하나의 단원이 수업의 진행 절차에 맞춰 매뉴얼처럼 정리되어있었다. 물론 여기에 오디오나 비디오 자료가 덧붙여져 원어민의 발음으로 해당 내용을 듣고 따라 읽는 형식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최근 교과서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교과서는 학창시절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지식들이 담긴 지식의 저장고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 그리고 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나면 언제나처럼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공부의 모범답안처럼 '교과서에 충실했어요.'라는 말이 연례행사처럼 나왔다. 우리에게 교과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오랫동안 학교 공부의 바이블로 여겨졌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교과서에 충실하다는 것이 그 교과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은 일부 교과목에 불과했던 것 같다. 특히 영어의 경우, 중학교에서는 학교시험에 출제되는 범위만 공부하면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영어 교과서 속의 단어와 표현들을 암기하는 데 급급했고, 고등학교에 와서는 수능시험이 교과서 범위에서만 출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과후 수업을 비롯한 공식적 일과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영어 보충수업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정규 수업시간까지도 교과서는 어느덧 뒷전으로 밀려나고 보충학습 교재들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교과서에만 충실했던 중학교 시절의 영어와 교과서 이외의 교재들에만 몰두했던 고등학교 시절의 영어. 과연 우리의 학창시절에 영어 교과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우리의 교육현장은 끊임없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으로의 개선을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그 틀로써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에 대한 논의들이 최근 경험적인 차원의 지식, 혹은 역량

등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러한 지식을 전달하는 구체적인 교육의 방식에는 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이는 제도적 틀 안에서 운신해야만 하는 형식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식이라는 것이 인지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달과 전이의 대상이라는 기존 인식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한계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어교과를 좁게는 언어능력의 습득, 넓게는 영미문화의 이해라는 하나의 지식의 체계로 상정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사용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론적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경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암묵적으로 체화된 개인의 언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론적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만 한다는 지식습득에 관한 이해 방식이 이러한 교과서 구성방식과 이를 활용한 수업의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과서는 이러한 학습의 전이라는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하지 못한채 구성되어졌으며, 이렇게 구성된 교과서는 단순히 그 내용이 평가에 활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수단적인 의미만을 갖게 되었다. 매클루언(McLuhan, M)이라는 미디어 학자는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라는 유명한 문구를 남겼다. 그는 이러한 문구를 통해 아마도 매체라는 것은 매체에 담겨진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는 매체 자체에 관해서도 성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다시 말해서, 교과서라는 틀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성격과 교과활동의 성격을 규정짓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내용의 전달을 넘어서 그것을 담고 있는 매체의 구성방식과 전달방식이 학습자로 하여금 그 교과의 지식의 범위를 제한시키기도하고 확장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영어는 물론이거니와, 일본어, 중국어 등과 같은 외국어는 그것의 일상적인 활용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과목일 것이다. 이상적인 언어습득 과정에 대한 아주 단적이고 흔한 예로서, 어린 아기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생각할 수 있다, 자연스러운 언어습득의 과정은 결코 단어, 문법, 표현 등의 방식의 분절화시킨 형태의 지식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그것의 의미와 표현방식들을 그것이 활용되는 전체 맥락이라는 총체성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그것을 활용해야 할 상황 그 자체를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그 언어의 총체적인 맥락은 그것이 사용되는 미묘한 상황과 의미에 대해서 함께 받아들이도록 만들며 실제적인 실천의 영역에서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에 적합하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영어교과서는 지금과 같이 고교생이 알아야 할 얼마 만큼의 단어, 표현, 문법을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에서는 벗어나야 할 것이다. 교과서 속 제한된 맥락 안에서 제시된 분절화된 낱낱의 지식들은 학생들이 그것을 일상의 언어사용의 맥락으로 재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그 효용가치를 잃도록 만든다. 지금과 같이 맥락을 상실한 교과서의 구성과 수업의 방식은 똑같은 표현 속에도 무수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언어라는 열린 기호의 체계를 교과서 속 한정된 의미로 지식화하도록 만든다. 이것은 언어가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맥락적 의미들을 잃도록 만들어,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지식의 교량 역할을 해야 할 교과서가 영혼이 없는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한 기호들의 구성물로 전락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필자소개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학사,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수료를 앞두고, 현재 '문제해결과 그 내재적 요인으로서의 상황적 맥락' 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준비 중에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학교 수업의 진정성에 관한 일고', '문제해결의 상황성, 그리고 그 과정의 일상성 : 민속-방법으로서의 진료행위에 관한 관찰',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학습경험에 따른 정체성 구성에 관한 연구' 가 있다.

‘학생’을 담은 사회 교과서

강 영
부산교육대학교 4학년

1. 들어가기

“자를 꺼내고 줄을 긋자.” 내가 어렸을 때 사회 수업시간에 한 일은 교과서에 줄을 긋고, 칠판을 가득 채운 판서를 공책에 필기하는 것이 전부였다. 교과서에는 글자가 가득하고 그림과 사진은 한두 장, 그나마 사진이나 그래프들이 모여 있는 것은 사회 과탐구 책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인지 올해 6월 마지막 실습 때, 5학년 학생들의 사회 수업이 배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눈앞이 깜깜해졌다. 분명 내가 배워왔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미 몸에 베여 있고.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 그런 사회 수업뿐인지라 걱정이 앞섰다. 며칠 전 보았던 지도 선생님의 유창한, 마치 박물관의 도슨트처럼 이야기 형식으로 하시던 수업이 떠올라 더 심란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다. 그렇지만 예정된 ‘전쟁’을 피할 수는 없는 법!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비장한 각오를 하고 나에게는 무기인 교과서를 펼쳐들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넘겨보았다. 분명 삭막한 글과 그림이 전부였던 사전(辭典) 같던 교과서가 달라져 있었다. 나는 어느덧 교과서에 빠져들었다.

2. ‘학생’을 담을 수 있는 교과서

좋은 수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잘 가르치는 교사,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좋은 교재라고 손꼽을 수 있다. 교사나 학생은 이미 누구나 인정할 만큼 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왔지만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는 교재인 교과서에 대해 단 한 번도 좋은 교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왜 일까 생각해보았다. 대한민국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교재인 ‘교과서’, 그 답은 아마도 20년 전에 교과서를 바라보았던

내가 새 교과서에 흠뻑 빠진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과서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교과서는 지식을 알려주되 일방적으로 밀어부치지 않아야 한다. 교과서는 글과 그림 자료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들이 읽고 배워야 할 책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여기 있는 걸 다 외워야 해.'라는 무언의 압박이나 '이걸 다 배우는 게 학생의 의무야.'라는 식의 강요의 분위기를 가지지 않았으면 한다. 알아야할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그 내용을 배움으로써 학생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어조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조금씩 교과서에서 발견되고 있다. 사회 교과서를 예를 들자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그 과정을 직접 따라 해보도록 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구청이나 시청과 같은 관공서를 탐방하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체험해보면서 학생들이 사회라는 교과를 공부하게 되면 이러한 지식을 알 수 있고,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정보가 풍부해야 한다. 이 부분은 예전보다는 많이 보완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쉽게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아무래도 사회가 국정교과서이다 보니 학생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을 다룰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반에서 교사가 보여주는 작은 자료 하나에도 자신의 얼굴이 나오면 무척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교과서에 서울이나 이미 알려져 있는 유명한 도시가 아닌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이 나온다면 학생들의 기쁨은 엄청 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만큼 흥미와 탐구열도 높아지리라 예상해본다.

탄력적 환경 확대법을 도입하여 3학년 사회 교과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내용부터 담으려는 시도는 좋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의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담아 시(市)나 도(道)별로 조금씩 내용을 첨가한 사회 교과서를 만든다면 더 좋을 것 같다. 물론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은 누구나 배우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가 아닌 자신들의 지역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관한 것을 담고 있는 진짜 '사회' 교과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완벽한 교과서를 바라지 않는다. 어떤 교재든 사람이든 완벽한 것은 없다. 교사나 학부모, 학생들 모두 완벽한 교과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완벽함으로 포장되어 학생들의 접근을 막는 교과서가 아닌 약간의 여백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교과서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만의 연대기를 만들거나 내가 꿈꾸는 지역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잘 정리된 도표가 아닌 직접 만들어가는 사회 교과서를 보여주고 싶다. 학생들이 단순히 교과서를 수동적으로 배워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에서 래프팅을 하는 배처럼 여길 수 있는 교과서였으면 좋겠다. 배가 가야할 곳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거친 물살을 만나면 다함께 노를 젓거나 배를 붙잡기도 하고, 느린 물에서는 여유를 즐기며 경치를 구경할 줄 알았으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전해 듣는 것만이 아닌 함께 노를 저어 배를 이동시키듯이 '사회'라는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는 교과서를 기대해 본다. 지금까지의 사회 교과서는 학생들의 활동을 제시해 주기는 하지만 학생들을 교과서에 담으려는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가장 좋은 교과서는 주어진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고 참여하는 교과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필요한 교과목 중 하나가 사회라고 감히 말해본다. 사회는 우리

의 조상들이 살아온 발자취 그 자체이고 역사이면서 지금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이자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이기 때문이다.

3. 나가기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과서는 일방적으로 지식을 늘어놓는 교과서가 아닌 학생을 담을 수 있는 여지를 가진, 함께 만들어가는 교과서이다. 분명 현실적으로 힘든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도 존재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바라는 것이 이러하다는 사실만 염두에 두고 조금이라도 이상적인 교과서에 다가가고자 노력해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실질적으로 교과서를 바라보고 사용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학생들이다. 그 학생들을 소중히 여겨 '사회' 라는 교과서 안에 조금이라도 담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교과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잡히는 교과서, 읽히는 교과서, 찾아보는 교과서

차 경 호
성산고등학교 교사

교과서는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구조화한 교수·학습활동의 기본도서이다.[1]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특히 역사 과목에서는 성전적인 위치를 지녀왔다. 그 때문에 역사 교과서는 학생, 학부모 뿐 아니라 대중들의 관심을 크게 받아왔고, 나름대로의 발전 모습을 보여주었다. 필자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5차 교육과정의 국사, 세계사 교과서와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를 비교해 보면 컬러판으로 된 화려한 사진과 지도 등 겉모습에서부터 일취월장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역사 교과서를 부담스러워한다. 시험 기간이 아니면 자발적으로 교과서를 손에 잡는 일의 거의 없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읽어본들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한다. 역사 교과서는 너무 많은 학습 요소를 담고 있다. 정말 무지막지하다는 말이 딱 어울린다.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단군 조선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범위가 한 권의 책에 모두 들어 있다. 깨알 같은 글자로 무려 400 페이지 분량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어지럽다. 각 시대의 정치적 사건, 정치 기구, 지방 제도, 군사 제도, 토지 제도, 조세 제도, 농업, 상업, 공업, 신분 제도, 사회 시책, 법률, 사상, 종교, 문화의 경향, 문학, 음악, 미술, 문화유산... 모든 요소가 빠짐이 없다. 정말 꼼꼼하다. 용어는 또 얼마나 어려운지... 가뜩이나 부족한 학생들의 어휘력을 생각하면 더 어렵다. 학생들 표현을 빌리자면 '토'가 나올 지경이다. 재미가 있을 리 없고, 이해가 될 리도 없다. 결국 외양은 화려해졌으나 어렵고 재미없다는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역사 교과서는 왜 수십 년 간 같은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매번 교과서가 개편될 때마다 과도한 학습 요소를 줄이고 더 쉬워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왜 반영되지 못하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도 힘들어 하고 교

1) 정선영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1, 141p.

사들도 이런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까지 왜 가르쳐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혹시 학계의 필요가 지나치게 교과서 내용의 구성에 반영되기 때문은 아닐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입시다.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의 모든 기준이 입시가 되어버렸고, 비교적 자유로워 보이는 중학교에서조차도 이를 무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역사 과목은 너무 구체적이고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다루어왔다. 그동안 서울대가 한국사를 필수로 지정한 상황에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교과서 서술과 학교 현장에 너무 많은 악영향을 미쳤다. 입시를 염두에 둔 현장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학습 요소가 많은 출판사의 교과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다른 출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내용 인플레 현상을 가져왔다.

앞으로는 잡히는 교과서, 읽히는 교과서, 찾는 교과서가 제작되기를 바란다. 결국 좋은 교과서란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평가하는 것 아닐까? 손에 잡히는 교과서를 만들려면 학습량을 대폭 줄이고 학생들 수준에 맞는 쉬운 용어들을 써야 한다.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 용어들은 최대한 지양하고 어쩔 수 없이 써야 할 경우에는 꼭 풀이를 달았으면 한다. 읽히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딱딱한 학술적 문체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내러티브식 서술을 활용한 교과서가 많이 출판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비록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였지만 구어체 서술이 학생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기도 했다. 찾아보는 교과서를 위해서 학습 자료가 더욱 풍부해져야 한다. 본문 서술도 중요하지만 사료, 그림, 사진, 지도, 도표 등의 자료가 수업과 학습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학습 자료가 풍부하면 다양한 학습 활동을 수업에서 응용할 수 있다.

좋은 교과서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많은 논쟁과 합의가 지속되어 왔고, 그 결과 교과서의 질적 수준이 점점 높아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10여 년 간 현장에서 교과서로 수업해 온 역사교사로서 꼭 두 가지는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 어른들의 욕심에서 아이들을 해방시키자! 교과서 제작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학생들에게 좋은 교과서를 선물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혹은 그보다 우선하여 자신들의 가치, 출판사의 이익, 학계의 논의들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가? 둘째, 현장 교사들을 믿고 맡겨 보자! 전통적으로 교육의 3요소를 주체, 객체, 매개체라 한다. 일반적으로 주체는 교사, 객체는 학생, 매개체는 교과서에 대응된다. 그렇다면 수업을 위해 교과서를 가장 잘 제작하고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장교사들이 아닐까? 실제로 교과서와 별개로 자신만의 배움책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역사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매개체인 교과서가 교사와 학생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라면, 마땅히 교과서의 주인은 교육 현장의 교사와 학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과서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지나친 이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와 같은 가치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교과서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다.

필자소개

대구 성산고등학교 교사, 2011-2014 교과서 수정 · 보완을 위한 모니터링단 위원

과학 교과서, 그것이 알고 싶다.

김 유 정
경인교육대학교 3학년

'좋은' 교과서에 대해 논할 때에는 내용,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체계적인 학습 내용 조직, 학생 개개인의 수준 고려, 창의력·사고력 향상, 학부모의 요구 반영 등은 필자가 예비교사로서 좋은 교과서의 조건들이라고 배워온 것들이다. 필자는 학생의 입장에서 오랫동안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받아왔기에 학생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히 '좋은 과학 교과서'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과학 교과서는 과학교육의 목표에 따라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적 기본 개념을 습득하고 탐구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필자의 학창 시절 과학 교과서를 돌이켜보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험 과정과 개념 등이 삽화나 그림으로 나타나 있고, 줄글 형식의 설명과 함께 중요한 단어나 개념은 중간 중간 진한 글씨로 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노력으로 과학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적 태도를 함양하고 과학적 사고력과 탐구력을 높일 수 있을까? 더 나아가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이 꼬마 과학자로서 자연현상에 스스로 관심을 갖고 그것을 탐구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필자는 그렇지 못했다. 교과서의 제시된 실험 과정과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개념들은 시험에 나오는 것으로 꼭 암기해야 할 내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나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왜'나 '어떻게'로 시작하는, 지나치게 일반적인 질문의 나열만으로는 또는 질문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듯 답이 바로 정리되어 있는 현재의 교과서 형식을 통해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과학 교과서는 '탐구'와 '관찰'이 주를 이루는 교과의 특성답게 물음표가 많았다. 학생들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 자연 현상의 원인과 '어떻게?'라는 질문을 통해 자연 현상의 발생 과정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종종 교과서가 묻는 많은 질문들을 보고 난 뒤 '난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는데,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과학 교과서의 질문들에는 '학생들'의 궁

금증이나 의문이 담겨 있지 않았다. 이처럼 교사나 교과서에 의한 '강요된' 탐구나 의문은 탐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했던 의도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단순히 정답을 묻는 질문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 학생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자연 현상을 바라보고,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나 동기가 유발될 때는 바로 학생들 스스로 인지 갈등을 느끼고 의문이나 질문을 가질 때다. 이런 점에서 과학 교과서는 단지 질문의 나열이 아닌 학생 스스로 질문을 적어보게 하는 등의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는 발문을 만드는 데에 많은 시간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필자의 경험에 미루어 볼 때, 좋은 교과서란 교과의 내용이 학생 자신의 경험과 분리되지 않고 학생들이 관련 지식을 생활 경험과 통합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된 것이다.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과학 수업 중 하나는 필자의 혈액형을 직접 알아보는 실험이었다. 실험은 보통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자신의 경험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학습 내용에 대해 단순히 듣고 알게 되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데에 좋다. 하지만 여건상 모든 과학 수업에서 실험을 진행하기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자체가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관련짓고, 통합하도록 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교과서는 나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학교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존재처럼 느껴지곤 한다. 즉, 과학 교과서의 내용이 교과서에서만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학교를 떠나서도 교과서가 유의미한 것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실생활과 관련짓는다는 것이 체계적으로 구성된 과학 교과 내용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내용은 유지하되 그 내용을 학생들의 경험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교과서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공부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책이다. 본래 교과서는 글자의 크기나 배열, 삽화의 적절성을 비롯한 많은 요소가 교육과정 상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드러내고 학생들이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편집된 것이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기보다는 문제집이나 참고서, 학교 자체 내에서 편집하고 만든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교과서가 점차 계륵(鷄肋)과 같은 처지가 되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는 현행 입시제도나 교육제도의 문제로 인한 영향이 클 것이다. 원인과 결과, 실험 과정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알아보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는 교재들은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암기하고 시험공부하기에 '좋은' 교과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교육의 목표는 암기식 교육과 지식전달식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른 교재들처럼 단순히 정보나 지식의 집합체로서의 교과서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탐구가 일어나고 과학적 소양을 함양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과학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제도가 점차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교과서도 과학교육의 본연의 목표에 맞게 변화하고 발전한다면 학교와 학생으로부터 교과서가 배제되거나 무시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좋은 과학 교과서를 정리하자면 좋은 과학 교과서란 학생들이 자연현상의 그것을 알고 싶게 만드는, 탐구하도록 이끄는 교과서일 것이다.

‘좋은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일까?

이 경 학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이 생각하는 ‘좋은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 일까? 간단하고도 어려운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는 교과서의 사용 주체가 교사와 학생이기 때문이다. 교과서는 학교 교육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과학 교과서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자. 크게 교육과정의 목표 달성 측면과 수요자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교육과정의 목표 달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생 수준에 맞게 과학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정하여 학교 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 중심의 수요자 측면에서는 과학과 관련된 현상과 내용을 접하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과학을 학습하는 데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좋은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앞의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교육과정의 목표 달성 측면보다는 교사와 학생 즉, 수요자 측면에서 필자의 현장 경험과 2009 개정 초등 3, 4학년 과학교과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좋은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가 어떤 것인지 고민한 점들을 적어 보고자 한다.

1. ‘좋은 과학 교과서’에 대한 현장 교사의 생각

첫째,‘좋은 과학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교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충실히 지도하는 초등학교 현장 교사들이야말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과학 수업의 흐름과 학생들의 흥미와 난이도 등에 관해 가장 잘 아는 현장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과학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히 현장 교사가 교과서 연

구진과 집필진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과학교육의 이론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 대부분은 과학 교과서가 단순히 초보적인 탐구활동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학습 수준과 난이도에 맞게 적절히 구성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과학 교과서에는 중요한 과학 개념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고 질문으로 가득 차 있다. 주요 내용은 과학 수업을 통해 교사로부터 배워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학생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쉽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과학적 소양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탐구하며, 과학 지식과 연계하여 과학적 창의성이 발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과학 교과서가 과학 현상과 이론에 대한 설명보다는 실험 단계를 설명하는 사진, 삽화, 도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아쉬움이 있다. 단순히 실험 활동 전체를 문장이나 삽화로 안내해 주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실험을 설계하여 이를 검증해 보는 활동이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학생을 위한 '좋은 과학 교과서'

과학 교과서의 수요자는 누구인가? 교사는 교과서를 통해 사고를 촉진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과학 교과서를 통해 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사고의 내면화와 지식의 확대는 물론 의문점을 갖고 더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 교과서의 주인공은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보기에 수준이 높고 어렵게 기술이 되었다면 학생들이 과학 교과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첫째,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는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생활 중심형 과학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암기 위주의 교육이 아닌 생활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생활의 여러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 교육이 될 것이다.

둘째, 과학 수업을 하다보면 초등학생들은 많은 질문을 한다. 질문 중에는 지식과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과학 교과서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비롯된 것이다. 물론 수업 중에 교사의 안내와 지도에 따라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의문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학생들이 교과서만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다. 일본과 미국 교과서의 경우 과학 지식 관련 내용이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교과서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일부에서는 내용이 많아지면 학생들의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간단한 삽화나 사진, 도표를 사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과학 교과서가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탐구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실험을 위한 내용보다는 과도한 그림이나 인물 사진이 교과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본문의 내용이 침해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학생들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다양

한 정보를 얻는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정보를 인터넷과 기타 도서를 통해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소 제한된 학교 수업에서는 교과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과서는 학생들이 읽기에 적절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Samuels(1974)은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기보다는 교과서에 제시된 뜻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Wright & Spiegel(1984)은 교과서가 읽기 어려울수록 학업 성취도가 낮고 도리어 쉽게 쓴 책이 학생들의 이해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는 초등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지나치게 쉬운 말로 설명하다 보면 핵심 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겠지만 학생들의 흥미와 교과서의 가독성(readability) 측면에서 학생들의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하여 그들의 수준에 적절한 용어 선택에 충분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3. 질 높은 초등 과학 교과서를 위한 지원

첫째, 과학 교과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연구진과 집필진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기에는 교과서 개발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 먼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교육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는 교과서를 연구하여 집필하는데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여 논의 과정을 거치고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진 후 심의가 이루어져야 질적으로 우수한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가 개발 될 것이다.

둘째, 교과서 집필진의 어려움 중 하나는 차시별 교과서 페이지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삽화와 글이 들어가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집필자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집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는 친절한 과학 교과서를 쓰는데 큰 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필자의 판단에 따라 교과서 내용과 분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가 수준의 교육 철학이 반영된 과학 교과서가 필요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 측면에 창의·인성, 그리고 STEAM의 내용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다소 의문이다. 과학교육에서 창의·인성, STEAM과 관련된 활동은 물론 그것과 관련된 흐름이나 내용들이 교과서 속에 반영이 되어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과학 교과서에 완전하게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업무로 힘들어 하는 현장 교사들을 위해 이러한 부분이 시원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교과서는 그 동안 다양한 연구와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해 왔다. 과학보다는 과학 교육을 위한 의지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교사와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더 좋은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필자소개

- 광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학사, 석사
- 전남대학교 과학교육과 박사
- 제 8회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
- 교육부 과학 교과용 도서 심위위원
- 광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기술 · 가정 교과서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
– 중3 기술 · 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김 효 은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단순히 정보의 이용을 넘어서 생산하는 기술이 중요해지고, 향후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생명 기술을 포함한 획기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이 대두되는 현대사회에서 기술 분야는 학생들에게 중요하다. 한편, 가정 분야 역시 학생들이 하나의 주체로서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청소년 시기에 성장하면서 겪는 문제, 기본적인 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가정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교육 현장에서 기술·가정 수업은 유의미하다. 따라서 교사가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칠지 그리고 평가할지에 대한 고려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과서는 하나의 학습 지표로서 교사들에게는 어떤 내용을 가르칠지,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어떤 내용을 학습할지 알려주는 중요한 지침서이다. 그러므로 기술·가정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하여 바람직한 교과서를 만들지는 매우 중요하다.

기술·가정 수업을 받은 기억이 오래되어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동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과거 학창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현재 기술·가정 교과서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기술·가정 수업은 초등학교 5·6학년에서는 실과,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는 기술·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그 기간 동안 기술·가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들의 현재 및 미래 생활과 연결되는 교육내용을 포함하며 이 내용이 교과서에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이를 통해 삶을 윤택하게 영위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가 교과서의 핵심이다.

하지만 기술·가정 교과서에서 가정 분야는 지나치게 지식을 이론화하여 나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과서의 본래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 가정 분야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진로와 가정생활 등을 다루고 있지만 다양한 정보만을 줄 글로 나열하고 있어 학생들이 현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소

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현실에서 진로교육과 청소년 생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현 교과서에서는 기본적이고 당연한 내용에 지나치게 어렵게 살을 붙이고 있어 오히려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와는 달리 기술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기 힘든 세부적이고 심화적인 내용을 다루어 교과서만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다양한 기계 요소에 대하여 설명하는 중3 '기계 운동의 원리'를 살펴보면 교과서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이 생활에서 실제 사용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다양한 그림으로써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그림만 보고 상상하여 현실에 확대해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 용어를 써서 인해 내용이 더욱 어려워져 흥미를 떨어뜨리고 학습 내용 속 다양한 요소들 간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았을 때 더 나은 교과서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우선, 가정 분야의 경우 학생들이 생활 속 경험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을 지나치게 이론화, 체계화하여 교과서에 어렵게 표현하는 것을 줄이고 간단히 언급하는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 대신에 학생들이 고민하는 진로와 타인과의 관계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해결책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넣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진로 문제에 대해 혼란스러운 학생들이 많으므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직업 소개, 적성과 흥미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 주로 하는 고민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 분야의 경우, 학생들이 평소 접하지 않는 기술적인 내용으로, 표현 역시 어려워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변화가 필요하다. 삽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매체, 3D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교사에게 제공하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2차원적이 아닌 3차원적인 자료로 수업을 진행하여 이해를 도와야 한다. 또한 낯선 용어가 많이 등장하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넣고 다양한 요소에 대한 차이를 나열식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비교 설명을 명확히 하여 학생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과 자체의 목적, 학생들의 현실적인 상황과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어떻게 좀 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변화와 학생을 위한 노력은 교육이 더욱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익숙한 교과서

김 민 지
춘천교육대학교 4학년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나는 초등학교 교실, 그 교실의 맨 앞에 서 있다. 한 손에는 교과서, 다른 손에는 스마트포인터를 들고 있는 나를 향해 바라보는 30명 남짓의 아이들의 눈망울에서 예비교사로서의 책임감과 묘한 설렘이 차오른다. 나의 유년시절 추억 속의 선생님들도 지금의 나와 비슷한 모습으로 기억된다. 지금 내 손에 들려 있는 교과서를 보며 이제는 예전과 달리 교과서를 통해 무엇을 배울까가 아니라 어떻게 가르칠까를 고민하게 되었지만 교과서가 내게 주는 느낌은 여전하다.

어린 시절, 나의 교과서는 새로운 학년의 출발을 의미하는 신호였다. 그것은 새로운 학년과 학기가 시작되면 항상 해오던 통과의례 때문인 듯하다. 새 학기 첫날 나는 학교에서 받은 교과서를 투명한 비닐로 정성껏 싸는 의례를 치렀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일일이 교과서를 비닐로 쌌을까 생각되지만, 당시 나에게 그 작업은 새로운 마음으로 학기를 맞이하는 신성한 의례였던 것이다. 비닐로 싸서 맨들맨들한 교과서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던 순간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교과서 표지에 학년, 반, 번호와 내 이름 세 글자를 적어 넣음으로써 새 학기 준비는 끝난다. 요즘의 교과서는 예전에 내가 사용하던 교과서에 비해내용 구성도 훨씬 더 풍부해졌고, 외형면에서도 월등히 좋아져서 굳이 비닐로 쌀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교과서는 표지를 싸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많은 교과서 중에서 유난히 내가 가장 좋아했던 교과서는 형형색색의 그림으로 가득 찬 미술 교과서였다. 미술 교과서에는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과 내 또래의 학생들이 그린 작품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었다. 나는 교과서에 실린 또래의 작품을 보며 나의 표현능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실감하면서도 그로 인한 도전은 멈추지 않았다. 당시 나에게 또래들의 작품은 다른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보다 훌륭해 보였으며 내

가 넘어야 할 벽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내 표현 능력을 길러주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미술 교과서의 작품을 보며 따라 그리거나, 나만의 개성을 살려 더 새로운 표현해 보기도 하였다. 미술 수업은 나만의 작품을 완성하는 보람을 느끼도록 해주었고, 미술교과서는 작품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미술 활동을 좋아하던 나는 새로운 활동이 시작될 때면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다. 새로운 작품에서 느껴지는 호기심과 낯설음은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였지만 그럴 때마다 미술교과서는 부족한 표현활동에 실마리를 건네주는 것이었다. 그 당시는 미술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자료가 매우 한정적이어서 미술교과서는 선생님의 시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작품과 함께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수 · 학습의 소재였다.

이제 나는 미술수업을 지도하는 예비교사가 되었다. 얼마 전 교생 실습때 내가 했던 미술 수업에서 나는 3학년 1학기 '생활 속 무늬 꾸미기' 단원으로 종이를 오리고 붙여 무늬를 꾸며보는 활동을 가르쳤다. 우리 생활 속의 다양한 무늬들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에 미술 작품 감상이 주가 되는 수업보다는 교과서의 활용 빈도가 낮았다. 물론 수업의 내용에 따라 그리고 활동의 성격에 따라 교과서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점들이 남아 있다.

학교의 여러 교실에서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중시하는 교육적 추세에 따라 교사 위주의 설명식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수업을 이끌어나가는 활동중심의 수업이 주를 이룬다. 특히 아이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신체적, 예술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예술과 체육 교과에서 이러한 수업 방식이 두드러진다. 조금 과장하면 '활동에서 시작해, 활동으로 끝나는' 수업도 종종 눈에 띈다. 그러다보니 교과서를 펼쳐보고 오늘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찬찬히 살펴볼 시간조차 부족하여 교사는 교사에게 주어진 40분이라는 시간이 야속하기만 하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교과서를 꺼내라 했던 것이 무안하리만큼 어느 새 교과서는 활동에 치여 수업에서 조용히 그 자취를 감춘다. 또한 미술 교과서를 포함한 모든 교과의 교과서는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점점 더 좋아지는 듯 보였고, 실제로 그러했다. 그러나 각종 교수 · 학습 도움 사이트들이 그 본연의 목적을 뛰어넘어 기존의 교과서가 해오던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움직이는 영상에 익숙해진 우리 아이들에게 교과서는 수업 준비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 채 책상 서랍 한 켠에 자리 잡게 되었다. 아무리 좋은 교과서라고 해도 이처럼 아이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교과서는 무의미하다. 새 교과서보다 늘 곁에 두고 자주 보아 익숙해진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에 더 가까운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좋은 교과서'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좋은 교과서이어야 한다는 것에는 생각을 같이할 것이다. 교사에게 좋은 교과서란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목표 및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지침이 되어 주기도 하며 때로는 교사 저마다의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되어주는 교과서이다. 여기에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시키는 교사의 세심하면서도 핵심적인 발문들이 더해져 좋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좋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창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이 단계별 수업의 흐름을 제시한 교과서보다는 유연함을 담고 있는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좋은 교과서는 학습할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의 흥미와 상상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교과서이다. 기존의 교과서가 가지는 가장 큰 한계점은 저마다 다른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 유형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점이다. 따라서 최근 들어 교과서의 일방향적인 특징이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디지털 교수 · 학습 자료(e-book)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교과서가 수업에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자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교과서 수업에서 매체의 효과를 논하기에 앞서 기존의 교과서로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교과서는 '읽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알고자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 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아이들 스스로 교과서를 수업 이외의 모든 생활에서 궁금한 점 또는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교과서와 학생의 역할이 보다 능동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가 실천적 의미를 띨 때 비로소 좋은 교과서가 된다.

꽃은 꽃이라고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꽃이 된다고 말했던 김춘수 시인의《꽃》의 한 구절처럼 좋은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종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나의 어린 시절의 교과서가 그러했듯이 아이들에게 교과서가 자주 보아 익숙해진 그리고 나만의 의미를 투여할 수 있는 '좋은 교과서'로 기억되길 바란다.

소통 · 공감의 교과서

김 현 용
작전여자고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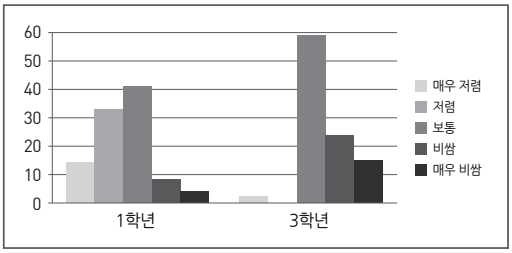
1. 들어가기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한번 이상은 읽고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을 법한, 아니, 가지고 있었던 책, "교과서"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에선 문제집 및 교사 제작 유인물에 밀려나 학생들에게 무시당하고, 낙서장이나 베개 등의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과서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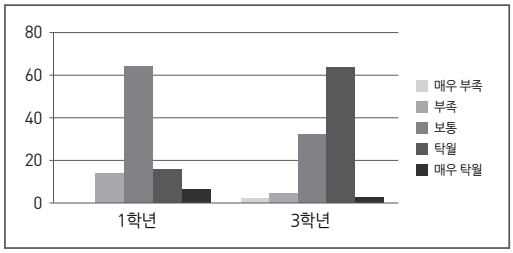
2. 현실 속 교과서의 위상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내용 및 학생들이 알아야 할 지식을 총괄적으로 담고 있는 교과서. 이 교과서에 대한 현실 속 위상 및 좋은 교과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본교 학생 1학년 100명(3반), 3학년 100명(3반)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현실 속 교과서 및 좋은 교과서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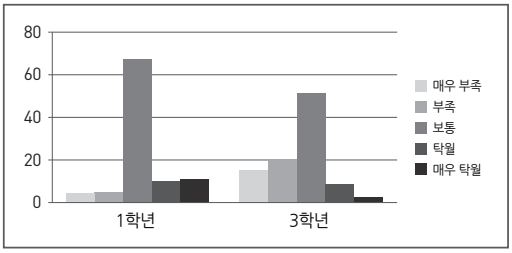
고1과 고3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대입을 앞두고 있는 고3과 아직 그렇지 않은 고1이 교과서에 대한 생각이 다를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설문의 내용은 교과서의 가격, 디자인 및 편집, 효율성, 만족도 및 수업 · 공부의 교과서 활용도이며 이 외에 좋은 교과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학생들의 설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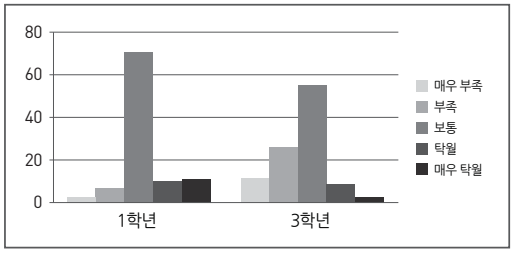
[교과서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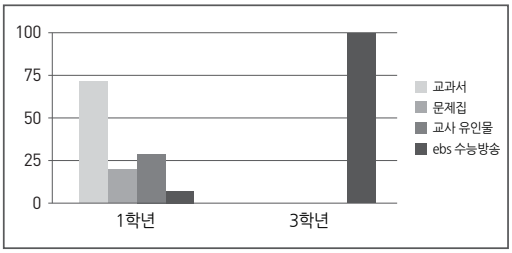
[교과서 디자인 및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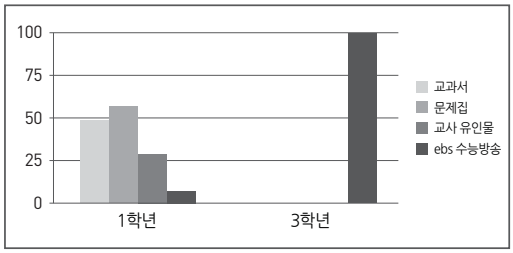
[교과서 효율성]



[교과서 만족성]



[주 수업교재(복수정답가능)]



[주 공부교재(복수정답가능)]

위 설문을 분석하여 보면, 학생들과 교사들은 교과서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학년의 경우는 50%이상이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였고 그 외 교사의 유인물 및 문제집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3학년의 경우는 교과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EBS 방송 및 문제집을 중심으로 수업 및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1학년의 경우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목적을 두는 교과서 중심의 수업 및 수업과 관련한 부교재(교사 유인물, 문제집)를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교과서 가격 및 편집, 효율성, 만족성, 주 공부교재 등에 대한 대답에 보통 수준이라 답하였다. 그러나 고3의 경우는 대입 및 수능 중심의 시험 대비 공부 때문인지 교과서보다는 수능과 연계되어 있는 ebs 방송 및 교재를 채택하고 있었고, 고1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과서의 가격이 비싸다고 보았다. 그 이유에 대한 물음도 수업에 사용하지 않는 교과서를 구입한다는 것 자체가 비싸다고 생각하였고 그로 인해 구입하지 않았다는 학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외 교과서의 효율성, 만족성, 디자인 편집 등은 보통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좋은 교과서 혹은 자신이 바라는 교과서는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고 1,3학년 모두 현재의 교과서는 전체적 설명

은 잘 되어 있으나 핵심 요약 및 다양한 문제 유형 수록은 부족하니 이를 충족시켜 교과서 하나로 각종 시험에 대비 가능한 완전학습 교과서를 원한다고 답하였다.

3.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서 - 학생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과서

교과서란 교육과정의 목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며, 각 단계별, 수준별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교육적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전 영역의 지식을 망라하여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제공하고 있는 교과서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왜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 명쾌하다. 입시 위주의 교육, 대학 진학에 필요한 도구로 전략한 학교 교육 속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문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실 속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과반수 이상은 문제집의 핵심 요약 파트, 문제풀이 등을 보고 있다. 학생들에게 교과서가 아닌 부교재를 보고 있느냐는 물음에 학생들은 하나같이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이 전반적 흐름의 이해에는 도움이 되지만 시간이 너무 걸리고 문제집과 유인물의 경우는 빠른 시간에 방대한 양의 공부를 완결 지을 수 있고, 쉽게 등급 향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 했다. 즉, 우리 학생들의 공부는 상급학교 진학 및 학교 시험 점수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푸는 스킬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문제집 및 교사의 보조 유인물의 역할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교과서는 무겁고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의 교육적 상황에서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효율적 공부(핵심요약, 다양한 문제유형 탑재)가 가능한, 그러면서도 교과 내용에 대한 설명도 잘 되어 있는 교과서가 학생들이 원하는 좋은 교과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학생과의 계속적인 소통과 공감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서, 완전학습이 가능한 교과서를 만든다면 학생들은 다른 부교재가 아닌 교과서만으로 공부하게 될 것이다.

4. 맺음말

우리의 교육 현실이 상급학교 진학 및 학교 시험을 목표로 한다면 그에 부합되는 교과서를 만들면 지금의 천덕꾸러기 교과서에서 강력한 무기로 격상되지 않을까? 부교재가 필요 없고 문제집을 살 이유가 없는 교과서를 만들고 우리 시대의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과서! 요즘 학생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통하여 학생이 원하는 교과서를 만든다면 목마른 자가 우물을 찾는 것처럼 교사와 학생들은 교과서를 찾게 될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소통을 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고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인 것처럼 매일 매일 접하는 교과서와 학생, 교사도 서로 계속적 소통 및 서로에 대한 공감을 통해 학생들이 필요한 교과서가 되는 것이야 말로 좋은 교과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필자소개

현재 인천 작전여자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과 소통하는 미술수업을 위해 계속적으로 미술 수업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미술 수업 관련 공모전 및 인천 미술교육과정 연구 등에 참여하고 있다.

햅쌀 교과서
– 교과서에 대한 생각 –

전 수 린
충북 대제중학교 교사

흔히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한다. 우리는 매일 주요 열량원으로 밥을 먹듯이 학생과 교사는 매일 주요 지식원을 교과서를 통해 학습한다. 최근의 보도를 통해 보면 식습관의 서구화와 다양한 식단의 개발로 쌀 소비가 줄고 있어 농가의 시름이 깊고, 그래서 이에 대한 여러 대비책들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쌀 소비가 줄고 있다 하여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두끼는 반드시 밥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매일의 양식이며 주요 영양소들을 쌀을 통해 섭취한다. '교과서는 무수히 많은 학습자료 중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교과서관을 강조하고, 실제로 다양한 교과용 도서와 멀티미디어 교구, 실로 방대한 최신의 참고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여전히 주요한 학습 자료의 기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교과서이다. 필자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일정 부분 교과서에 의지하고 있으며 매일의 영양소를 채우는 지식의 밥과 같이 여기고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여러 사람의 노고가 서려 있는 교과서에서 대한 예찬을 나누고자 한다.

교과서는 싫증이 나지 않는 매력적인 것이다. 가끔은 달콤한 초콜렛과 짜고 얼큰한 라면과 콜라와의 환상 궁합을 가진 자극적인 피자들에 현혹되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매일 먹을 수는 없으며 이내 질리고 마는 정크 푸드일 뿐이다. 그러나 밥은 때로는 질릴지라도 근본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날들을 함께해도 질리지 않은 매력적인 것이다. 교과서가 그러하다. 우리는 플래시 자료와 파워포인트 자료 등 화려한 멀티미디어 교구에 현혹되어 즐기기도 하지만 그것이 본질에 가깝다고 볼 수 없다. 교과서를 신성시 또는 금과옥조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교과서가 가장 친숙하고 익숙하고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밥 같다고 생각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가장 잘 담아 내고 있다. 교육과정이 필수 영양소 같은 것이라면 그것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효과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교과서이

다. 기본적으로 교과서가 만들어질 때 교육과정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밥이 기본적인 베이스, 필수 영양소와 기본적인 에너지원이라면,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학습해야 할, 교사가 안내하고 제시해야 할 기본적인 성취기준을 담고 있고 그것을 별다른 노력 없이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교과서인 것이다. 또한 교과서는 탐구활동과 발견학습에 알맞은 지식의 기본구조를 잘 담아내고 있다.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도표와 그래프 등 자료가 제시되어 있고, 학습의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 사진, 삽화가 있어 좋다. 그것은 마치 그냥 쌀밥만으로는 맛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갖가지 나물들과 고추장, 참기름을 더해 비벼먹는 비빔밥이나 여러 가지 채소와 햄을 넣고 볶은 볶음밥 같은 것이다. 무엇보다 그러한 자료들은 교과서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보다 고층적인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이기에 의미가 깊다. 위에서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는 설명이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지식의 기본구조'와 관계가 있다면, 교과서가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생활 문제 및 문제해결 활동'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겠다.

교과서는 보다 더 유연해지고 있다. 그것은 교육과정이 수시 개정으로 변화함에 따라 그에 맞는 교과서가 수시로 개발되기도 했으며, 검 · 인정 교과서의 확대 및 도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 경전처럼 여겨졌던 교과서가 묵은쌀이라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수시로 새로이 나오는 교과서는 햅쌀과 같은 것이다. 햅쌀은 쌀 본연의 맛이 더해지듯, 우리의 교과서도 그 풍미를 더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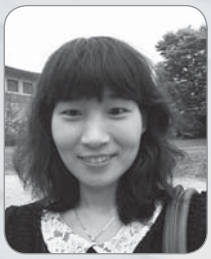
지난해 대통령의 '친절한 교과서 만들기'[1] 발표에 따라 또 한 차례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나 발언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과서는 시대에 알맞게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다. 지금도 충분히 친절한 교과서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교사의 수업혁신과 더불어 그 효과가 검증된 학습활동들이 풍부한 교과서가 나왔으면 한다. 공급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지는 묵은쌀이 아니라 학생의 요구와 교사,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수용되어 만들어져 비타민이 풍부한 햅쌀 같은 교과서이기를 바란다. 교과서에서 시험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의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그 자체로 당당히 힘을 지니기를 바란다.

필자소개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동대학원 졸업
대제중학교 사회,역사 교사로 근무

1) 박근혜 대통령이 선행학습과 사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교 시험은 교과서 안에서만 출제해야 한다고 참고서가 필요없는 '친절한 교과서'를 만들라고 주문함. 현행 교과서는 너무 간단해서 참고서가 없으면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또 교과서 외에는 절대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고 하고, 선행학습 부분도 시험 때 출제하지 않아야 사교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함.

교과서 속에 학교생활이 들어 있다



이 순 이
경기도 고양
백양초등학교 학부모

"시연아, 가방이 너무 무겁다! 학교 사물함에 교과서 놓고 다니면 안 되니?"

오늘 아침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작은 실랑이로 하루를 시작한다. 초등학교 4학년생인 딸아이는 또래 친구들과 서면 가지런한 아랫니 가운데 쏙 빠져버린 이처럼, 키가 또래보다 한 뼘 정도 작다. 아이는, 작은 체구가 신경 쓰여 책가방이라도 가볍게 들고 다녔으면 하는 마음에 건넨 엄마의 잔소리를 "헤~헤~" 웃으며 등굣길에 나선다. 엄마인 나는 아이의 뒤통수를 향해 "교과서가 너무 두꺼워, 좀 얇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푸념만 늘어놓는다.

2년전만 해도 딸아이는 교과서가 무겁다며 모든 책을 학교 사물함에 넣고 다녔다. 가방을 메고 걸을 때면 물통과 필통이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다.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고, 평가가 100% 통합 서술형으로 바뀌면서 시작되었다. 곧잘 혼자서도 문제집을 풀며 예습·복습을 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문제집을 펼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4지 선다형과 단답형 문제 풀이가 도움이 안 된다나?

"엄마! 우리 학교는 이런 문제 안 나와."
"딸! 그래도 시험보기 전에 교과서라도 한 번 읽자. 아무 준비도 없이 시험을 보는 건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독서를 좋아하기 때문인지, 좋아하는 선생님에 대한 예의 때문인지, 아님 너무 놀아서 미안하기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흔쾌히 "콜~"을 외쳤다. 교과서로 복습을 시켜보자고 마음을 먹고 펼쳐보니 생각보다 어려웠다. 기억의 한 자락을 더듬어보았지만 왜 이렇게 어려운지. 간단한 주제 설명과 그림, 그리고 밑줄로 이어진 책을 펼쳐보고 순간 '띵~~'. 주입식으로 길들여진 탓에 다양한 생각을 적는 요즘 교과서가 참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눈앞에 불친절(?)한 교과서를 펼쳐 놓았지만 나의 시선은 자꾸만 문제집의 설명코너를 훑고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으랴!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깜박 졸면 수업 따라가기 어렵겠는걸! 교과서가 전과처럼 친절했으면 좋겠

다.”는 말로 무안함을 넘겨본다. 아이는 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친절하게 나의 교과서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교과서를 읽으면서 아이는 조잘조잘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다. 소리 내서 한 번 읽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아이는 어느덧 교과서를 펼치고는 국어, 사회, 과학 교과를 넘나들면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때부터 교과서를 가져와 읽는 날이 늘어났다.

한 번은 사회과 교통수단을 배울 때였다. 사회 교과서를 읽던 아이가 뜬금없이 수학 그래프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는 “지하철이 버스보다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교통편을 결정해야 한다.”는 다소 엉뚱한 이야기를 꺼냈다. 학교에서 교통수단과 그래프에 대한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승용차팀, 버스팀, 지하철팀, 도보팀으로 나눠 이동시간을 조사했더니, 승용차가 제일 빨랐고, 버스, 도보, 지하철 순이었단다. 지하철을 타고 신나게 출발했던 아이들이 꼴찌로 도착해서는 울상이었다나. “난 운이 좀 좋았어, 버스를 탔거든.” 조잘조잘 설명하는 아이의 이야기가 정겹다.

일하는 엄마로서 늘 미안한 점은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다.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한 궁금증은 때로는 목마름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교과서와 만나면서 아이의 학교생활을 마주할 수 있어서 재미가 쏠쏠하다.

얼마 전에는 6.4 지방선거와 맞물려 4학년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단원을 프로젝트 학습으로 진행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하게 됐다. 아이들의 성향을 알아보는 몇 가지 설문조사를 하고 4학년 전체 학급을 혼합해 5개의 그룹으로 나눴다. 아이들은 그룹별로 스스로 정당 이름과 공약을 만들었다. 연합하여 정당 창당식도 개최하고, 도지사와 교육감도 선출하였다.

중도 성향의 딸아이는 ‘올리고당’의 당원으로, 당내 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마하는 아픔을 겪었다. “너무 떨려서 연설을 잘 못했다.”고 아쉬워하던 아이는 낙마의 아픔을 딛고 선출된 당내 후보자를 도와 연설문을 다듬고 선거전에도 뛰어들어 진짜 선거를 경험해 보았다. 도지사 후보 선거운동을 돕기로 했다며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서는 아이를 보니 피식 웃음이 나기도 했다.

지방선거 당일에는 아침부터 투표하러 가야 한다고 깨우는 통에 온 가족이 학교로 출동했다. 우리 반 학부모들의 투표율이 90%를 넘으면 과자파티를 열기로 했다고. 다행히도 아이들의 적극적인 공세에 조촐한 과자파티가 열렸다. 정당 활동을 하면서 아이는 내게 묻는다. “그렇게 중요한 사람을 뽑는데, 왜 투표율이 60%가 안 되느냐”, “엄마, 아빠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어떤 공약이 맘에 들어서 ○○○을 선택했냐” 아이를 보면서 부모는 또 배운다. 어려운 정치를 몸으로 익혀서 일까? 교과서에서 만나는 ‘도지사’, ‘도의회’, ‘주민자치’ 등등 어려운 용어도 제법 척척 설명해 준다.

요즘 아이는 더욱 열심히 교과서를 읽는다. 선생님이 매일 내주는 ‘복습숙제’ 때문이다. 복습을 숙제로 내준다니 조금 이상하지만 교과목이나 분량,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복습숙제’는 오롯이 아이의 몫이다. 엄마인 나는 아이가 한 숙제를 점검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날 그날 배운 내용을 집에서 교과서를 읽으며 복습을 한다.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숙제 점검을 놓칠 때도 있지만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교과서를 들여다보며 아이에게 묻는다.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니?”.

필자소개

현재 11살, 7살짜리 두 딸을 기르는 학부모로 ‘개구쟁이여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라는 것을 육아철학으로 삼아 자녀 양육을 하고 있다.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깐깐한 필자는 직장맘이기도 하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교과서를 통해 만나는 자녀의 학교생활이 그져 반갑고 즐겁기만 하다.

교과서 동시 외우던 날

황 자 경
서울강남초등학교
학부모

아이가 학교숙제라며 소리 내어 외우는 동시가 귓가에 맴돌았다. 지그시 눈을 감았다. 평범한 맞벌이 가정의 저녁 풍경이 그러하듯,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빨리, 빨리"를 외치며 아이들을 채근하는 중이었다.

집으로 출근하듯 서둘러 퇴근해 돌아온 엄마는 매달리는 아이들을 보듬어줄 새도 없이 늦은 저녁 식사 준비에 한창이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직장엄마의 일상은 더욱 복잡하고 무거워진 터였다. 하루하루 챙겨야 할 숙제와 준비물도 적지 않거니와 하교 후 학원을 몇 군데나 보내야 엄마의 퇴근 시간과 얼추 맞을지 따져보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네 살배기 작은아이는 온종일 어린이집에 맡긴다지만, 나날이 활동력이 왕성해지는 큰아이를 돌봄교실에만 가둬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내 몸에 기대어 세상에 나온 아이. 눈을 마주치고 옹알이를 하고 기고 걸으며 성장의 경이를 보여준 아이. 나에게 '엄마'라는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준 아이. 그 아이가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은 엄마에게도 설레고 낯선 도전이었다.

엄마의 부재가 아이의 학습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이를 더욱 바투 잡았다. 받아쓰기 연습하기, 연산문제 풀기, 책 읽기 등 엄마가 없는 동안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주지시키고 임무를 완수하면 "착하다"며 추켜세웠다. 퇴근하고 들어서는 엄마의 문 여는 소리에 아이들은 "엄마~" 부르며 팔다리에 매달렸지만, 엄마는 "숙제 다 했니? 수학문제 풀었어? 받아쓰기 몇 점 받았어? 책은 뭐 읽었니?…"를 고장난 테이프처럼 반복해 물었다.

하루가 기우는 늦은 저녁, 식사를 기다리며 아이가 동시를 외운다. 초등학교 1~2학년군 국어활동 2-(가)에 실린 동시 한 편.

> 고양이는 나만 따라 해./ 내가 신문지 밑에 숨어도/ 문 뒤에 숨어도 따라해.// 책상 밑에 숨어도 나만 따라 해./ 꽃 냄새를 맡을 때도/ 벌레를 내려다볼 때도 나만 따라 해, 만날만날.// 놀다가 심심하면 멍하니 밖을 내다보아./ 내 친구는 고양이밖에 없고,/ 고양이 친구도 나밖에 없고.// 저녁나절, 엄마 오는 소리인가/ 발소리에 귀 기

울여 보아, 나도 고양이도.// (…하략)

- 권윤덕, 고양이는 나만 따라 해

초등학교 1~2학년군 국어활동 2-(가)에 실린
권윤덕의 〈고양이는 나만 따라 해〉 부문

온종일 혼자 남겨진 아이가 있다. 신문지 밑, 혹은 문 뒤에 숨기도 하면서 술래 없는 숨바꼭질로 그렇게 하루를 보낸다. 꽃 냄새를 맡기도 하고 벌레를 내려다보기도 하면서 하루를 견딘다. 하루는 길다. 고양이와 단둘이 노는 아이에게 햇살은 느리게 흐른다. 이윽고 어둠이 내려앉는 저녁, 엄마가 돌아올 시간이다. 아이의 마음은 온통 엄마의 발소리를 쫓아 서성이고 있다. 교과서에 담긴 천연하고 무구한 모습의 한 소녀가 그동안 내 기억 저 아래 가라앉았던 시 한 편을 불러내준다.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 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 기형도, 엄마 걱정

열무 팔러 간 엄마가 오시지 않는다. 날은 어둡고 비마저 내린다.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의 배추 잎 같은 발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다. 어찌하랴. 빈 집에 덩그러니 남겨진 이 아이들의 유년을 어찌할 것인가.

교과서에 담긴 시 한 편이 나를 멈춰 세운다. 기형도의 시를 읽으며 눈물짓던 청춘의 마음을 복기시킨다. 학교라는 사회 속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닦아세우는 것을 사랑이라 불렀다. 머리를 쓸어주는 것보다 숙제를 확인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 생각했다.

한 장 한 장 교과서의 책장을 넘긴다. 아이들의 언어로 세상이 담겨 있다. 생활이 시가 되고, 시가 생활이 되는, 삶과 배움이 하나로 이어지는 통로가 교과서였다. 쉬운 말로 얼마나 큰 세상을 설명할 수 있나. 단순한 것이 선하다. 선한 것이 단순하다. 아이의 교과서가 그렇게 나에게 말해준다.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의 '지식'만이 아니라 그 행간 속에 담긴 풍부한 '감성'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소망한다. 고양이처럼 웅크린 채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를 향하여 엄마는 얼마나 바쁜 걸음으로 돌아오고 있을지를, 후득후득 떨어지는 빗속에서 열무를 채 팔지 못한 엄마는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고 있을지를, 넉넉히 헤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의 아들 지환이가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길 바란다. 늦은 저녁식사를 준비하던 엄마가 형형한 눈빛으로 자신의 교과서를 오래도록 내려다보던 그 심정을, 다 채워주지 못한 유년의 빈 갈피에도 엄마의 진심은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음을.

필자소개

두 아이의 엄마이자 십 수년째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직장맘이다. 지난해 첫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새내기 학부모로서 우리 학교와 교육을 새로운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는 중이다.

좋은 교과서는 좋은 선생님

최 미 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상임대표

학부모는 자녀양육의 무한 책임을 진 교육주체로서 국가와 정부를 믿고 아이의 교육을 공교육에 맡겨왔습니다. 그 공교육의 중심에는 학교도 있고 선생님도 있겠지만 교과서 역시 한 축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적인 능력을 계발하고 인격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적 기제로 우리 세대에게는 성경과 함께 '지식의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의 주요 특성을 보면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자주인, 기초능력의 바탕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창의인,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문화인,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세계인 등 우리 나라의 헌법 못지않게 사회, 정치공동체의 뿌리가 되는 기본 가치와 정향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는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필수적 자료가 될 뿐 아니라 내신 성적의 기초가 되는 학교시험에서도 핵심적 자료가 되며 특히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능시험의 기본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실현과 학교교육에서 지식의 원천, 시험에서 올바른 답을 고르는 지식의 기준,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지식, 시민이 될 사람에게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이렇게 중요한 우리 교과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직접 사용자인 학생과 교사로부터 사회적 요구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외면 받고 있으며 "고리 타분한 것", "지루한 것",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EBS 교재와

의 70% 연계 방침 정책으로 인하여 “필요도 없는데 선생님이 가지고 오라고 강요해서 귀찮은 것” 등등입니다. 지금은 정보범람시대로 도처에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자료(Source)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과서 같이 부피가 크고 거추장스럽지 않은 그러면서도 재밌고, 간편하고, 신속하고, 원하는 대로 최신의 정보를 제공 받는 교과서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때만 해도 읽을거리가 없어 새로운 교과서를 받는 날은 흥분이 되고 밤늦게까지 잠을 못자고 새 교과서를 읽었던 기억과, 혹 교과서가 훼손될까 봐 지난해 달력으로 정성스럽게 겉표지를 포장하였는데 참으로 격세지감이 듭니다.

사용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좋은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인가? 생각해보았습니다. 현재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무상으로 제공되는 반면 고등학교는 학부모의 부담입니다. 학부모는 교과서 외에도 자습서, 참고서, 문제집을 구입하다보니 당연히 교과서 가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현재의 컴퓨터나 과학 관련 교과서는 시중에 있는 책이 훨씬 더 유용한 것 같고, 영어, 수학의 익힘 책보다는 시중의 문제집을 사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의 시험기간만 되면 학원 등에서 ‘00교과서 내신대비 문제집’, ‘00중고교 내신대비 교과서 분석반’등의 강좌가 성행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어렵게 편성되어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교과서 분석 및 내용 해설을 부가해 주거나, 학생들의 수준에 알맞은 학습내용 구성으로 별도의 해설서나 참고서가 없어도 학생들이 이해 가능하게 교과서가 서술되었으면 합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상은 통합적, 통섭적, 협동적, 창조적 사고력, 외국어 사용 능력, 역사의식, 인문적 소양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내 자식이 그런 인재로 성장해야 한다는 현실에 학부모는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여지며, 제도적으로 우리의 교육환경이 뒷받침해 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진정한 학생 중심,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 학습자 스스로 다양한 관점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래서 외부에서 주어진 형식논리를 따라 객관화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해 가는 과정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학습의 과정과 절차를 계획하여 실행할 수 있는 열린 교과서가 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 다매체 활용 가능성과 자료의 갱신이 용이할 뿐 아니라, 교과서의 개편도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고, 외부 연결을 통하여 방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좋은 교과서가 될 것 같습니다. 단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전자 교과서가 되어야 하며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게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반응을 하는 전자 교과서라면 서책형 교과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맞춤형 교육과정,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디지털 교과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올바른 인터넷 사용 매너와 사이버 윤리, 게임중독을 예방하는 자기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과정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의 경우 나라의 정체성에 관한 역사의식은 앞으로 아이들이 선택하고 살아 나가야 할 미래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해 주는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기대를 무색케 할 정도로 현행 교과서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관점의 역사관과 잘못된 사실인식에 기초하여 심각한 수준으로 왜곡시켜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

적으로 뒤흔드는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학술지도 아닌 교과서에서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교과서는 미성숙한 존재로서의 우리 아이들이 성숙한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지식, 역량, 태도, 직업 등을 구체화시켜 놓은 국가 인정의 공식적인 교재입니다. 하지만 교과서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교육적 실행과 실천의 중심체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적 실행과 실천의 중심체인 교사가 일방적인, 이념화된 하나의 가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의 직접적인 참여와 체험중심으로 다양한 사고와 가치를 제공해 준다면 교과서 본래의 기능을 살리고 공교육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학부모에게 진정한 좋은 교과서는 좋은 선생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필자소개

20여 년 간 세 자녀 학부모회 활동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의 상임대표로 단체 운영과 다양한 교육개혁 활동을 전개하였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의 소외계층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래세대가 요구하는 교과서

김 윤 기
교육부 교육연구관

Ⅰ. 들어가는 글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라는 시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싶어한다. 공부를 잘해도 좋고 공부를 못해도 좋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겨 인기가 있어도, 아니 없어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교육은 결과로서 성과를 강조한 나머지 획일적 잣대로 아이들을 재단해 왔다.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분류해 잘하는 아이는 칭찬하고 격려하며 인정해주고, 그 반대편에 있는 아이는 홀대해 왔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자리 잡았다. 실로 눈부신 성장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부모 세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한 결과다. 시대가 바뀌면 처방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던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교육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결과보다 과정을, 획일보다는 다양성을,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보다는 전체와 개인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행복교육'은 적절하다.

사실 행복교육은 유 · 초 · 중 · 고를 포함하여 대학, 성인의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살인적인 공부 부담과 치열한 입시 등으로 초중등분야의 학습부담은 개인의 삶 전체를 좌지우지하기에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는 행복교육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아이들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 행복의 씨앗을 심어주기 위해 시작한 자유학기제는 2013년 42개 연구학교에서 올해에는 80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늘어난 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수 · 학습 방법의 개선을 포함해 다양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교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학생 참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목이 핵심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암기식 수업을 최소화하고 토론, 문제해결, 의사소통 활동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국어 교과의 경우 교사와 미디어 강사의 코티칭을 통해 글쓰기, NIE를 활용한 토론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고, 사회, 역사, 도덕, 과학, 기술 · 가정 등은 실험, 실습, 체험학습을 강화하여 스스로 탐구하는 프로젝트 학습을 확대해야 한다.

이처럼 자유학기제를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핵심성취기준의 선정, 핵심성취기준에 따른 교과서 모형개발, 핵심성취기준 시범단원 개발 및 적용의 과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일차적으로 올해말까지 추진 중인 핵심성취기준에 따른 교과서 시범단원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향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방식은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럼 핵심성취기준의 선정과 모형개발 그리고 시범단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Ⅱ. 핵심성취기준의 선정

질 높은 교수 학습을 위해선 무엇보다 교육 내용의 적합성과 학습 부담의 적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성취기준[1]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동안 각 교과는 가능한 많은 성취기준을 통해 교과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는 수업 단위수 증가와 함께 교과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경쟁적으로 성취기준을 많이 만들고,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난이도를 높여 왔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성취기준의 분석을 통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성취요소를 선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홍미영[2]은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 성취기준 재구성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내용 성취기준을 대상으로 성취기준을 재구성한다.

둘째, 성취기준의 재구성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의 내용 수준과 양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1) 성취기준이란 "교수 학습 및 평가에서의 실질적인 근거로서,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한 것"을 말한다. 교육부「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 · 중학교 핵심 성취기준 개발 연구: 총론」p13

2)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성취기준 개발 현황

학교급	과목	2009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2 개발 성취기준	증가수	증가 비율
중학교	국어	55	138	***83***	***251%***
	영어	47	75	28	160
	수학	74	87	13	118
	과학	117	220	***103***	***188***
	사회	88	93	5	106
	도덕	30	30	0	100
	역사	70	73	3	104
	실과	30	68	38	227

교육부「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 · 중학교 핵심 성취기준 개발 연구: 총론」p18

셋째, 교과목 내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성취기준을 진술한다.

넷째, 성취기준 내용 진술에 있어 학년군 간 위계와 연계를 고려한다.

다섯째, 최종 학년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가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도달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를 가급적 '~ 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진술한다.

여섯째,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 도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상세한 경우에는 재진술하거나 성취기준 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보다 명확하게 진술한다.

핵심성취기준이란 교수 학습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작용과 학습자 간의 협력 및 체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토대로, 기존의 성취기준 가운데 '핵심'이 되는 성취기준들을 엄선한 것이다. 즉 교과 교육의 성격과 목표에 비추어 모든 학습자들이 경험하고 도달하고자 노력해야 할 만큼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필수적인' 학습 내용인가를 판단한 후에 전체적으로 학습 양과 부담을 고려하여 가능한 '최소'의 규모로 설정하

[핵심성취기준 중심 교과서의 모습]

내용 정선 및 재구조화	◈ 반드시 배워야 할 기준 중심으로 학습 내용 정선 **(학습량 감축)** ◈ 감축되는 분량에 **'학습 안내', '정보 제공'** 등 제시 **(친절한 교과서)**
자기주도 학습 지원	◈ 도입부에 **학습 동기** 유발 내용 제시 ◈ 목표 수립, 학습 전략 마련 및 실천 등 **체계적 · 과학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본문 구성 ◈ '정리-평가' 코너로 학습 성과 성찰 및 차후 계획 수립 지원
교과서 활용도 제고	◈ **'조사해 오기'** 등 부담되는 내용 제외 ◈ 단원 · 주제 특성에 따라 적합한 교수 · 학습 **활동 방안** 제시 ◈ **학생은 스스로 학습, 교사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수 · 학습 패러다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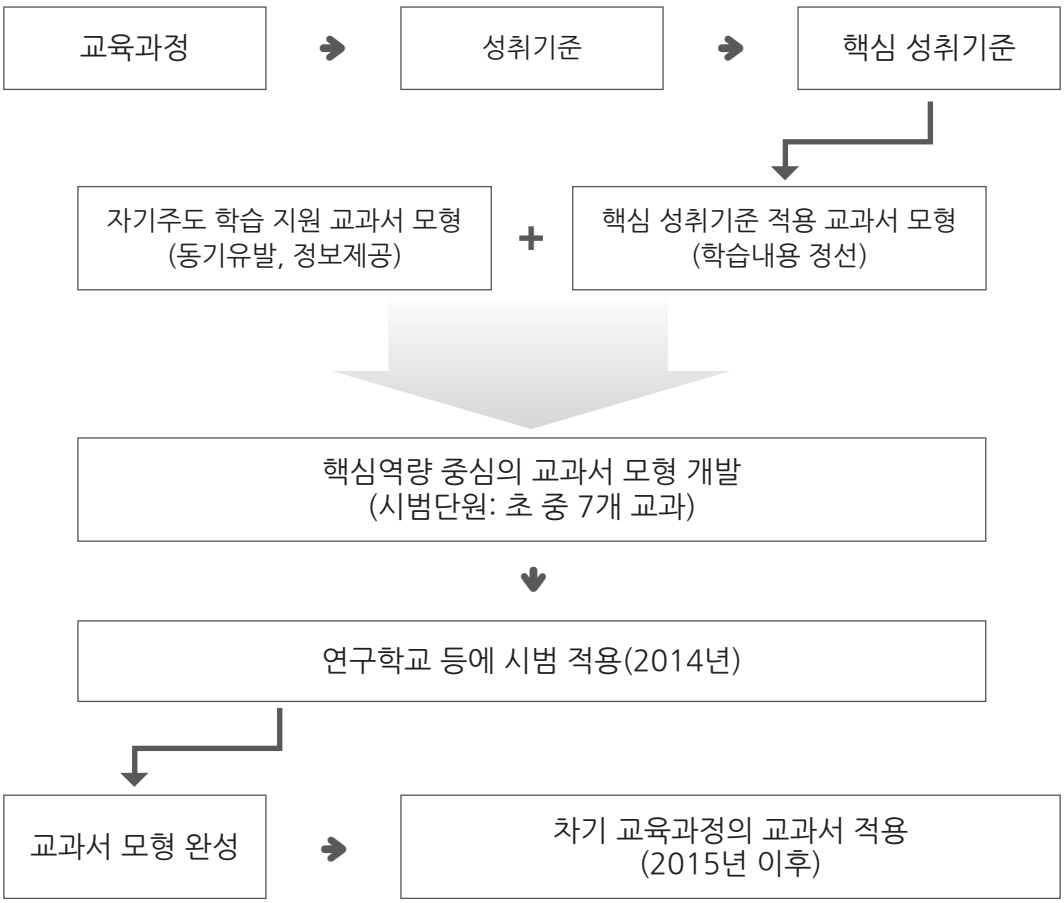
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심성취기준 선정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현재 교과(군)별 수업 시수는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유 학기제 연구학교 등에선 핵심성취기준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습량을 감축할 수 있다. 둘째, 향후 교과서 완결학습 실현의 토대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 개발의 근거가 된다. 셋째, 핵심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수업을 할 경우 교수 학습 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다. 넷째, 교과 교육에서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수업 질 제고를 촉진한다.

Ⅲ. 핵심성취기준에 따른 교과서 모형

[교과서 모형개발 및 적용 흐름도]



◇ 핵심성취기준에 따른 교과서 모형 예시(중학교 사회)

4. 재판의 의미와 필요성

생각열기

부모님이 무슨 죄!!

미성년자의 저작권 침해 누가 보상할까?

20**년경, 저작권자는 공자의 아들 공개(13세)가 P2P[1] 프로그램인 Morpheus를 통해 1,200개의 음악 파일을 불법적으로 공유한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에 의하여 밝혀지자, 공자에게 공유중지, 손해배상, 비용배상 등을 담은 경고장을 보냈다.

경고장을 받은 공자는 공개와 더불어 음악파일 불법 공유 사실을 인정하여 더 이상 불법공유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손해배상이나 비용배상은 할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자 저작권자는 13세인 B 대신에 그 보호자인 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 및 항소심법원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인터넷 사용을 제공한 이상, 일응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1심법원 및 항소심법원의 판결을 깨고 자녀들에게 불법적인 인터넷 파일 공유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지도를 한 A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더불어 대법원은 부모의 저작권 침해 감독의무의 기준에 대하여 "부모들은 13세 아이들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불법적인 인터넷 파일 공유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지도를 한 것으로 그들의 감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활동 1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재판을 하게 되었는지 대립되고 있는 양측의 의견을 적어보자.

의견 1	의견 2

1) 기존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이나 공급자와 소비자 개념에서 벗어나 개인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하고 검색함으로써 모든 참여자가 급자인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형태이다

활동 2 내가 만약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판결문을 완성해보자.

〈예시〉

판 결
사 건 □□□□고합 □□□□사기
피 고 인 (751111-1234567), 학생
주거 시 구 동 번지
등록기준지 시 구 동 번지
검 사
판결선고 20 . . .
주 문
피고인은 징역 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
판 사 □ □ □

사건번호 :

☑ 활동 정리

활동을 통해 수업시간에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재판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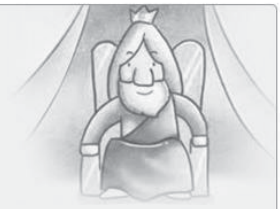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법으로 통치되는 국가에서는 법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죄와 벌을 결정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판결을 내리는 일을 재판이라고 한다.

재판의 역할

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만약 이런 문제들이 시일안에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는 정당한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매우 불안정 해질 것이다. 재판은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여 사회 구성원들을 통합시키고, 공동체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스스로 학습

생활 속 솔로몬 법정



1.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 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 했던 경험이나 사례를 써보세요.

예〉 자전거 도난 사고

-〉 동한이는 친구와 농구를 하기 위해 운동장 수돗가에 잠깐 자전거를 세워두었다. 그런데 농구가 끝난 후 가보니 자전거가 없어져있었다. 몇 주간을 노심초사 자전거를 찾고 다녔는데 자신의 것과 같은 자전거가 상가 앞에 세워져 있었고, 옆 반 가람이라는 아이가 자신의 것이라고 우겼다. 이에 화가 난 동한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생생 체험 학습

"법정에 견학가볼까요?"

어느 법원에 가고 싶은 가요?

어떤 종류의 재판을 체험하고 싶은 가요?

재판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와
왜 그 역할을 하고 싶은지 써보세요.

〈체험학습 보충자료〉

솔로몬 law park!!

직접 법을 느끼고 경험하고 싶다면 '솔로몬 로(law)파크로 가보자!
이곳에는 법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수사도구나 장비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모의 재판이나 모의 법정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솔로몬 로(Law)파크 홈페이지 주소 : http://www.lawedupark.go.kr

인터넷 Click!!
더 찾아보고, 더 생각하기!!

〈전주 **고등학교 학생 자치 법정 사안〉
1. 도서관
- 도서를 2주 이상 연체한 자
-개인 사물을 남기다가 적발된 자 - 컴퓨터 인터넷 강의 외에 음란물을 본 자- 바코드 리더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가져 간자

2. 학생지도부실
- 두발 위반행위(퍼머, 염색)
지정된 복장 위반 행위
- 방과 후 교복 차림으로 정문 출입 행위
부적절한 정보 통신 기기를 사용하다가 적발 된 행위(컴퓨터, 휴대폰, PMP등)

학교에서 재판이 열려요 '학생 자치법정'

미국에서 1983년 도입된 뒤 청소년 범죄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돼 2002년부터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자치 법정이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다.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 스스로 검사, 판사, 배심원이 돼서 재판을 진행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면서 "특히 가해학생들의 경우 학생법정에서 배심원이 됐을 때, 가해학생들이 왜 고통을 느끼게 되는지 이해하고 뉘우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Q 학생 자치 법정을 통해 우리들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사례를 적어보자.

A

(1) 자연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

생각 열기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WWF 포스터)

아무도 없는 곳에 스탠드가 켜있고 그 위에
북극곰과 펭귄들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광고가 알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_____

똑똑! 자기 점검

♥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한 자기 점검을 통해 스스로의 학습목표를 설정해 봅시다.

1	환경 문제의 원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나요?	☆ ☆ ☆ ☆ ☆
2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알고 있나요?	☆ ☆ ☆ ☆ ☆
3	자연과 인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이해하고 있나요?	☆ ☆ ☆ ☆ ☆

Ⅳ. 핵심성취기준에 따른 교과서 시범단원

핵심성취기준에 따른 교과서 시범단원 개발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대상으로 국어, 도덕, 사회, 역사, 수학, 과학, 영어 등 7개 과목에서 실시되고 있다. 초등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구분고시에서 영어를 제외한 6개 과목이 국정으로 개발되고 있기에 시범단원 개발을 기존의 국정 교과서 개발 책임자로 하여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교과서 개발 경험을 가진 해당 과목 최고 전문가를 섭외하고자 노력하였고, 향후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최대한 과목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중학 도덕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개발 방향을 통해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교과서 개발이라는 국가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 주는 교과서
□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해야 할 '방법'을 알려주는 교과서
□ 학습하고 싶은 내적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교과서
□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싶은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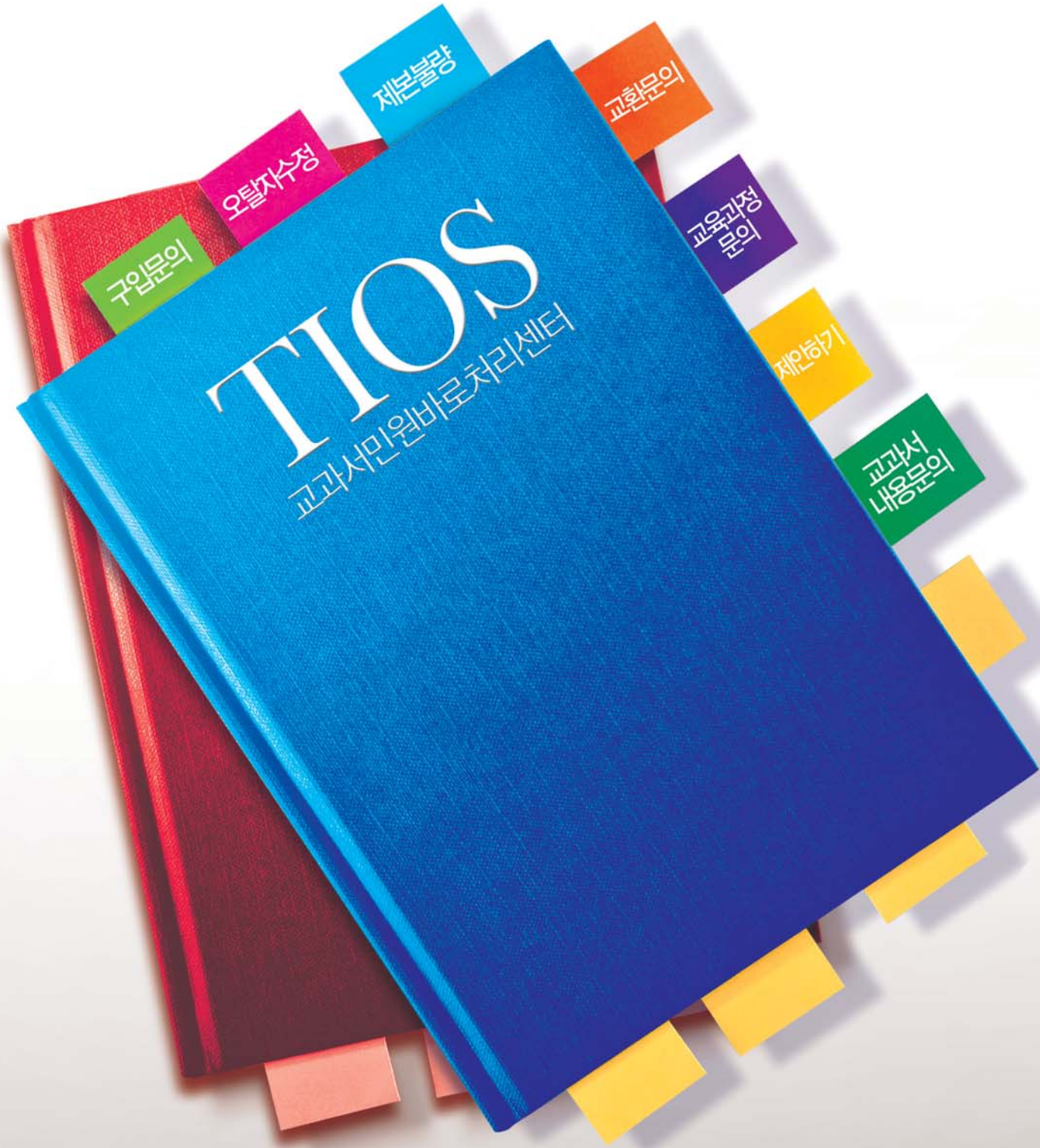
교과서 시범단원 개발이 완료되면 시 · 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및 선도학교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초등 30교, 중학 36교를 대상으로 선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때 교과서 분석 틀은 기존 국정 교과서 실험연구학교 분석 틀을 적용하여 내용의 난이도와 적합성, 학생들의 선호도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단원의 선도학교 보급 및 적용은 2학기 중 가장 학습 부담이 적은 10월을 중심으로 대략 1달간 운영할 예정이며,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사실 대한민국 교육이 지나온 발자취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동안 민주화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나라가 지구상에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고 하면서 그 공로를 말할 때 교육을 빼지 않는다. 학교교육의 처음과 끝은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보고 만지는 것은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교과서가 가지는 파급력은 크다. 1948년 10월 5일, '바둑이와 철수'라는 교과서가 처음 출판된 이래 교과서 판형, 색도, 삽화, 사진, 디자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교육이 추구해왔던 인재상이 해당 분야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주어진 상황에 충실히 따르는 사람, 숙련된 기술을 통해 주어진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 미래 세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변해야 한다. 많이 알고 있기보다 여러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줄 아는 사람, 주어진 상황의 불합리함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상황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 숙련된 기술보다 새로운 일처리 방식을 연구하여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핵심성취기준의 선정에서 모형개발, 시범단원개발까지 교육부가 추구하는 방향은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앞으로 교과서는 핵심성취기준에 따른 교과서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3).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
- 교육부 (2013).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 · 중학교 핵심 성취기준 개발 연구: 총론
- 교육부 (2013). 자기주도적 학습지원 교과서 일반모형 개발
- 교육부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14). 핵심역량 중심의 교과서 시범단원 개발 중간보고서


TIOS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구입문의
오탈자수정
제본불량
교환문의
교육과정 문의
제안하기
교과서 내용문의

한국교과서연구재단
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Textbook Information One-stop Service

교과서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One-stop으로!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TIOS

교과서는 어디서 사야 하지? 교과서 불량은 어디 가서 신고하지?
사소한 일이지만 많이 답답하셨나요? 교과서 관련 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하는 포털사이트, TIOS를 방문하세요.
교과서에 관한 문의부터 오탈자 수정, 제본불량 신고, 그리고 새로운 제안까지-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TIOS가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약속 드립니다.

교과서 민원 처리는 Yes, TIOS!

TIOS란?

TIOS는 Textbook Information One-stop Service의 줄임말로,
교과서 관련 민원 업무의 One-stop 처리가 가능한 교과서 관련
포털 사이트입니다.

TIOS이용방법

TIOS는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쉽고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1566-8572
www.교과서114.com
www.textbook114.com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수업

김 현 태
경일중학교 교사

1. 서론

2009 개정 과학 교과서는 기존 과학 교과서와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주요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화된 창의 · 인성 교육내용을 다양한 활동으로 충실하게 제시했다.
둘째, 한 차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펼침면으로 구성하여 수업의 흐름이 보인다.
셋째, 탐구 활동을 워크북 형식으로 구성하여 수업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넷째, 배운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적용시켜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교과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과학 학력신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자는 이론 과학수업은 교과서만을 이용한 교과서 단권화 수업으로 구성하였고, 교과서 출판사에서 제공한 교과서 수업용 ppt와 학습지를 보조 수업도구로 이용하였다.

수업방법으로는『눈맞춤 행복수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수업 만족도를 제고시켜 행복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본론

가. 행복수업 진행단계

1단계 : 수업 전 교과서 미리 읽기(학생)
『한 명 한 명 눈맞춤 수업』학생 감정 읽고 대화하기(교사)

- 학생은 수업을 시작하면 인사 후 바로 오늘 배울 교과서 내용을 읽고 연필로 밑줄을 치면서 배울 내용의 얼개 그림을 머릿속에 그린다.

- 학생은 자신이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구별하여 모르는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교사나 다른 학생들에게 질문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교사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과 눈을 마주치면서 학생의 마음을 읽어준다.
-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학생 중 힘들어 보이는 학생이나 사랑이 필요한 학생 중심으로 5명~10명 정도의 학생들과 가볍게 이야기하면서 격려해 준다.
- 학생들을 격려하고 사랑을 주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수업에 집중하도록 이끈다.
- 상호 감정 교류로 일대일 수업방법이 가능하고 수업시간이 행복하다.

*** 서울시교육청 『행복출석부』**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신뢰가 형성이 안된 가운데 감정표현을 강요하여 역효과가 발생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일상 상담활동이 부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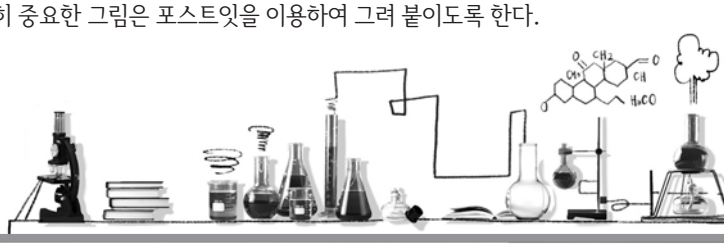
2단계 : 수업 집중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교과서 일대일 대면수업 방법』 실시

- 30명 학생 각자가 교사와 1:1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학생들 스스로 교사를 볼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지그재그로 책상 자리를 배치한다.
- 수업중에 학생들은 교과서에 내용을 메모하고 밑줄을 치면서 자기가 읽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행복한 일대일 대면수업이 진행되도록 도와준다.
- 수업집중도가 향상되며 수업이 행복해지고 어려운 과학 과목이 재미있어진다.

*** 기존 교실수업**
교실에 있는 30명의 학생은 1/30의 관심으로 수업 집중도가 현격히 떨어져서 졸거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부진 학생으로 전락하여 사교육에 의존하게 됨.

3단계 : 학생의 혼을 빼놓는 『교과서 감동수업』

- 학생들이 일대일 대면수업이 가능하도록 정열적인 교과서 몰입수업을 실시한다.
- 모두가 만족하는 살아 있는 행복수업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교사의 정열적이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고 실력 있는 수업이어야 한다.
- 학생의 교과서 몰입수업으로 과학 수업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 교사와 학생이 모두 몰입하는 수업을 하면 45분의 수업시간이 20분 이내로 느껴질 수 있다.
- 학생은 교과서의 빈칸에 교사의 설명내용을 자신만의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필기한다.
- 교과서 내용을 꼼꼼하게 정독하여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 없게 질문을 받는다.
- 학생들의 필기는 모두 교과서의 여백을 이용하고 특히 중요한 그림은 포스트잇을 이용하여 그려 붙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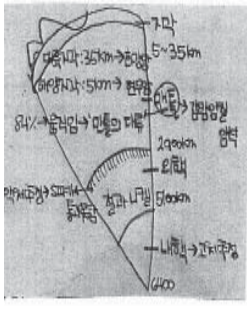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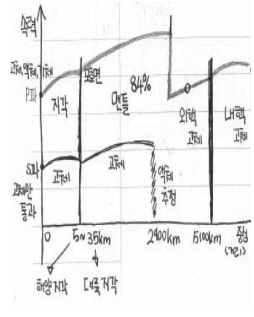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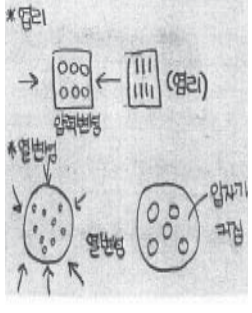
- 미니탐구, 스스로 확인하기, 대단원 마무리, 핵심개념 확인하기 등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문제나 내용은 모두 해결하고 넘어간다.
- 과학 실험 시간의 실험 보고서는 과학 교과서를 이용하고 교과서의 내용이 빈약할 경우에는 프린트를 나누어 주고 해당 면 밑에 붙이도록 한다.
-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의 모든 것도 교과서에서 출제하고 교과서만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교사와 학생 모두가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교사의 종전 수업 태도**
모든 교사가 열심히 수업을 하는 편이나, 프린트나 부교재를 이용한 교사 위주의 수업으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교과서는 전시용이나 그림을 참고하는 정도로 이용도가 낮아 잘 만들어진 교과서의 이용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됨.

4단계 : 행복수업을 위한 『과학교과서 가시화 프로그램』 개발

- 교과서에서 제공한 ppt 자료와 교과서를 이용하여 차시별로 수업한다.
- 중요 설명 사항은 모두 교과서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교사가 칠판에 그림이나 그래프를 그려서 아주 쉽게 설명하면 학생이 그림이나 그래프를 교과서의 빈 칸에 같이 그려서 이해하는 과학 교과서 가시화 프로그램으로 수업한다.
- 과학은 자연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하여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실험하기가 어려운 이론 부분은 그림과 그래프를 함께 그려 보면서 과학 학습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시화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여 과학 수업을 좋아하게 된다.

[학생들이 교과서 빈칸에 그린 과학교과서 가시화 프로그램의 예시]

			
일과 에너지(3학년)	지구의 구조(1학년)	지진파의 전달(1학년)	암석의 생성(1학년)

- 수업시간에 교과서를 잘 읽게 하고, 교과서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줌으로써 학생들의 과학이해도가 높아져서 과학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얼굴이 밝아진다.
- 과학 실험 시간의 보고서도 교과서의 탐구활동 면에 설험결과를 기록하고 그래프를 그리게 하여 실험결과 해석을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탐구력이 향상된다.

나. 학생들이 느끼는『살아 있는 교과서 행복수업』에 대한 평가

- 부교재가 필요 없는 만족한 수업, 기다려지는 수업이 되고 수업 시간이 빨리 간다.
- 일대일 교과서 대면수업으로 어려운 과학이 쉽게 이해되며, 쉽고 잘 만들어진 과학 교과서의 수업으로 학생 만족도가 높아진다.
- 참고서나 자습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여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모두가 만족하는『살아있는 행복수업』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2014.6.26)]

문화일보 제6647호 2014년 6월 26일 목요일

"과학만이라도 私교육 없게… 한명한명 '눈맞춤 수업'"

좋은 선생님

김현태 서울 경일중 교사

"우리 반 학생이 30명인데 마치 선생님과 1대1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서울 성동구 경일중학교 1학년 권희원(13) 양은 25일 과학시간을 앞두고 책상을 이리저리 옮기느라 바빴다. 김현태(53) 교사가 수업 때마다 모든 학생들과 눈을 맞출 수 있도록 일렬로 된 책상을 지그재그식으로 재배치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놓으면 학생들이 교사를 볼 때 앞사람에 가리는 일이 없다. 권 양은 "선생님이 다양한 실험을 통해 정말 쉽고 재밌게 과학 개념들을 가르쳐 주신다"며 "한때는 과학이 어려워 학원을 다니기도 했지만 지금은 수업만 들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올해로 과학교사 경력 28년째인 김 교사는 '살아있는 행복수업'이 삶의 목표다. 그는 "아이들이 과학을 어렵고 복잡하게만 여기고 학원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수업 방법을 체험 위주로 바꾸려고 노력해 왔다"면서 "과학수업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늘 수업에 앞서 '선생님과 1대1로 수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곧바로 질문하라'

지그재그 책상배치 학생 가까이
다양한 실험기구 발명해 활용
수업중 5분은 반드시 인성교육

고 강조한다. 교사가 설명하고 학생들이 받아 적는 수업이 아니라 어려운 과학 개념을 그림과 그래프를 이용해 설명하면서 학생들이 참여적으로 자신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돕는다. 열정적인 수업과 아이들과의 대화 때문에 목소리가 늘 쉬어 있는 그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 아쉽다고 얘기할 때가 가장 뿌듯하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서울 성동구 경일중학교 1층 과학실험실에서 김현태(가운데) 교사가 학생들에게 용수철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재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김연수 선임기자 nyskim@

김 교사는 수업 중 5분 정도는 반드시 인성교육 시간으로 활용한다. 그는 "교사는 아이들에게 인내와 예절 등을 가르치는 어른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아이를 한 명 한 명을 짚어주면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다양한 과학 실험기구들을 직접 발명하기도 했다. 지난 2007년 사람의 법칙 기구를 시작으로 보일의 법칙, 금속의 반응성, 빛의 반사 굴절 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험도구들을 발명했다.

기체는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부피가 273분의 1씩 증가한다는 사람의 법칙을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체가 들어있는 관을 뜨거운 물로 데워서 관 속 별브의 움직임을 통해 기체가 팽창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키는 식이다. 김 교사는 "과학을 수학 공식처럼 외우기만 하면 지루하고 시험을 위한 수업이 되지만, 실험을 통해 아이들이 과학을 직접 체험하면 진짜 공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원하는 학생 누구나 다양한 과학 놀이를 할 수 있는 방과후 과학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자기부상열차 만들기, 건전지로 돌아가는 팽이 만들기 등 흥미로운 주제들을 통해 아이들이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1학년 박민태(13) 군은 "과학은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해서 학원을 다니면서 시험준비를 했지만, 이제는 과학수업이 정말 좋아져서 스스로 공부하게 됐다"며 "선생님이 항상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셔서 수업 외의 고민거리도 얘기한다"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3. 결론

가. 학교현장의 교사들이 다른 교재보다도 교과서를 활용하여 최대의 학습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과목별로 교과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나. 학생 입장에서는 학습 부담이 적으면서 최대의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는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한다면 사교육을 줄일 수 있고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다.

다. 수업 시 필요한 부분만 참고하는 교과서가 아니고 교과서의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학생들에게 교과서만 공부하면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주도록 수업을 진행하면 교사와 학생의 수업 만족도가 모두 높아질 수 있다.

라. 수업 방법면에서 교과서로 수업할 때 학생과 눈맞춤 수업 방식을 도입하여 학생과 함께하는 일대일 대응 수업을 진행한다면 더욱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마. 어려운 과학교과 수업에서 수업내용을 정리할 때 그림이나 그래프를 교과서에 그려 넣는 교과서 가시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의 과학 교과 이해도를 한층 높일 수 있다.

4. 제언

가. 교과서의 여백에 학생들이 필기할 수 있는 노트(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나. 내용 확인 문제를 1~2문제 정도 제시해 주면 수업 후 확인 평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 과학 교과서에는 실험보고서를 부록으로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필자소개

29년간 중등학교 과학교사로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 경일중학교 3학년 부장이다. 샤를의 법칙 등 실험기구 9개를 개발하고 학교 실험실에서 적용하여 학생들의 탐구력향상에 크게 공헌하였다.
눈맞춤 수업방법을 개발하여 학생의 행복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김현태 과학교실을 무료로 운영하여 어려운 과학을 실험을 통하여 재미있고 흥미있는 과목으로 바꿔주고 있다.

좋은 국어 교과서에 대한 생각 다시 생각하기[1)]

정 혜 승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우리 사회에서 교과서는 칭찬보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와 괴리되어 있다', '고급 사고력(창의력, 비판력 등)을 길러주지 못 한다', '아동의 흥미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등등 교과서에 대한 비판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너무 교과서적이야',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얘기' 등 일상생활에서 교과서와 관련하여 흔히 쓰이는 표현들에서도 교과서는 현실과 무관하며, 시대에 뒤떨어져 교실 밖에서는 힘을 갖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로 그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뿐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의 근원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교과서의 어떤 측면을 비판하는가?', 아니 보다 근본적으로 '교과서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정당한 것인가?' 등과 같은 문제 제기를 통해 교과서 비판과 관련한 담론들에 대한 분석과 그에 근거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비판의 기저에 깔려 있는 사람들의 교과서에 대한 기대는 무엇이며, 그러한 기대는 정당한 것인지, 사람들의 정당한 기대를 충족시

1) 이 글은 2006년『어문연구』34(4)호에 실린 필자의 '좋은 국어 교과서의 요건과 단원 구성의 방향'과 2012년『한국어문교육』11호에 게재된 '국어 교과서의 문제와 개선의 방향'이란 논문의 일부를 발췌, 수정한 것이다.

키는 교과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교과서 개선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1차 교육과정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까지 우리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담은 국어 교과서를 개발하였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개발을 위해, 교과서 개선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들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 교과서 개발에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국어 교과서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 속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수용되어 온 몇 가지 관점 혹은 의견에 대해서는 '정말 그러한가?'에 대한 비판적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 질문은 그러한 관점과 의견이 반드시 옳지 않아서 제기한다고 보기보다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적절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점과 의견을 고수할 때 간과되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 글은 좋은 국어 교과서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교과서 개선에의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교과서에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 속에 간과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제5차 교육과정 이후 국어교육이 언어 기능을 중시하고 활동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게 되면서 교과서는 학생의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구성되기 시작하였다. 학생의 국어 능력은 실제적인 언어활동을 통해서 가장 잘 길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활동 중심 교과서는 교육적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도 학생의 활동을 장려하는 교과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활동 중심 교과서를 강조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을 위한 활동인가?', '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얻게 되는가?', '교과서 활동이 교실 밖 언어생활에서도 유효한 것인가?' 등등의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과서에 실린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실제적이고 진정성 있는 언어 경험을 하고, 이것이 학생의 삶에 의미 있게 작용하도록 국어 교과서 활동이 선정되고 조직되어야 한다.

학생이 국어 교과서 활동을 통하여 실제적이고 진정성 있는 언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언어 현실을 고려한 활동,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활동이 교과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양한 활동'의 의미가 실제 언어생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글을 이해하고 생산하는 언어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견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다양한 활동' 제시라는 명분 아래 활동의 주제나 소재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활동 중심 교과서에는 한 단원 속에 여러 활동이 제시되는데 활동마다 다른 주제나 소재를 다루는 것은 활동의 깊이를 제한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9 개정 국어 교과서 2학년 1학기 5단원 '무엇이 중요할까?'의 경우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고, 대상의 특성이 드러나게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가 학습 목표인데, 이 단원에는 인사법, 동물의 잠자는 방식, 개의 특징,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지우개 찾기, 물건 골라 설명하기, 자신이 아끼는 물건의 특징, 대상 상상하여 설명하기, 재미있는 동물 이름 등 9가지 소재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게 소재를 다양하게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어느 소재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問題的)이다. 활동 중심 교과서의 '활동'이 의미 있는 언어 경험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활동의 주제와 소재를 다양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정, 조직되어야 한다.

둘째, 교과서가 학생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방식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교과서가 학생의 텍스트인 만큼 학생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방식이 정서적인 측면에 편향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교과서 구성이나 개발과 관련된 논의에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주로 제재 글과 활동 선정, 편집 체제와 관련된다. 학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재미있는 글과 학습 활동 소재를 선택하고, 보기 좋은 삽화를 많이 제시하며, 편안한 편집 체제를 구성하는 수준의 아이디어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에게 친근한 소재이면서도 쉽게 읽히는 글을 선택하고, 만화와 같은 매체를 활용하며, 학생들이 좋아하는 삽화를 그려 넣는 것이 그 구체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는 재미와 같은 정서적 요인에 의해서만 유발되는 것이 아니다.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전의식을 갖고 성취감을 맛보며, 자신의 성장을 인지하게 하는 방식으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러한 인지적 접근이 내적 동인으로 학습 의욕을 고취하는 데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인지적으로 학습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다. 우선 '왜 학습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학생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공부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교실에 앉아 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제도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런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학습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 공부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학습의 필요성 측면에서 언급하는 요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 글 선정에서도 재미있고 쉬운 것만이 아니라 인지적인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다소 어려운 글, 호흡이 긴 글도 글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어 교과서가 외국의 교과서에 비하여 쉬운 글을 제공하지 않는지도 검토해 볼 일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초등학교 5학년 국어 교과서의 글 길이와 분량을 비교한 정혜승(2012)에 따르면, 우리 교과서 분량이나 제재 글의 길이가 미국의 자국어 교과서에 비하여 적거나 짧다.

일단 외형적으로 미국 교과서의 크기가 국어 교과서보다 크고, 전체 지면의 수도 많다. 『읽기』와 『듣기 · 말하기 · 쓰기』 두 권을 합쳐 국어 교과서는 800여 쪽 남짓인데 비하여, 미국 교과서는 1000쪽이 넘는다. 책의 크기가 크고 지면 수가 많아 언뜻 보아도 미국 교과서 분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2>는 한글

[표 1] 국어 교과서와 미국 자국어 교과서의 크기와 지면 비교 [2)]

	국어 교과서		미국 교과서	
	『읽기』	『듣기 · 말하기 · 쓰기』	독본	연습장
크기	18.8cm × 25.7cm	18.8cm × 25.7cm	23cm × 27.5cm	23cm× 27.5cm
지면(쪽)	430쪽	374쪽	695쪽	336쪽

2) 우리 국어 교과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것으로, <표 1>의 지면 수는 1, 2학기를 합친 것이다. 미국 교과서는 스콜라스틱(Scholastic) 출판사에서 2000년에 발간한 '문식성 공간(Literacy Place)'이다.

[표 2] 국어 교과서와 미국 자국어 교과서의 지면 당 분량 비교

	글자 수	단어 수	문단 수	원고지 매수
국어 교과서	949자	230개	7개	4.8장
미국 교과서	1,697자	315개	2개	5.6장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문서 통계를 활용하여 두 교과서의 지면 당 글자 수, 단어 수, 문단 수, 원고지 매수를 비교한 것이다.

문자적 특성 상 글자 수의 비교는 큰 의미가 없지만, 단어 수와 원고 매수를 볼 때, 미국 교과서의 지면 당 글 분량이 국어 교과서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지면 수가 많은데다가 한 지면에 포함되는 분량 역시 더 많다는 것은 미국 교과서가 국어 교과서보다 더 긴 글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어 교과서에 실린 글의 문단 수는 미국 교과서에 비하여 훨씬 많다. 이는 국어 교과서에 실린 글의 문단 길이가 미국의 것보다 매우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단은 생각의 단위로, 문단이 짧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생각이 깊이 있게 서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요컨대 우리 국어 교과서는 미국 교과서에 비하여 문단의 길이만이 아니라 전체 길이도 짧은 글을 더 많이 제시하고 있다.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글 분량은 난이도와 관련된다. 글 길이가 짧으면 독해가 쉬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 국어 교과서에 실린 글이 미국 교과서에 비하여 쉽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 학생들의 읽기 수준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글 길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PISA 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미국 학생들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객관적인 지표로 드러나는 읽기 수준을 고려하면 우리 국어 교과서에 실린 글 수준은 길이 면에서 짧거나 쉽고, 미국 교과서의 경우는 길거나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글 길이가 글 읽기의 쉽고 어려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면 우리 국어 교과서는 미국 교과서에 비하여 쉬운 글을 제재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에 긴 글을 싣는다는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습 목표나 학생 수준에 따라서는 학생이 읽기 편하도록 조각내고 다듬은 글도 필요하지만,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어렵고 긴 글도 필요하다. 학생들의 교과서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한 연구(Schumm, Vaughn & Saumell, 1992)에 따르면,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인지적 부담이 있는 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쉽고 재미있는 글 중심으로 글을 선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인지적 측면의 동기 유발 방안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학습을 마친 후에 학습 전과 비교하여 자신이 얼마나 변화하고 성장하였는지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학습 일지 쓰기와 같은 마무리 활동을 통하여 학습 과정을 정리, 반성하고, 평가하는 것이나 학습 이전과 후에 자신이 변화한 점을 스스로 찾아보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교과서 글 선정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관점이 갖는 한계에 대한 것이다. 국어 교과서는 특성상 다양한 글을 선정, 제시하게 되어 있다. 어떤 글이 선정되느냐가 교과서의 성패를 좌우

할 만큼 국어 교과서에서 글의 비중은 크다. 교과서가 새로 개발될 때마다 참신한 글, 학생 생활 경험을 고려한 글에 대한 요구가 높다. 참신한 글이란 기존 교과서에 제시된 것이 아닌, 새로운 글을 의미한다. 교과서가 바뀌면 글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참신한 글에 대한 요구로 표출된다. 교과서가 바뀌어도 글에 변화가 없으면 교과서가 변화했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맥락에서 교과서가 새로 개발되어도 지속적으로 선정되는 글에 대해서 '또 안 빠지고 실렸다'는 불만 섞인 반응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교과서 글은 늘 바뀌어야 하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교사나 교과서 저자는 반복적으로 접하는 글이지만, 학생들은 늘 처음 대하는 것이므로 '또 실렸다'는 반응은, 나아가 교과서 글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학생 관점이 아니다. 물론 교사나 교과서 저자들의 참신한 글에 대한 요구는 시대 변화와 학생 변화를 교과서가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교과서가 바뀌면 글도 바뀌어야 한다는 도식적인 사고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교과서의 글 혹은 학습 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생활 경험에 근거한 주제와 소재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 내용의 위계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개인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등등의 준거가 사용된다. 이런 준거에 의하여 초등학생과 같이 어린 아동에게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생활 경험에 기반한 글과 활동 선정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초등학생일지라도 학년 수준에 따라서는 추상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의 주제와 소재도 다루어 주어야 한다. 학생의 사고와 의식 수준을 한정된 경험의 울타리, 생활의 범주 속에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외국의 국어 교과서는 초등 수준에서도 지적이고 사회적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앞서 글 길이를 비교할 때 사용한 미국 교과서는 주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원 주제를 '개인적 문식성, 지적 문식성, 사회적 문식성'으로 분류하여 다루고 있다. 지적 문식성 범주는 사고력과 관련된 추상적 주제를, 사회적 문식성 범주는 공동체 정신 함양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적 주제를 포함한다.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되, 그것이 학생의 사고와 의식 수준을 협소한 개인적 경험에 국한되지 않도록 교과서 글과 활동의 주제 및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정혜승(2006). 「좋은 國語 敎科書의 要件과 單元 構成의 方向」. 『語文硏究』 34(4), pp.379-400.
- 정혜승(2012). 「국어 교과서의 문제와 개선의 방향 - 국어 교과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11, pp.1-28.
- Malamah-Thomas, A.(2004). Classroom interaction. Oxford University Press(안종훈 · 정미화 역(2004).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교실 상호작용』. 서울: 범문사.).
- Marsh, C. J.(1992). Key Concepts for Understanding Curriculum. London: The Falmer Press(박현주 역(1996).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 서울: 교육과학사.).
- Schumm, J. S., Vaughn, S. & Saumell, L.(1992). "What teachers do when the textbook is tough: Students speak out". Journal of Reading Behavior 24(4), pp.481-503.

필자소개

(현)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저서)『독자와 대화하는 글쓰기』
『국어과 교육과정 실행 연구』
『국어교육의 이해(공저)』

대만의 교육 제도와 교과서 제도[1)]

조 은 정
인하대학교 중국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대만은 1968년부터 초중등 9년 국민의무교육을 시행해 왔는 바, 2014학년도 9월부터는 그 기간을 3년 더 연장하여 고등학교 단계까지 의무교육 기간에 포함시켜 12년 국민의무교육을 시행 예정에 있다.[2)]

1. 현행 초중등학교 교육제도 개황

대만의 현행 교육제도는 크게 정규교육과 직업교육 두 갈래로 나뉘는데 시기별로 국민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3단계로 구분 가능하다. 국민교육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합한 교육이며 만 6-14세를 대상으로 한다. 중등교육은 만 15-17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고등학교 3년제와 직업고등학교 3년제로 나뉘어 있다. 고등교육은 전문대학이나 대학, 대학원 등의 과정을 일컫는다. 그 중 전문대학의 학제는 5년제, 3년제, 2년제로 나뉘는데 5년제의 경우 중학교 졸업생이 진학할 수 있으며 3년제는 일반고등학교 졸업생이, 2년제는 직업고등학교 졸업생이 진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3)] 대만의 경우 소수학생에 대한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시각 · 청각 · 지체 등에 불편함을 지닌 심신장애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수학교보다는 일반학교의 특수반이나 보통반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나 편벽지역의 학생, 학습부진학생의 학업을 돕기 위해 보충학교나 보습반 제도, 대학생 자원봉사제도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학업 평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본고는 참고문헌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발췌 · 종합하여 번역된 내용임을 밝혀둔다.

2) 대만은 매년 2학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 학기는 매년 9월에 시작한다. 즉 2014학년도의 경우 9월 학기가 1학기가 된다.

3) 전문대학에서 개설한 전공의 경우 직업고등학교에 개설된 농업 · 공업 · 상업 · 의학 · 해양 · 가사 등 6개의 전공 외에도 사범 · 관리 · 예술 · 체육 · 신문방송 등의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2. 교육과정 현황

대만의 교육과정은 국민교육과 중등교육으로 나뉘어 「9년 통합 교육과정(九年一貫課程)」과 「고등학교 교육과정(高級中學課程綱要)」이 각각 시행되어 왔으나 2014학년도 9월을 기점으로 하여 「12년 국민기본교육 교육과정」으로 점진 통합 예정이다. 새로운 12년 교육과정의 경우 2014년 하반기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해 2016년까지 완성 예정이다.

가. 초중등 9년 통합 교육과정(九年一貫課程)

현행 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합과정의 교과과정은 학습영역별로 어문, 건강과 체육, 사회, 예술과 인문, 자연과 생활과학, 수학, 종합활동 등으로 나뉘어 학년별로 내용의 심도 및 체계를 정해 교육하고 있다. 학년별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1] 학년별 학습영역 대조표

영역별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어문 영역	국어	국어	국어	국어	국어	국어	국어	국어	국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수학 영역	수학	수학	수학	수학	수학	수학	수학	수학	수학
사회 영역	생활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예술과 인문 영역			예술과 인문	예술과 인문	예술과 인문	예술과 인문	예술과 인문	예술과 인문	예술과 인문
자연과 생활과학 영역			자연과 생활과학	자연과 생활과학	자연과 생활과학	자연과 생활과학	자연과 생활과학	자연과 생활과학	자연과 생활과학
건강과 체육 영역	건강과 체육	건강과 체육	건강과 체육	건강과 체육	건강과 체육	건강과 체육	건강과 체육	건강과 체육	건강과 체육
종합활동	종합활동	종합활동	종합활동	종합활동	종합활동	종합활동	종합활동	종합활동	종합활동

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2011년 기준 일반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크게 필수와 선택 과목으로 나뉜다. 필수의 경우 크게 어문 영역, 수학 영역, 사회 영역, 자연 영역, 예술 영역, 생활 영역, 건강과 체육 영역, 종합활동 등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별로 다시 교과목이 세분화되어 있다. 고등학교 각 학년별 구체적인 이수 학점 및 세부 과목은 다음과 같다.

[표2]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

유형	학년		고1계		고2		고3	
	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학점							
	영역	과목						
필수	종합활동		2	2	2	2	2	2
	어문 영역	국어	4	4	4	4	4	4
		영어	4	4	4	4	4	4
	수학		4	4	4	4		
	사회 영역	역사	2	2	2	2		
		지리	2	2	2	2		
		공민과 사회	2	2	2	2		
	자연 영역	기초물리	4	4	4	4		
		기초화학						
		기초생물						
		기초지구과학						
	예술 영역	음악	2	2	2	2	2	(2)
		미술						
		예술생활						
	생활 영역	가정	2	2	2	2	(2)	2
		생활과학						
		정보과학 개론						
	건강과 체육	건강과 보건						
		체육	2	2	2	2	2	2
	국민국방교육		1	1				
	필수학점 소계 /매주 수업시수 소계		29 /31	29 /31	28 /30	28 /30	12 /14	12 /14
선택	어문 계통		0-2	0-2	0-3	0-3	0-19	0-19
	수학 계통							
	사회과학 계통							
	자연과학 계통							
	제2외국어 계통		2-4	2-4	2-5	2-5	2-21	2-21
	예술과 인문 계통							
	생활, 과학, 정보 계통							
	건강과 여가 계통							
	국민국방교육 계통							
	생명교육 계통							
	생애계획 계통							
	기타							
	선택과목 최대 학점 소계		4	4	5	5	21	21
과목 최대 학점 소계			33	33	33	33	33	33
매주 수업시수 소계			35	35	35	35	35	35

다. 「12년 국민기본교육 교육과정」개발 계획

2014학년도부터 9월부터 시행될「12년 국민기본교육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점진 개발되고 있는데 각 교육과정별 세부 교과의 연구 개발은 2014학년도 하반기에 착수될 예정이다. 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개발 진행되고 있으며 각 계획별 시행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가) 시작 단계 (1) 9년 통합 교육과정 관련 개발 연구 계획 및 진행
(2) 유아교육 교과과정 관련 기초 연구 계획 및 진행
(3) 고등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초 연구 계획 및 진행

나) 기초 단계 (1) 국가 교육과정 발전 기제 수립
(2) 12년 국민기본교육 교과과정 발전 건의서 초안 작성 및 심의
(3) 각 교육단계의 핵심소양 개발 및 12년 국민기본교육 교과과정 체계 방안 초안 마련

다) 구축 단계 (1) 1-12학년 각 교육단계의 교과과정개요 총개요 초안 마련
(2) 1-12학년 각 교육단계의 교과과정개요 총개요 초안 심의
(3) 대만 변천 추세 관련 중대 의제와 12년 국민기본교육의 초중등 교과과정 과목 내용과의 연계성 탐구
(4) 12년 국민기본교육 교과과정 시행 지원 시스템 계획

라) 완성 단계 (1) 12년 국민기본교육 교과과정 실천 지원 시스템 개발
(2) 각 교육단계의 영역/학과/전공영역별 교과과정개요 초안 개발 및 심의
(3) 각 학습영역/학과/전공영역 주요 교재/교수법 연구개발 및 시행
(4) 각 교육단계 교과과정개요 수정

[표3] 각 계획별 시행 일정

시행계획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시작 단계	(1)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기초 단계	(1)								■	■	■	■							
	(2)								■	■	■	■							
	(3)									■	■	■							
구축 단계	(1)												■	■					
	(2)														■				
	(3)												■	■	■				
	(4)												■						
완성 단계	(1)													■	■	■	■	■	■
	(2)														■	■	■	■	
	(3)															■	■		
	(4)																	■	

3. 교과서 편찬 제도

가. 교과서 편찬 제도의 개황

대만의 교과서 편찬 제도는 20세기 이후 국정(統編制)과 검정(審定制), 인정(自由制), 국검정, 검인정 등이 시기별로 다르게 채택 사용되어 오다가 1996년 교과서 시장 전면 개방 이후 2005년 이후부터는 검인정 제도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교과서 채택은 각 학교에서 자유롭게 진행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는 대만의 교과서 편찬 제도에 대해 시기별로 발행, 심사 주체, 공급 및 채택의 관점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표4] 대만의 시기별 교과서 편찬 제도

교과서 종류	발행	심사 주체	공급 및 채택
국정 (1968-1988)	국가	심사제도 없음	臺灣書店에서 공급
국검정 (1989-1995)	기초과목은 국가, 예체능의 경우 민간	민간 도서는 국립편역관 (國立編譯館)에서 심사	기초과목은 전국 일괄 공급, 예체능은 각 학교에서 채택
검인정 (1996-2000)	국가의 경우 국어 · 수학 · 자연 · 사회 · 도덕과 건강 과목에 대한 편집권을, 민간에서는 모든 과목 편집 · 출판 가능	초등학교의 경우 대만국민학교연구회 (臺灣省國民學校研習會)에서 심사, 중학교의 경우 국립편역관에서 심사	각 학교가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 중 자유롭게 채택 사용
인정 (2001-2004)	검정 제도 폐지, 인정제도만 시행	국립편역관에서 일괄 심사	각 학교가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 중 자유롭게 채택 사용
검인정 (2005-현재)	검정의 경우 국가교육연구원에서 초등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 · 자연과 생활과학 출판. 민간에서는 모든 과목을 출판 가능	국가교육연구원에서 일괄 심사[4]	각 학교가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 중 자유롭게 채택 사용.(검정교과서의 경우 2005-2007학년도에는 한림출판사(翰林出版公司) 에서 일괄 공급)

나. 교과서의 출판 현황

20세기 초에는 대만의 가장 큰 출판사인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이 교과서 출판을 담당했다. 일본 점령기에는 정중서국(正中書局), 상무서국(商務書局), 중화서국(中華書局), 세계서국(世界書局), 대동서국(大同書局), 개명서국(開明書局), 문통서국(文通書局) 등 7개 출판사가 교과서 출판 권한을 지니고 있었으며 1968년부터는 대만서국(臺灣書局)에서 일괄 발행하였다. 그러나 1996년 교과서 시장 전면 개방으로 여러 출판사들이 다양하게 생겨났으나 수준 미달, 재무 상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점진 퇴출되어 2014년 현재 총 6개의 출판사만 남아 있다. 그 중 강헌(康軒文教集團), 남일(南一書局企業股彬有限公司), 한림(寒林出版事業股彬有限公司) 등 세 출판사에서 전

4) 국립편역관은 2011년 국가교육연구원으로 통합되었으며 현재 교과서 심사 업무는 국가교육연구원에서 총괄하고 있다.

체의 8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다. 교과서의 채택, 공급 및 가격 결정

현재 대만의 교과서 채택 및 구매는 보통 4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 각 현/시에서 선택한 교과서에 대해 현/시의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구매하는 방식 (2) 각 학교에서 선택한 교과서에 대해 지역에서 공동으로 구매하는 방식 (3) 각 학교에서 선택한 교과서에 대해 현/시 정부가 공동으로 구매하는 방식 (4)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구매하는 방식이 있다.[5] 즉 현행 교과서 제도 하에서 교과서 채택은 일반적으로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보기 위해 공동구매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교과서 가격의 경우 각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부에서 큰 폭의 할인율을 제시하여 각 출판사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보통 페이지 당 단가가 0.4-0.53위엔(한화 14-18원 상당)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교육부의 제안대로 60% 할인된 가격이며 이러한 가격은 교육부의 당부로 매년 0.1-0.3위엔(한화 3-10원 상당) 정도 수준에서 추가 할인되고 있다. 게다가 공동구매로 인한 할인 역시 진행되고 있기에 한 권당 50-70위엔(한화 1700-2400원 상당) 수준으로 구매 가능하기에 학부모들의 부담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출판사 입장에서는 교과서 공급으로 인한 수익률은 기대할 수 없기에 이러한 손익을 충당하기 위해 참고서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판매하고 있다. 참고서의 가격은 페이지 당 단가가 1.2위엔(한화 40원 상당)으로 교과서의 2-3배의 가격에 달하고 있다.

4. 교과서의 내용 및 체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교과서 내용 및 체제는 중등교육 과정으로 올라갈수록 큰 틀은 유지한 채 내용이나 체제가 세분화되거나 확장된다는 특징이 있다. 각 과목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는데 필수 과목은 영역별로 어문, 수학, 사회, 자연, 예술, 생활, 건강과 체육, 종합활동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과목으로는 종합활동, 국어, 영어, 수학, 역사, 지리, 공민과 사회, 기초물리, 기초화학, 기초생물, 응용생물, 기초지구과학, 음악, 미술, 예술생활, 가정, 생활과학, 정보과학개론, 건강과 보건, 체육, 국민국방교육 등이 있다. 선택과목의 경우 영역별로 보면 어문, 수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제2외국어, 예술과 인문, 생활 · 과학 · 정보, 건강과 여가, 국민국방교육, 생명교육, 생애계획 등으로 나뉘는 바 구체적인 과목으로는 지역문학 선독, 소설 선독, 논어맹자 선독, 언어 표현 및 응용, 영어 듣고 말하기, 영어 독해 및 작문, 영어 작문, 영어 문법, 수학, 역사, 응용지리, 물리, 화학, 생물, 기초지구과학, 지구과학, 음악, 미술, 디자인, 음식문화, 정보과학, 건강관리, 국민국방교육, 제2외국어, 생명교육, 철학과 인생, 종교와 인생, 삶과 죽음, 도덕적 사고와 선택, 성애와 혼인윤리, 생명과 과학윤리, 인격 통합과 정서적 발전, 생애계획 등이 있다.

5)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통 (1) 교무회의에서 교과서 채택 방법 결정, (2) 교과서 선정(5-6월경), (3) 교과서 구매(7월말 전), (4) 출판사의 교과서 학교로의 송부(개학 1주일 전) 등의 방식으로 교과서 선정 및 구매를 진행한다.

본 장에서는 고등학교의 필수교과목의 교과서 내용 및 체제를 중심으로 하여 개략적인 교과서 내용 및 체제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가. 어문 영역

가) 국어 : 3개 학년 총 6학기 과정으로 매 학기당 총 4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그 중 3학점은 국어일반 부분에, 나머지 1학점은 작문 · 명저 선독 등에 책정되어 있다. 국어일반 부분의 경우 고대문학 교학과 현대문학 교학으로 나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산문, 시가, 소설, 고전 등을 포함한다. 또한 고대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45~65%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내용으로는『시경』『초사』『좌전』『예기』『논어』『맹자』『순자』『노자』『장자』『묵자』『한비자』『사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고등학교의 국어과 교과서는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부터 5권까지는 각각 1과부터 13과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6권의 경우 11과까지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교과서 각 권마다 현대 시가를 1편 이상, 고전 시가를 1-2편 이상 포함시키고 있다. 작문의 경우 담당교사가 주제 작문, 상황 작문, 단편 작문, 응용문 작문 등의 교학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5학기 동안 각 교사는 매 학생마다 총 4편의 작문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3학년 마지막 학기에 교사는 매 학생마다 총 3편의 작문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문학이나 문화 명저 선독의 경우 각 교사가 학생들에게 독후감을 써서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나) 영어 : 고등학교 3년 과정 동안 매학기 4학점, 매주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1 과정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배우고 고2와 고3 때에는 독해와 쓰기 내용을 추가하여 교학한다. 대만 영어 교과서의 특징은 고2 교재부터 난이도에 따라 A와 B 두 가지 판본을 선택 사용한다는 것이다. A형은 기초과정이고 B형은 기초과정 외에 심화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고등학교 영어 과목 교과서는 총 A형 6권, B형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학년별로 1권씩 사용토록 되어 있다. 영어 교과서 내용의 경우 생명, 성평등, 법치, 인권, 환경보호, 해양, 다문화, 소비자보호, 생애계획 등의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학생들의 인문학적인 소양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나. 수학 영역

가) 수학 : 고등학교 수학 과목의 경우 수학Ⅰ, 수학Ⅱ, 수학Ⅲ, 수학Ⅳ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각 4학점씩 이수해야 한다. 그 중 수학Ⅰ, 수학Ⅱ는 고1 과정이며 수학Ⅲ, 수학Ⅳ은 고2 과정이다. 고2 과정의 경우 A형과 B형 두 유형의 판본으로 나뉜다. 수학Ⅰ에서는 함수를, 수학Ⅱ에서는 집합 · 배열 · 통계 등을, 수학Ⅲ에서는 삼각형 · 직선 · 원 등의 평면좌표 등 개념을, 수학Ⅳ에서는 선형대수 내용 등을 배운다.

다. 사회 영역

가) 역사 : 역사 과목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교과서는 역사 시기 구분, 과거와 현재의 차이 및 연관성, 역사 사건 이해를 통한 자아 인식, 역사를 보는 각기 다른 시각에 대한 이해, 사료(史料)에 대한 이해 등의 각도를 반영하여 편찬되고 있다. 고1 때에는 대만 역사와 중

국 역사를, 고2 과정에서는 세계사를 중점적으로 배운다.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역사Ⅰ은 대만 초기, 청나라 통치 시기, 일본 통치 시기, 현재의 대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Ⅱ는 선진시기, 위진남북조 및 수당 시기, 송원명청 시기, 청말 시기, 중화민국의 건립 및 발전, 중국(대륙)의 건립 및 변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역사Ⅲ은 고대문화 유산, 종교 전파의 시대, 세계문명의 변천, 유럽 세력의 궐기 등 세계사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역사Ⅳ에서는 변혁의 시대, 자본주의 국가의 도전, 역사의 전환, 세계패권 쟁탈, 현대사회 각국의 성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지리 : 총 8학점으로 고1 때에는 지리 개론을, 고2 때에는 세계 지리를 배운다.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지리 개론의 경우 지리 개요, 지도, 지리 정보, 지형, 기후 및 수자원, 자연경관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하이테크 지식산업, 인구, 도시화, 지리학 실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 지리의 경우 북미, 구미, 동북아, 러시아, 호주와 뉴질랜드, 동남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중국, 대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공민과 사회 : 총 8학점으로 교재 교학 시간이 75%, 활동 시간이 25%를 차지한다. 교과서의 경우 4개의 대단원으로 나뉘어 있다. 1단원 주제는 자아 · 사회와 문화로 세부 내용은 자아 성장과 공민 준비, 인간관계, 인권, 공익, 공민사회의 참여, 매체, 문화와 위계, 다문화 사회 및 세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2단원 주제는 정치와 민주로, 국가의 형성과 목적, 민주정치와 헌정주의, 정부의 체제, 정부의 운용, 정치의식의 형성, 국민 참정, 국제정치와 국제조직, 대만과 중국 관계의 변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단원 주제는 도덕과 법률규범으로 도덕과 사회규범, 도덕과 개인발전, 법률 기본이념, 헌법과 인권, 행정법과 생활, 민법과 생활, 형법과 생활, 분쟁 해결 기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4단원 주제는 경제와 지속발전으로 경제학 기본개념, 시장기능, 세계화와 지구촌, 지속 발전하는 경제 과제, 외부효과, 공공재와 세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자연 영역

가) 기초물리 : 2학점짜리 과목으로 실습을 포함하고 있다. 교과서는 총 3종류로 나뉘는데 기초물리1, 기초물리2A, 기초물리2B가 그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따라 위 3가지 교과서 중 하나를 이수하면 된다.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물리1의 경우 물질의 구성, 물체의 운동, 물질간의 기본 작용, 전극과 자극, 파동, 에너지, 우주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초물리2A의 경우 운동학, 뉴튼의 운동법칙, 운동량, 만유인력, 에너지, 충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초물리2B의 경우 역학, 운동학, 뉴튼의 운동법칙, 운동량, 만유인력 법칙, 에너지, 충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기초화학: 2학점짜리 과목으로 실습을 포함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도에 따라 기초화학(1), 기초화학(2), 기초화학(3)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다. 기초화학(1)의 경우 물질의 기본구성, 물질의 기본 구조, 물질 변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기초화학(2)의 경우 물질 구조, 유기화합물, 화학에너지, 화학응용 등의 내용을, 기초화학(3)의 경우 기체, 물질의 변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기초생물 : 4학점짜리 과목이지만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도에 따라 2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교과는 기초생물과 응용생물 두 가지로 나뉘며 기초생물의 경우 생명의 특성, 유전, 진화 및 생물의 다양성, 식물의 구조 및 기능, 동물의 구조 및 기능, 생물과 환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응용생물의 경우 생물과학과 농업, 생물과학과 식품, 생물과학과 의약, 생물과학과 환경 등을 포함한다.

라) 기초지구과학 : 총 4학점짜리 과목으로 고1과 고2 과정에 개설되어 있으며 교과서 내용은 사람과 지구환경, 대기 중의 지구, 움직이는 지구, 天災, 지구환경 변천, 지구의 역사, 지구환경의 탐색, 지구환경의 특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예술 영역

가) 음악 : 음악1, 음악2, 음악3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음악1과 음악2는 기초과정, 음악3은 심화과정이다. 음악1와 음악2의 경우 심미와 감상, 노래와 연주, 즉흥과 창작, 음악지식과 연습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음악3의 경우 음악 감상, 성악, 악기연주, 음악창작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미술 : 총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앞의 두 단계는 기초과정이고 제3단계는 심화과정이다. 교과서 내용은 1단계의 경우 창작과정 체험, 설계와 생활, 미술개념, 미술비평, 대만미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2단계의 경우 창작과정 체험, 현대미술 창작 개론, 중국미술, 세계미술, 소수민족미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단계의 경우 창작과정 체험, 미술과 예술의 창작과 심미의 관계, 현대미술 창작의 특징, 미술과 문화의 관계, 미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예술생활 : 시각응용예술, 음악응용예술, 표현예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각응용예술 교과서의 경우 시각과 생활, 시각과 환경, 시각과 전파, 시각과 문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악응용예술 교과서의 경우 음악과 감각, 음악과 표현, 음악과 과학, 음악과 문화를 포함하고 있다. 표현예술의 경우 표현능력의 개발, 표현의 제작, 표현과 응용매체, 표현과 사회문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바. 생활 영역

가) 가정 : 2-4학점 이수 가능하다. 교과서 내용으로는 가정과 생활, 가족관계, 가족 간의 이해, 성별, 배우자 선택 및 혼인, 자원 관리, 주거 환경, 의복 계획, 의복 관리, 음식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생활과학 : 2-4학점 내에서 이수 가능하다. 교과 내용의 경우 과학기술의 발전, 과학기술 세계, 창작설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정보과학개론 : 2학점짜리 과목으로 정보과학 소개, 소프트웨어, 인터넷, 컴퓨터 문제해결, 정보과학기술과 인류사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 건강과 체육 영역

가) 건강과 보건 : 2학점짜리 과목으로 교과 내용으로는 건강생활, 안전생활, 건강한 소비, 심리 건강, 성 건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체육 : 2학점짜리 과목으로 교과 내용으로는 경기운동, 야외운동, 무도, 전통활동, 건강관리, 체육지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 국민국방교육 : 2학점짜리 과목이다. 교과 내용으로는 국제정세, 국방정책, 국민국방, 국방 과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 종합활동 : 초중학교의 종합활동 교과를 잇는 교과과정으로 매주 2시간의 교과목 시간에 학생들은 학급활동, 동아리 활동, 학생자치회 활동, 학교의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 본 교과과정은 별도의 교과서는 없다.

참고문헌

- 부산광역시교육청『세계 각국의 교육과정 및 운영사례(Ⅲ)——대만』, 육일문화사, 2009.
- 王建堯「政府遷台後教科用書制度之演變」, 國立台中教育大學教育學系暨課程與教學研究所 主編『建置台灣主體性的課程教學-台灣與國際教育』, 冠學文化, 2006.
- 周伶娟『臺灣教科書之市場失靈--教科書共同供應採購制度之檢討與建議』, 國立交通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 朱美珍「從教科書商品化及升學主義觀點, 論審定制下的教科書品質」,國家教育研究院(主編)『2012國際學術研討會--全球教育論壇課程及教學論文集』2013.
- 「建置十二年國民基本教育課程體系」, 十二年國民基本教育(http://12basic.edu.tw/)
- 「97年國民中小學九年一貫課程綱要」, 國民教育社群網(http://teach.eje.edu.tw)
- 「普通高級中學課程綱要」, 臺灣 教育部, 2011.
- 「高中課程綱要」, 課務發展工作圈(http://web.ylsh.ilc.edu.tw/course/)
- 「普通高級中學99課程綱要(各科完整版)」, 公民教學資訊網, (www.sanmin.com.tw/learning/public/course.asp)

필자소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만지역 위촉연구원
- 인하대 중국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 성균관대 중문과 강사
- 臺灣 中央研究院 語言學研究所 訪問學員
- 中國 北京大學 중문과 석 · 박사

교과서에 열정을 담다

조 경 진
체육과 건강/음악과 생활
편집디자이너

모두에게 힘든 봄이 지나가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다.

7월은 내 인생에 있어 또 다른 나로 살게 해준 새로운 시작점이다.

몇 년 전 7월 다소 늦은 나이에 교과서와는 아무 관련 없는 다른 직종에 있던 내가 그것도 교과서 편집디자인이라는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던 것이다.

나에게 있어 교과서의 이미지는 학창시절에 입시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칠판에 빼곡히 적어주는 여러 설명들을 형광펜으로 밑줄치며 별표하고 메모지를 붙여 지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채우며 공부하고 그 공부 아닌 공부의 흔적이 있는 교과서를 다 배우고 나면 끝났다는 알 수 없는 해방감에 좋아했던 모습이 떠오르곤 했다.

이런 내가 과연 교과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며 시작하였는데 이런 고민조차도 사치였다는 걸 입사 후 알게 되었다. 차라리 고민을 할 시간이라도 있었으면 할 정도로 정말 너무도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

우선 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에 대해 공부해야만 했다.

처음 입사를 했을 때에는 중학교 인정 교과서가 진행되던 시기였는데 처음 교과서계에 입문한 나에게는 인정 교과서가 무엇이고 검정 교과서가 무엇인지 그 구분조차도 알 수가 없는 상태였고 또한 심사라는 생소한 단어와 그 심사의 일정 등에 대한 것도 모두 낯선 단어들이었다. 특히 교육과정은 무엇이며 지금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어떤 교육과정이며 등등 편수 자료는 또 무엇이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야말로 신세계 그 자체였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맞추어 집필진이 원고를 작성하면 그 자료를 토대로 편집을 하고 디자인을 해야 하는 등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작업을 시작하

려고 했으나 처음 접하는 일정과 용어 등에 많이 당황했었다. 특히 편집자가 이야기하는 예전부터 사용해왔다고 하는 '도비라'와 '하시라' 등의 말들은 너무나도 생소했다.

그래도 이왕 시작했으니 뒤처지지 말고 열심히 해보자는 굳은 의지를 갖고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 지를 고민하였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된 것이 기존에 발행된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기보다 교과서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A 교과서와 B 교과서가 같은 주제일지라도 다른 구성을 하고 다른 디자인을 함으로써 교과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해서 막연한 내 느낌을 표현하며 포괄적인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혀 접해보지 않았던 교과서를 보면서 내가 학교를 다니며 배웠던 그 시대의 교과서들과는 확연히 다른 요즘의 교과서를 보며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교과서의 크기도 제각각이었고 편집과 디자인도 기존의 고루했던 틀을 벗어나 자유롭고 화려하게 변화되어 학생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교과서로 발전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작업했던 교과서는 중학교 음악 교과서였는데 원고를 받고 나서 디자인 시안을 잡는 데에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동안 원고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안을 만들어 적용했는데 그때마다 '다시', '다시'..... 모든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들이 너무 길어지면서 내가 무모하게 도전을 한 것은 아닌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는 시간들이 길어졌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을 다잡고 더 많은 책들을 보고 분석하며 고군분투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시안이 통과되어 초교 작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초교 작업을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초교 작업 후에는 정말 엄청난 수정 작업과 함께 정말 상상도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열심히 작업을 하고 난 후 그 작업물을 매주 집필진들이 모여서 편집 회의를 하며 내용을 수정하고 제재곡을 교체하고 또 쪽수를 늘였다 줄였다를 반복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었다. 그 편집 회의가 끝나면 나는 또 며칠 동안 열심히 작업했던 것들을 모두 버리고 수정 사항에 맞추어 작업을 다시 해야만 했다. 정말 교정지가 안 보일 정도로 매번 수정이 많았다. 그 많은 수정을 다 반영해서 다음 회의 때까지 시간을 맞추어 준비를 하려면 매일 밤 야근과 철야를 반복해야만 했다. 처음 하는 작업이라 일이 서툴렀던지라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때 혼자 남아서 야근을 할 때면 정말 내가 왜 이 일에 도전을 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눈물과 함께 후회가 많았다. 삭제하라고 했던 디자인 요소와 내용들을 삭제하고 나면 그 다음 주 회의에서는 다시 추가해야 하고 또 어렵게 추가하여 작업을 해 놓으면 삭제를 해버리는 과정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속으로만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있을 즈음 어느 주말이었다. 그 주말에는 집필자들과 편집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날이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았던 나는 그날 출근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회의실에서 집필진들이 모두 모여 회의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참 나에게는 이상한 광경이었다. 매주 멀리서 KTX를 타고 오시는 집필진들은 피곤도 할텐데 회의 자료를 챙겨 오시고 집필을 해오시고 악곡을 찾아 녹음해서 들려주시는 등 너무도 열정적인 마음과 또한 기쁜 마음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계셨다. 교과서 개발 기간이 오래되면 다들 집필하느라 힘도 들고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언쟁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회의하는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고 가끔 기타로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악곡도 다같이 노래 부르는 모습이 나에게는 정말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처음 교과서 작업을 하는 내가 힘들어 할 때면 수고한다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며 음료수와 간식

등을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며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불평을 하던 내 모습이 창피해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교과서가 만들어 진다는 생각을 하니 나부터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일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물론 지금도 갑자기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내용이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보내고 수정은 계속 되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나에게 있어 교과서 첫 작업은 내 속에 숨어 있던 열정을 다시 일깨워준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다음해 봄에 나의 첫 교과서가 완성되어 심사본 제출을 위한 인쇄를 하기 위해 인쇄 감리를 갔는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인쇄가 되어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나의 자부심도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정말 정말 떨리고 감개무량이었다. 인쇄 후 심사본을 제출했을 때 나는 이것으로 교과서의 일정이 마무리된 줄 알았다. 그러나 그 후 더 긴장되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과 합격 후 수정하여 최종 완성본을 제출하기까지 몇 달의 시간이 더 걸렸다. 어렵고 긴 시간을 지나 드디어 최종 완성본을 마주했을 때에는 그 교과서를 보면서 너무도 기뻐 밖으로 뛰어나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처음으로 작업한 것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심정뿐이었다.

이렇게 중학교 작업을 마치고 나니 초등 검정 교과서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힘들지만 첫 작업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자부심으로 나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그 자신감으로 초등 교과서에 도전을 했는데 중학교 교과서와는 너무나도 다른 작업에 적지 않게 당황하였다. 특히 초등 교과서의 작업은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모든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제일 큰 어려움이었다.

초등 3~4학년의 입장에서 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용어도 더 쉽게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해야 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고 쉬운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었다. 초등은 음악과 체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힘든 과정이었기에 중학교 교과서보다는 체력적으로 더 힘든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이콘을 개발하고 내용에 맞게 디자인을 채워 나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 때 뜻하지 않게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나의 딸들이었다. 야근을 하고 회사에서 마무리 하지 못했던 업무를 하기 위해 집으로 가지고 온 교정지를 책상 위에 던져 놓고 잠이 들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일어나 보니 초등학생이었던 나의 둘째 딸이 교정지에 있는 악곡을 부르며 활동에 있는 손동작을 보면서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엄마, 이거 손동작 잘 안 보이는데 더 크면 좋지 않을까요?" 하면서 자기가 느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이의 눈높이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스스로 초등 마인드를 가지고 편집자와 많은 회의를 통해 좀 더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초등 작업을 무사히 마치고 고등 교과서 작업까지 정말 쉬지 않고 계속 교과서를 만들어 왔다.

이렇게 작업하여 올해 그 작업이 다 마무리 되었을 때 그동안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많은 작업들을 하면서 내 스스로 느끼게 되는 부족한 것들이 책 속에서 보일 때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책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도 하고 또 내가 만든 책이 많은 학생들이 보고 즐겁게 수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뿌듯하기도 했다.

교과서 작업을 하다보면 교정지의 수정 사항들을 수십 차례 수정을 반복하면 가끔 힘들거나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없는 작업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나는 작업할 때 편집자와 교정지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가 있

다. 회의를 통해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가령 편집자가 교정지에 “수정이 너무 많아서 죄송” 이렇게 적어 놓으면 “괜찮아요”해 주었고, “야근해서 너무 졸려요” 이렇게 쓰여 있으면 “얼른 끝내고 야식이나 먹으러 갈까요? ㅎㅎ” 등의 서로를 위하는 작은 배려가 힘든 교과서 작업을 하는데 작은 위로가 되어주곤 했다. 교과서 작업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짧게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철저한 분석에 따른 집필진의 좋은 원고와 그것을 다듬고 체제를 맞춰주는 조율자 역할을 하는 편집자, 그리고 그 체제 속에서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보여질 수 있도록 양념을 가미하는 편집디자이너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좋은 교과서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학창시절에 매일 매순간 보았고, 빨리 이 교과서를 다 보고 어른이 되고 싶었던 시절에는 매일 보는 교과서가 정말 지겹고 보기 싫고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지식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되었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읽지도 않고 과감히 넘어가고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들만을 암기하고 보면서 단 한 번도 이러한 교과서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지금도 물론 교과서 개발을 하지 않았더라면 교과서는 나에게 학교에서 배우는 책이라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면서 단순히 교과서가 학교에서 배우는 책이 아니라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집필하여 편집하고 디자인하며 책으로 발행하기까지 얼마만큼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한 페이지도 소홀히 넘길 수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는 생각조차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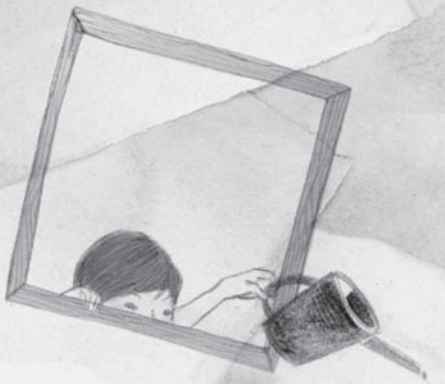
지난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서점에 가서 책을 둘러보았는데 교과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곳이 자연스럽게 초 · 중 · 고 교과서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되었다. 내가 작업한 교과서를 첫 번째로 찾게 되고 찾아서 괜히 한두 번 매만지고 내려놓게 되는데 그럴 때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좀 더 열심히 작업에 임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된다. 그리고 전시되어 있는 수많은 교과서들을 보면서 무수히 많은 집필진과 편집자, 편집 디자이너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지고, 이 교과서를 발행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열정, 그리고 눈물을 흘렸을 깊은 동감을 하게 되고 동지애까지 느끼게 된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무모하게 시작했던 교과서 작업이 이제는 제 2의 인생의 시작이 되었고 나에게는 뗄 수 없는 소중한 작업의 시간이 되고 있다. 편집이라는 것을 단순히 집필진이 집필하는 원고를 바탕으로 교정, 교열과 전체 체제만을 정리하는 간단한 작업이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내 속에 숨어있던 열정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작업임과 동시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기적과도 같은 작업이 되었다.

지금도 많은 편집자들이 교육과정과 편수자료, 편찬상의 유의점 등 누구에게나 주어진 똑같은 자료 속에서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더욱 더 새롭고 가치 있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초등, 중학, 고등의 교과서 개발이 일단 마무리되었지만 차후의 교과서 개발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든 편집인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교과서를 보며 이 열정의 교과서로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이러한 열정이 전달되어 앞으로 학생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설계하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필자소개

현재 ㈜체육과건강, ㈜음악과생활에서 편집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다.
초등, 중등, 고등 음악과 체육 교과서, 지도서 개발에 참여하였다.



나의 신라시대

주 철 환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기억력 좋다는 소리를 가끔 듣는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다. 내가 기억하는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나는 오로지 사람에 관한 정보, 그 중에서도 그 사람이 어느 학교 다녔다는 걸 유달리 잘 기억한다. 이러면 혹시 내가 학력콤플렉스가 있거나 학벌지상주의자가 아닌지 의심받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본다. 이름이 생소하거나 귀에 덜 익은 학교를 나온 사람에게 나는 더 관심이 간다. 그가 자라면서 겪었을지도 모를 단절감, 소외감이 오히려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을 거라는 게 내 호감의 대략적인 정체다.

대한민국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들 중 하나가 사교육이다. 참 끈질기게 버틴다. 내가 초등학교 다니던 거의 50년 전에도 사교육이 극성을 부렸다. 중학교에도 시험을 치고 들어가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어려운 살림임에도 불구하고 나 역

시 과외를 받았다. 당시 최고 명문 중학에 들어가려면 체력도 중요했다. 체력장시험에서 늘 최하점수를 받던 나는 필기에 만점을 받아야 할 처지였다. 내 기억으로는 한 문제밖에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도 내 이름은 합격자 명단에 들지 못했다.

불운은 계속됐다. 후기시험에서도 나는 낙방했다. 재수할 형편은 아니었다. 결국 짓궂은 과외선생님이 농담처럼 '넌 거기에나 가라'고 하셨던 바로 '거기'에 나는 입학하게 되었다. 나중에 그 선생님이 무척 미안해하시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 학교는 10월쯤 미리 장학생을 뽑았고 나는 우리 과외그룹에서 유일하게 합격을 해둔 상태였다. '설마 내가 저 학교에 가랴'고 기고만장했는데 정말이지 '설마'가 사람을 잡은 형국이었다. 그로부터 많은 것이 달라졌다.

'거기'가 동북중학교였다. 당시엔 학업보다 스포츠를 중시하던 학교였다. 축구의 명문이었고 유도와 아이스하키로도 이름을 날렸지만 학과공부 전념하기엔 썩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 운동장에선 늘 축구부가 뛰어다녔고 일주일에 한 번은 유도복을 지참해야 했다. 운동과는 담쌓고 살던 나에게 학교는 이색지대였다. 지금 나는 여기저기 다니며 '최고의 복은 전화위복'이라고 말한다. 그때 내가 '거기'에 안 갔다면 지금 이런 글을 쓰는 호사를 누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거기서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 거기서 좋은 친구들도 사귀었다. 다재다능한 친구보다는 다정다감한 친구들이 많았다. 그들은 경쟁자가 아니었고 동반자였다. 친구란 동정하거나 동경하는 대상이 아니다. 동행하는 게 친구다. 그들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었다. 나 역시 그들을 사랑했다. 사랑이란 상대방이 잘되길 바라는 것이다. 친구가 잘되었을 때 행복감을 느껴야 참된 친구사이다. 친구가 잘되니 도리어 마음이 우울하다면 그건 친구사이가 아니다. 우리는 좀 부족했고 욕심이 적었기 때문에 누군가 잘되면 모두가 기쁘고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이좋게 지냈다.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다보면 자신이 어느 학교 다녔다고 밝히게 되는 장면이 더러 연출된다. 그때 그 정보는 여지없이 내 머리에 입력이 된다. 그리고 그 정보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내 기억력 덕분에 서로 동창인 줄 몰랐던 사람들이 호형호제를 하게 된 경우가 수두룩하다. 물론 꼭 좋은 현상은 아니다. 어떤 이는 출신학교 밝히는 걸 즐기지 않는다. 또 밝혔다 해도 동창의 끈으로 엮이길 꺼려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한다. 그 정도는 센스로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럴 땐 빨리 화제를 바꾸는 게 상책이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난처했던 경우는 내 기억창고에 별로 남아 있지 않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 사람의 고향이나 가족관계보다 왜 그 사람이 다닌 학교에 더 호기심을 가지게 됐을까. 작은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완전히 없다고 하긴 어렵겠다. 동창은 추억을 공유하는 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명분이 약하다. 아마도 내 성장 과정에서 학교라는 공간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리해 본다.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담임선생님 성함을 지금도 다 기억한다.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싶지만 이름뿐 아니라 그분의 모습, 음성까지도 기억한다는 걸 낱낱이 증언하면 보는 눈빛이 달라진다. 최초의 담임은 안소자 선생님이셨다. 1962년 돈암초등학교(당시는 돈암국민학교)였다. 몇 십 년 지

난 후에 그분과 제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운 좋게 보게 되었다.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고, 또 내가 안소자 선생님을 기억한다고 하자 자기는 한술 더 떠 안선생님이랑 찍은 사진도 있다면서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그걸 일부러 가져온 것이다. 다시 보아도 고운 분이셨다. 얼굴도 마음씨도 목소리도 아름다우셨다.

나는 학교에서 죽 내려와 큰길 하나 건너에 있는 돈암시장에서 살았다.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은 재래시장이었다. 안소자 선생님은 동네약국 근처에 사셨다. 흑백사진 같은 과거의 이야기는 궁상스럽긴 해도 따스함이 있어서 좋다. 여섯 살 때 생모가 돌아가신 후 나는 고향 마산을 떠나 청상과부이셨던 고모님 손을 잡고 서울로 올라왔다. 법적 절차는 한참 후에 밟았지만 고모님 아들로 입양이 된 거였다.

고모님 이야기는 한 권의 책으로도 모자란다. 1913년생인 고모님은 학교를 다니신 적이 없지만 대단히 지혜롭고 무엇보다 마음이 넓고 깊고 크신 분이셨다. 또한 시장 안에서 제일 씩씩한 분이셨다. 고모님은 늘 장사하느라 바빴다. 가게 이름은 고모님 고향 이름을 딴 북청상회였다. '북청 물장수'로 유명한 바로 그곳이 고모님의 고향이다. 전쟁 중에 피난 내려오셨다가 돈암동에 정착하신 거였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온종일 시장을 쏘다니며 간식을 얻어먹던 철부지 아이였다. 가끔은 동네에 있는 동도극장에 얼굴도 모르는 아저씨 아줌마 따라서 슬쩍 무료입장하기도 했다. 이웃들에게 연민의 대상이었겠지만 고모님이 워낙 밝게 키우셔서 나는 늘 웃고 다녔다. 기억이 향기로운 쪽으로만 편집이 된 면도 감안해야겠지만 시장사람들의 귀여움을 듬뿍 받은 건 부인할 수 없다. 형제상회, 백화상회 아주머니들은 내게 가끔 용돈까지 주셨다.

아버지는 아주 뜸하게 가게에 들르셨다.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았다. 아니 불러보지 않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워낙 짧은 만남, 긴 이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버지는 말씀이 적었다. 서먹서먹한 관계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다. 내겐 고모님이 아버지이자 어머니였다.

가게에는 늘 봉투로 쓸 오래된 신문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나는 그걸 뒤적이며 정성스레 읽었다. 신문은 내게 세상의 풍경을 알려주는 메신저였다. 6하원칙에 따라 논리정연하게 쓰인 기사들은 글쓰기 교재로도 손색이 없었다. 물론 그런 사실은 나중에 깨달은 것이다. 신문의 사회면은 범죄로 도배되는 것 같지만 실은 권선징악, 사필귀정, 신상필벌을 가르쳐 주는 거울이자 나침반이기도 하다. 재밌는 사건은 골라서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고모님께 자주 이야기해드렸다. 이른바 스토리텔링 학습이 자연스레 이루어진 것이니 이 얼마나 살아 있는 교실의 모습인가.

당시 신문엔 유난히 영화광고가 많았다. 나는 '미워도 다시 한 번', '떠날 때는 말없이', '아낌없이 주련다' 등 영화제목들을 보며 마음껏 상상력을 키웠다. 그 광고들을 스크랩해서 소박한 영화잡지(?)를 만들기도 했다. 돌아보니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 고모님은 자기주도학습의 선두주자답게 억압이나 강요 없이 나를 믿어주셨고 나는 열등감 대신 자신감을 가진 아이로 자랄 수 있었다. 칭찬은 고래만 춤추게 하는 게 아니라 고아도 춤추게 만드는 묘약이다. 틈만 나면 단골손님들에게 나를 자랑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고모님을

보면 자식의 기를 꺾는 부모가 아니라 기를 살려주는 부모가 훌륭하다는 걸 은연중에 배울 수 있다. 겁을 주는 부모가 아니라 희망을 주는 부모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고모님이다.

또 하나의 참고서는 라디오였다. 고모님은 가게에서 온종일 라디오를 틀어놓으셨다. 연속극도 듣고 가요도 들으셨다. 나도 옆에서 덩달아 들었다. 거기서 나오는 일부 음악들은 나의 정다운 친구가 됐다. 나는 좋아하는 음악이 라디오에서 또 나오길 기다리며 귀를 쫑긋 세웠다. 여기서 나의 독특한 가요감상법이 형성됐다. 노래가 나오면 나는 그 가사를 유심히 들었다. 이를테면 '동백아가씨'엔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소"라는 부분이 나온다. '흑산도 아가씨' 가사에는 "못 견디게 그리운 아득한 저 육지를 바라보다 검게 타버린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가 나온다. 그게 나의 상상력을 엄청나게 키워주었다.

노래가사는 내게 일종의 '움직이는 시'였다. 이 유별난 취미는 나중에 내가 책을 쓰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내가 처음 쓴 책의 제목은 '주철환 프로듀서의 숨은 노래 찾기'다. 대중가요가사를 임의로 해석한 책이다. 좀 억지스런 면도 있었겠지만 독특한 시각이라는 호평도 받았다. 이게 다 소년시절의 라디오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나는 자랑스럽게 회고한다. 어쩌면 나는 평생 노래를 찾으러 다닌 탐험가였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어릴 때부터 자작곡을 만들기 시작했다. 참 겁도 없던 시절의 이야기다. 악기를 다루기는커녕 악보조차 정확히 못 읽었지만 내 가슴 안에는 늘 악상이란 게 춤추고 있었다. 악상은 피아노 위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소년의 그리움 속에서도 나온다. 그야말로 제멋대로 나는 작사 작곡을 해대기 시작했다. 나만의 유치한 기보법(기억술)을 개발하면서 나는 스스로 대견해 했다. 후배나 제자들에게도 나는 이렇게 권한다. "너를 과대평가하라." 그러나 이 말만은 꼭 덧붙인다. "남을 과소평가하지는 마라." 우리가 서로 과대평가하면 세상도 더불어 좀 커질 것 같다.

어느 날인가는 하늘의 달을 보다가 이런 느낌이 퍼뜩 들었다. 왜 달은 저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까. 달이 진짜로 작아진 게 아니라는 걸 마침내 알아냈다. 단지 작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맞다. 보이지 않는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자 노래 하나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시상과 악상이 동시에 떠올랐다. 제목은 '초승달'이다. "달이 초승달인 것을 나는 근심하지 않아요. 보다 완전한 달은 언제나 구름 속에 숨겨져 있어요. 당신이 당신의 사랑을 모두 말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의 사랑을 믿음으로 간직할래요. 사랑한다는 말은 없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대가 지닌 고운사랑은 가슴 속에 숨겨져 있어요." 아마 그때가 사춘기였던 것 같다.

그로부터 40여 년 후 나는 그 노래가 담긴 음반을 냈다. 노래는 불러야 노래인데 추억의 음악을 가슴에만 넣어두긴 아쉬웠기 때문이다. 방송사 입사할 때도 면접장에서 '초승달'을 불렀다. 작곡을 취미라고 썼더니 만든 노래 중에 하나를 불러보라는 주문을 했다. 나는 고모님께 배운 대로 용감하게 노래를 시작했다. 면접관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걸 보고 '노래가 나를 살려주는군'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PD 생활 하면서도 주제가를 몇 개 만들었다. 내가 악단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악보 그리는 일은 전문가들에겐 식은 죽 먹기였다.

돌아보니 나에게는 나만의 찬란한 신라시대가 있었다. 여기서 '신라'는 신문지와 라디오를 줄인 말이다. 나는 주입식 교육의 피해자는 적어도 아니었다. 나에게는 상상할 수 있는 여백이 있었다. 많은 책을 읽진 못했어도 많은 생각을 한 건 분명하다. 결핍과 궁핍은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충만이 사람을 고단하거나 교만하게 만든다. 나는 다락방에서 외로워서 글을 썼고 그리워서 노래를 불렀다. 누구를 원망하고 선망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소망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고모님은 나를 밀어주셨고 나는 고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꾸역꾸역 집어넣기만 하는 교육이란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주입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동차의 주입구가 떠오른다. 경유나 휘발유를 가득 채워도 결국 몇 킬로 못 가서 기름을 또 넣어야 한다. 주입식으로는 창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에디슨이 어둠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양초를 보며 양초공장 사장이 되길 꿈꾸었다면 전구의 발명은 한참 더 지나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에게는 야단치는 대신 늘 질문을 받아주는 자상한 어머니가 계셨다.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할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걸 모르지 않으면서도 많은 부모는 자식에게 생각할 여백을 제공하지 않는다. 경쟁력이 아니라 경쟁심을 길러주는 교육, 희망이 아니라 선망을 강요하는 교육, 적성이라고 써놓고는 그것을 뒤집어서 성적이라고 읽는 교육에는 미래가 없다.

살다보면 밥도 먹고 나이도 먹고 욕도 먹는다. 그러나 좋은 마음을 먹는 게 미래를 위해선 가장 유리한 투자다. 행복이란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걸 나는 이미 '신라시대'에 터득했다. 글씨는 못 쓰셨지만 고모님은 마음을 좋게 쓰셨다. 꾸준히 좋은 곳에다 시간과 돈을 쓰셨다. 책상은 없었지만 대신 사랑의 밥상이 있었다. 무학의 고모님께 내가 배운 건 바로 '잘 먹고 잘 쓰는 법'이었다.

필자소개

MBC TV 프로듀서로 입사하여
〈퀴즈 아카데미〉〈우정의 무대〉〈일요일 일요일 밤에〉〈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대학 가요제〉〈TV 청년내각〉〈테마게임〉〈민족통일 음악회〉 등 많은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2000년 3월부터 이화여자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7년 반 동안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로 재직했고 2007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수도권의 새로운 지상파 방송인 OBS 경인TV의 초대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2010년 10월부터 중앙일보 종편채널인 JTBC로 옮겨 제작본부장, 편성본부장, 콘텐트본부장을 역임한 후 2014년 4월부터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 총 14권
〈오블라디 오블라다〉〈더 좋은 날들은 지금부터다〉〈청춘〉〈주철환의 사자성어〉〈PD마인드로 성공인생을 연출하라〉〈거울과 나침반〉〈스타의 향기〉〈나는 TV에서 너를 보았다〉〈시간을 디자인하라〉〈사랑이 없으면 희망도 없다〉〈상자 속의 행복한 바보〉〈30초안에 터지지 않으면 채널은 돌아간다〉〈PD는 마지막에 웃는다〉〈주철환 프로듀서의 숨은 노래 찾기〉

교과서 개발 연수 후기

김 병 철
덕일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

5일간 <교과용도서 개발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를 이수했습니다. 처음에 연수 과정명이나 교육과정을 보았을 때는 딱딱하고 진부한 연수가 아닐까 의심도 하였습니다. 교육 내용조차 '개요, 연구, 감수, 규정, 판례 등' 딱딱한 용어가 많아 연수를 신청하기까지 망설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사로서 교과서를 바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앉아서 듣기만 하는 강의식 수업뿐만 아니라 출판사 현장견학도 포함되어 있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연수 내용을 듣기 전에는 교과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했지만, EBS 교재와 시중 참고서, 문제집 등이 수업 교재로 활용되고 저조차도 교과서보다는 활동지나 유인물을 만들어 수업교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직무연수를 통해 교과서의 글자 한 자 한 자가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수 첫날 강사들은 교과서의 중요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휴가를 보내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간 제 자신을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교과서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느낄 수 있어서 '이 연수를 선택하기를 잘 했구나!' 생각하게 했습니다. 교과서 뒷면에 인쇄된 본인 성함 석자가 뿌듯했었다는 김윤기 연구관,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에 근무하는데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는 어느 출판사의 허보욱 강사님, 혁신적인 실험 교과서를 제작해보고 관련 연구 논문 작성을 소개해 주셨던 박종희 강사님, 우리와 가까운 입장에서 인정도서에 대해 설명해주신 지명숙 교감선생님, 교과서 제작뿐만 아니라 수업에 있어서도 알고 있어야 하는 저작권법을 설명해주신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송재학 강사님, 교과서에 대한 열정에 고개를 숙이게 만드시는 김정호 강사님, 교과서 관련 법규를 프리젠테이션 없이도 재미있는 말솜씨로 강의해주신 최호열 변호사님, 아나운서 못지않은 멋진 목소리와 정확한 발음으로 어문규정을 설명하신 오광근 교수님, '한국사' 교과서 문제로 힘들었던 현실을 허심탄회 말씀해주신 정상명 연구사님 모두 기억에 남는 명강의였습니다. 연수 일정 중간에 포함된 출판사 견학도 뜻 깊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교과서 박물관도 관람했고 충무로의 조그마한 인쇄소만 알

고 있던 저에게 매엽기나 윤전기의 빠른 인쇄 속도와 품질은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연수를 통해 교사로서 교과서를 올바르게 활용해야겠다는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좋은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는 시각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연수 제목처럼 교과서에 관한 전문가가 되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구성된 연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새 학기가 그리워집니다. 빨리 학생들에게 보고 배운 내용을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교과서 개발 과정이나 웅장한 인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귀를 기울이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끝으로 이런 좋은 연수를 기획하고 진행해주신 김만곤 수석연구위원님과 이림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알 림 우리 '교과서 연구지'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교과서 연구'를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느낀 특집기사 또는 다른 원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보내주세요. 담당자의 이메일(editor@textbook.ac) 또는 연구재단 홈페이지의 참여마당–연구지 제안에 접수된 의견 중에서 독자의 소리에 게재되면 교과서 연구지를 1년간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교과서 개발 전문가양성 직무연수 후기

조 창 현
동인천중학교 교사

1. 교과서와 마주하다.

5년의 수험생활, 그리고 교사 2년차... 임용 후 정신없이 1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오랜 수험기간 동안 작성했던 수많은 노트들... 이 노트들을 써 나가던 나에게 교과서는 꿈이었다. 하지만 초보교육자에게 학교현장은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 정신없이 수업을 준비하고, 학급을 운영하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교과서는 잠시 잊혀졌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학기를 마무리 하던 중, 작년부터 밀려있는 270여개가 넘는 공문들이 보였다. 한숨을 쉬며 공문을 하나씩 지워나가던 중 '교과서'란 세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교과서 개발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란 제목의 공문을 본 순간 교과서를 만들어보고 싶다며 입버릇처럼 말하던 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입이 바짝바짝 말랐다. 정말 내가 교과서를 만드는 날이 올까? 우연히 발견하게 된 이 연수가 운명처럼 느껴진 순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2. 친숙한 교과서와 생소한 교과서

5일 간의 연수기간 동안, 친숙한 줄만 알았던 교과서의 수많은 다른 모습을 알 수 있었다. 국정·검정·인정도서의 구분,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과정, 교과서 저작권에 대한 이해, 교과서 정책 등... 이런 중요한 정보를 현장전문가에게 듣는다는 것은 정말 특별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교과가 인정도서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그만큼 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한다.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교과서라니... 생각만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당장이라도 컴퓨터 앞에 앉고 싶어졌다. 하지만 교과서를 만드는 일은 열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고, 교사와 학생의 요구도 반영해야 하며, 새로운 교수법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사진이나 삽화 등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표현과 표기상의 오류도 없어야 하며, 디자인도 빼어나야 한다. 불행히도 지금 내가 해낼 수 없는 일 뿐이었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른 일이 어디 있을까? 멀지 않은 미래에 내 이름 석자가 새겨진 교과서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다짐했다.

3. 디지털 교과서 일병구하기

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디지털 교과서'이다. 수학의 경우, 아직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지 않아서 그 개발 과정에 대해 궁금했고, 연수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디지털 교과서는 연수과정에서 빠져있었고, 강사님들을 통해 사업의 추진력이 많이 줄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교과서는 우리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것이 언제일지 예측할 순 없지만, 궁극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는 지금의 종이 교과서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연수 사이사이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생각해보았다. 그 결과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째, 좋은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간단하게 부연설명하자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하나만으로 모든 학습이 가능한 사용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교사와 학생이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많은 노력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적절히 준비한다면 올해라도 구축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조건이다. 이는 교사와 학생의 디지털 지능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 즉 자유자제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교과서는 편한 수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비록 고된 일이지만 디지털 교과서의 무한한 잠재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는 반드시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이러한 날이 올 때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디지털 교과서는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4. 꿈을 향해 나아가다.

교과서는 미래다. 학생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2년을 수백 권의 교과서와 함께하고, 사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 그렇기에 교과서는 우리 아이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 내가 만들어야 할 교과서는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학생들과 교사가 필요로 하는 교과서, 사회가 진정으로 원하는 교과서는 과연 어떤 것일까?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교과서를 통해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제시해보이고 싶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밝은 미래를 꿈꾼다.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

(주)금성출판사 김인호 사장

Q&A

▶ **"우리나라 사람 중, 어린 시절 금성출판사의 책을 읽지 않고 성인이 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금성출판사는 오랜 세월 많은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성출판사가 설립, 운영된지도 어느덧 반세기가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성출판사가 출범한 1960년대는 정치 · 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혁이 이루어진 시기로서, 지식 · 자본 · 기술 모두가 매우 열악한 때였습니다. 특히, 출판은 불모의 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금성은 시대의 변혁과 황망함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누구도 해내지 않은 사업 영역을 독창적으로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삶의 길이었고, 출판, 즉 지식 산업을 통해 국가 · 사회에 기여하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성의 전 가족은 "창의 · 성실 · 봉사"의 창업 정신으로 똘똘 뭉쳐 한 권의 책을 만들더라도 창의 · 집념 · 열정을 다해 우수한 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성은 한국 출판문화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50년, 금성은 아동 도서 및 청소년 도서, 교과용 도서, 사전, 참고서 등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나라 누구라도 금성의 어린이 책, 교과서, 사전을 보면서 지식을 쌓고 정서를 함양하면서 성장하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금성출판사는 '전통을 넘어 미래로'를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로 정했습니다. 이 말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해 온 금성의 창조적 저력을 기반으로 하여 2014년에는 더욱 창조적인 기업, 역동적인 기업,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힘차게 발전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 교과서 출판을 위한 부서 조직의 특징은 무엇이며, 교과서 전문 편집인 양성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교과서 출판을 위한 부서 조직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출판사의 교과서 출판을 위한 부서 조직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교과서만 연구 개발하는 전문형 조직, 교과서와 참고서를 함께 개발하는 병행 조직, 교과서 개발 시즌에만 교과서 편찬 조직을 두었다가 교과서가 끝나고 나면 해체하는 일시형 조직입니다. 이 세 가지의 조직 중에서 질 높은 교과서 개발 · 보급은 물론, 상시 수정 · 보완 및 교사 · 학생의 질의 · 응답 서비스가 가능한 조직 형태는 첫 번째로서, 가장 바람직한 조직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 조직을 상시 유지하자면 많은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금성출판사는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준비 과정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며, 교과서 개발 후 학교 · 교사 · 학생이 요구하는 교수 · 학습 자료 서비스 및 교과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 서비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형 조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교과서 전문 편집인 양성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교과서 전문 편집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그것을 목표로 하여 공부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대학교에서 육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편집인에 의해 우수한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금성출판사에서는 우수한 교과서 편집인 육성과 관련하여 초급 · 중급 · 고급 직원의 전 · 중 · 후 세 단계의 SPRIAL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단계는 '채용'입니다. 전문 편집은 우수한 자질과 가능성 있는 인재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교과서 개발 전 · 중 · 후별로 초급 · 중급 · 고급 직원에 따라서 편집의 전문화를 위한 나선형 프로그램이 심도 있게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은 기초적인 맞춤법 교육부터 편집 기획 · 방법론, 교과서 외적 · 내적체제론, 저작권법, 저작자론, 경영론, 교과서 정책론, 디지털 교과서론까지 아주 광범위합니다. 교재는 자체 개발한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교과서 발행사 대표로서 힘든 점, 보람을 느끼는 점이 있다면?

교과서 발행사 대표로서 힘든 점을 말하자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만, 그중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출판 사업에 대한 외부의 그릇된 인식'을 들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출판사가 교과서 사업을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그릇된 인식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07 개정 교육과정기까지는 교육부에서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 정가로 매김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이것을 출판사별로 교과서 채택 성과와 관계없이 나누어 갖도록 하였습니다.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공공재적 성격의 교과서를 통해 막대한 수익이 남도록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교과서 가격 제도는 출판사가 교과서를 통해 수익을 남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해를 보게 되어 있으며, 손해가 커지면 그 무게에 짓눌려 파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에이' 하며 '장사꾼이 손해 본다는 3대 거짓말'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교과서 사업으로 부자 된 기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과서 사업을 하냐구요?

교과서연구재단의 연구보고서 03-2, '교과서 발행사의 운영 개선 방안 연구'에 나타나 있듯이 출판사의 교과서 사업 목적은 수익이 아니라 '교육 출판 사업을 위한 콘텐츠 및 저작권

확보'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교과서 사업으로 손실을 입었다 해도 참고도서 사업을 통해 메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지하다시피 EBS 교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등 사정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 교과서에서 수익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즈음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교과서 사업을 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출판사는 교과서 개발, 발행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육 및 출판 문화사업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질 높은 교과서 개발, 보급을 담당하는 출판사의 사회적 역할과 진정성 있는 노력에 대한 평가가 적은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교과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어렵게 하는 정책과 제도의 잦은 변경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는 선투자 사업입니다. 출판사는 교과서 개발 이전에 자사의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교과서 개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교과서 개발을 언제부터 시작하여 언제까지 진행하는가와 교과서 사용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사전에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투자 계획, 인력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교과서 제도가 안정되어 4년 정주기로 교과서가 개발되고, 교육과정도 큰 폭의 변화가 없어 교과서의 전면 개정도 뜸하게 합니다. 따라서 출판사가 미리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번 큰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면이 참 안정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을 자주 바꿈에 따라 교과서를 전면 개정하는 일이 잦습니다. 또 교과서 사용 기간이 불규칙하다 보니, 어떤 예측도 하기 어렵습니다.

발행사 대표가 앞장서서 등불을 들고 앞을 내다보면서 반듯하게 걸어갈 때, 전 직원이 안심하고 따라오는 건데, 교과서 정책 · 제도가 자주 바뀌고 교육부의 교과서 로드맵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발행사 대표로서 가장 힘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선진 외국의 경우와 같이 튼실한 교과서 제도와 정책이 뿌리내리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보람을 느끼는 것은 늘 빠듯한 회사 살림을 하면서도 질 좋은 교과서를 펴내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그 성과도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금성출판사는 푸르넷 학습지, 아동도서 전집 등의 사업 수익이 있어 교과서 전문 조직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어려

운 가운데서도 40년 교과서 사업 명맥 속에서 현장 친화적인 우수한 교과서를 지속적으로 펴냄으로써 우리나라 교육 문화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어떤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첫째,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교과서, 교육과정에 충실한 교과서, 둘째, 현장 친화성이 높은 가르치기 쉬운 교과서, 셋째,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대답하는 것이 원하는 답일 겁니다. 물론 출판사에서는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교과서관에 경도되어 있는 출판사나 저자, 편집자가 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학교 교육은 권위 있는 저자가 만든 교과서를 주요 교재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내가 집필하거나 만든 교육 내용을 전국의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은 공부한다. 따라서 교육의 질과 내용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권위적 교과서관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원하는 교과서는 물론,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수 · 학습 자료가 무엇이든 만들어 보급하겠다.'라는 교과서관을 갖지 않으면 교과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요즈음에는 특히 교사가 원하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애씁니다. 학생용 교재로서의 적합성은 학생을 포함해 누구보다도 교사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교사가 선호하는 교과서가 결국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생각이기도 하죠.

한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 작용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교과서를 개발 · 사용하고 있으며, 외형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여 책 가격이 만만치 않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교과서가 안정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 미래 교과서는 기존 교과서와 많이 다를 것입니다. 향후 교과서의 모습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2014년은 차기 2015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을 준비하는 시기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교과서 제도와 정책은 21세기에 태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주요 교육 수단을 20세기 식으로 정책 기획하고, 만들고, 심사하고, 보급하고, 사용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교과서가 서책 중심으로 정책 기획되고 있고, 편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는 짧게는 몇 년 후, 길게는 십 년 후의 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정서, 과학 · 기술의 발달 등을 내다보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시기까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볼 때 교과서의 개념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교육과정의 만족스러운 적용, 높은 현장 친화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의 유용성을 서책 교과서를 통해서만 실현하고자 한다면 의도는 좋으나 실패의 결과를 맞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를 대안으로 제기되기도 합니다만, 이것도 지나치게 앞서 간 극단적인 방안입니다. 여객기가 활주로 없이 뜨려고 한 것과 같습니다. 많이 성급했지요.

우리는 그동안 서책과 디지털 교과서라는 극단적인 수단 · 방법만 생각했지 그 중간 과정을 간과한 측면이 강합니다. 미래의 교과서 형태가 무엇이든 충분히 연구하여 잘 준비하고 튼실히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미래형 교과서로 안착할 수 있지 않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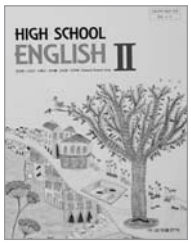
그래서 저는 '교과서'라는 교육 매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교과서 정책의 혼란과 실패 끝에 차기 교과서는 도로 서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교과서를 단일 · 단순 유형의 매체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시스템이란 여러 가지 매체 요소를 유기적으로 엮어 교수 · 학습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서책 교과서는 시스템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미래의 교과서는 여러 가지 매체 요소가 서로 어울려 스테레오 효과를 낼 때 '질 높은 교과서'로 평가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금성출판사가 교육 출판계에서 나아갈 비전(또는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지난 3차 교육과정기부터 현재까지 초 · 중 · 고 검인정 교과서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개발, 발행한 출판사로는 저희 금성출판사를 비롯해서 두산동아, 교학사 3개사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금성출판사는 오랜 세월 우리나라 교육출판계에서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금성이 2015년에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척박했던 교육 출판 토양이 어느덧 크게 변하여 이제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난 세월 교육 매체를 발행하는 금성의 모토가 '지식 산업을 통한 국가 · 사회에 기여'였다면, 향후 50년은 이를 바탕으로 하되, 새로운 비전을 갖고 이를 추진할 계획을 세워 국내를 넘어 세계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내 여러 사업 부문에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가 개인과 개인이, 기업과 기업이 서로 생존경쟁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던 시대였다면, 미래는 통합과 융 · 복합이 아주 중요한 사회적 가치와 원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개인이 혼자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서로의 장점을 통섭하여 새로운 문화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공존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금성출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면 합니다. 또 교과서에서도 더욱 규모 있고 알찬 연구 개발을 통해 교과서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서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는 교과서를 만든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이 이윤을 더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교과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진정으로 교육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부 금상

곱사등이 할머니와 교과서

이 혜 경
성남송현초등학교 교사

할머니는 등에 커다란 혹이 달리셨다. 나는 그런 할머니가 우리 친할머니라는 사실이 창피하기만 했다. 친구들은 나와 의견 다툼이 있을 때마다

"느네 할머니는 꼽추지? 등이 이따 만한?"

하고 놀리면서 내 눈에 눈물이 고이게 했다.

나는 할머니가 꼽추인 것이 싫었다. 키도 작고 등 뒤에 혹이 커다랗게 달린 할머니가 내 할머니인 것이 참으로 싫었다.

할머니는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셨다. 아무리 투정을 부려도 다 받아주셨고 먹을 것이 생기는 족족 아껴두었다가 내 입에 쏘옥 넣어 주시곤 했다. 할머니는 나를 '강아지'라고 부르셨고 때론 '금쪽같은 내 새끼'라고도 하셨다. 할머니는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셨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만만한 존재이기도 했다.

할머니는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당신이 학교를 다니는 듯 기쁨에 젖어 계셨다. 그리고는 내 교과서를 무척이나 좋아하셨다. 글씨도 모르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교과서는 우리 집의 유일한 책이었다. 가난한 우리 집에 있는 내 책을 소중한 금덩이 다루듯 대하셨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얼른 책가방을 열고

"오늘은 어디를 배웠누?"

하고 물으시며 글자도 모르는 당신을 부끄러워하시는 듯 내가 읊조리는 것을 가만히 듣고 계셨다. 그리고는 어쩌다 내가 글자를 알려주면 암기하려고 애를 쓰곤 하셨다.

"할머니, 이건 우리 어머니야. 여기 그림에도 있잖아. 할머니는 이렇게 쉬운 것도 몰라?"
"아이고, 내 강아지. 이런 어려운 글자도 잘 알고 참말로 훌륭허네."

할머닌 책을 읽어가며 고개를 뻣뻣이 드는 손녀딸이 못내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듯 볼을 쓰

다듬고 또 쓰다듬어 주셨다. 나는 그런 할머니 앞에서 교과서를 펼쳐들고 읽어 가는 기쁨에 젖어가곤 했다. 나와 할머니는 한글 친구가 되었다. 할머니는 나와 함께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와 산수 교과서를 보고 또 보면서 글자와 숫자를 배워가셨다. 할머니는 손녀딸과 함께 교과서 보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여기셨다. 교과서만 펼쳐 들면 입가에 잔잔한 웃음이 피어 오르셨다.

하얀 고무신을 신고, 항상 흰 저고리와 치마를 입으셨던 할머니는 키가 유난히도 작으셨다. 가슴과 등에 불룩하게 솟아오른 곱사병이 키를 자라지 못하게 하셨는지 어른 키에 한참을 못 미치는 못난 모습은 가던 사람도 다시 뒤돌아보게 했다. 나는 할머니가 꼽추인 것이 싫고 창피하기만 했다. 어쩌다 할머니와 길을 함께 걸을 때면 할머니 곁에서 멀리 떨어져 고개를 외로 꼬고 걸었고, 할머닌 그런 나를 보시면서 앞서신 후에도 자꾸만 뒤돌아보셨다. 행여 할머니가 내 손을 잡을라치면 나는 야멸치게 그 손을 뿌리치며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할머닌 항상 내 편이셨다.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을 향해 오는데 먼발치에서 할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할머니가 창피하고 부끄럽기만 했다. 시간이 흐르고 학교 친구들이 다 간 뒤 주변을 살피며 집에 오는데 할머닌 나를 부르며 얼른 내 옆으로 오셨다. 그리고는 내 손을 꼭 잡고 쵸콜렛을 쥐어 주셨다. 그 귀한 쵸콜렛, 월남 갔던 어떤 분이 할머니 드시라고 주신 것을 나를 주고 싶어서 내내 기다렸을 것이다. 나는 그런 할머니를 탁 뿌리치고

"다음부턴 절대 학교에 오지 마. 한번만 더 오면 가만 안 둘 거야."

하고는 홱 돌아서서 할머니를 뒤로 하고 매몰차게 달려가 버렸다. 내내 달리면서도 내가 밉고 할머니도 미웠다. 두 눈 가득 눈물이 고여 갔다.

그날 밤, 곱사등 때문에 반듯하게 눕지도 못하고 옆으로만 모로 누워 새우잠을 자는 할머니를 보면서 가슴이 아파왔다. 할머니의 등을 가만히 어루만지는데 눈물이 자꾸만 찔끔거렸다.

'할머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나는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막 잠에서 깬 내게 다가오신 할머니는 내 엉덩이를 토닥이셨다.

"우리 강아지, 잘 잤는가?"

그런 할머니의 친절한 말에도 아무 대답도 못하고 눈을 감고 자는 척만 하고 있었다. 눈을 더욱 꼭 감는 내가 참으로 귀엽다는 듯, 할머닌 자꾸만 엉덩이를 토닥거려 주셨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잘못했다는 그 말을, 입속에서만 맴도는 그 말을 꿀꺽 삼키고만 있었다.

그 후로 나는 할머니께 친절한 손녀딸이 되어 갔다. 교과서는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유일한 물건이었고, 할머니께 오늘 배운 내용을 알려 드리는 것은 최고의 선물이었다. 나는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점점 즐겁고 신이 났다. 교과서 내용을 알려 드리다가 간간히 선생님이 해주신 말을 덧붙이면 할머니는 초등학생처럼 깔깔거리고 손뼉을 치며 어쩔 줄을 모르셨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선생님이 된 듯 할머니를 가르치는 재미에 빠져 들었다. 할머니 덕분에 나는 공부도 더 잘할 수 있었고 항상 100점을 맞게 되었다. 할머니는 그런 나를 자랑스러워했고 귀여워서 어쩔 줄을 모르셨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할머니는 교과서를 줄줄 읽게 되었다. 교과서를 유난히도 사랑했던 할머니는 해마다 새 교과서가 나오면 하얀 달력을 뜯어 내 교과서를 곱게 싸 주셨다. 교과서를 쓰다듬고 안아보고 볼에도 대보곤 하는 할머니께 물었다.

"할머니, 왜 그렇게 내 책을 좋아해?"

"우리 강아지 훌륭하게 만들어 줄 책잉게 좋아 허제?"

"치이……. 책이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 줘?"

"그럼. 이 책이 우리 강아지 훌륭헌 사람 만들어 줄것잉게 항상 아끼고 가까이 허소. 옛날부터 책 좋아 허는 사람이 성공허는 것이여. 알겄제?"

할머닌 나를 꼭 안아 주시면서 등을 토닥거리셨다. 할머니는 내가 '핵교 선생'이 되는 것을 원하셨다.

대학을 가게 되었다. 할머니의 바람대로 나는 교육대학에 입학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교사로 발령 나던 해에 치매를 앓으셨다. 어쩌다 시골집에 들르면 할머닌 나를 보고 물으시기도 했다.

"당신 누구요? 어디서 오셨누……."

그런 할머니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그런 내 눈물을 닦아 주시며 말씀하셨다.

"뭔 사연인지는 모르겄으나 기쁜 일도 올 것잉게 인자 그만 우시요."

기억을 잃으신 할머니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집 광에 있는 내 헌 교과서를 가져다 보여드렸다. 그러자 할머니는 허리를 바로 세우시며 눈을 빛내셨다. 예전의 기억이 돌아오는 듯 오래된 교과서를 보면서 할머니는 자꾸만 책장을 넘기셨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할머닌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내 볼을 쓰다듬으셨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 이 책 기억나요? 할머니랑 함께 공부했잖아요. 할머니 덕분에 이 손녀딸 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선상님? 내 강아지가 핵교 선상님이 되었어?"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옛 추억이 생각나는 듯 눈물을 보이셨다. 나는 할머니와 함께 헌 교과서를 보면서 웃고 재잘거리고 다시 오래 전 초등학교시절로 돌아가 함께 깔깔거렸다. 치매에 걸리셨어도 할머닌 글씨를 잊지 않으신 것이다. 교과서는 술술 읽어 가시는 할머니가 신기하기만 했다. 할머니가 한글을 읽어갈 때마다 나는 손뼉을 치면서 자꾸만 눈물을 닦아냈다. 할머니는 그렇게 교과서로 인해서 잠깐이나마 기억을 되찾으셨다. 내가 누군지 기억이 가물거리시다가도 헌 교과서를 함께 보면서 웃고 장난하고 글씨를 읽어 가면 할머닌 잠시 기억을 되찾으시며 나를 기쁘게 하신 것이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햇살 고운 가을날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집은 스산하기만 했고, 수의를 입고 관 속에 누워계신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손녀딸을 자꾸만 찾았다는 할머니. 평생을 한번 반듯하게 누워보지도 못한 할머니.

'울지 마소. 우리 강아지가 울면 이 핼미 못가네. 울지 마소.'

손녀딸을 유난히도 사랑하셨던 할머니가, 금쪽같은 내 새끼라고 부르던 할머니가 여전히 나를 위로하며 눈물을 닦아주고 계셨다.

할머니를 땅 속에 묻고 온 날, 손녀딸을 지극히도 사랑해 주셨던 그 기억으로 자꾸만 눈물이 앞을 가렸다.

나와 함께 한글을 공부했던 꼽추였던 내 할머니.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셨던 할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할머니! 내 그리운 할머니를 불러본다. 다시 철모르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 할머니랑 함께 교과서로 한글 공부도 하고 숫자 공부도 하고 어리광도 부리고 싶다. 그리고 교과서를 서로 경쟁하듯 읽어 가며 사랑 가득한 그 눈빛을 마주하고 마냥 웃어 보고 싶다.

할머니와 교과서는 내 가슴에 조각하듯 새겨져 슬픈 그리움이 되고 말았다. 지금 이 순간, 할머니가 나를 내려다보며 하염없이 웃으신다. 교과서 속의 사진이 되어 자꾸만 나를 향해 웃으신다.

일반부 은상

삶을 안내하는 신호등

이 숙 희
인천 해원중학교 교사

사회과 부도라고 적혀진 책을 받았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날이었습니다. 앉은뱅이 책상 위에 새로 받은 책을 모두 꽂아 놓고 뿌듯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빼어난 모양새를 뽐내던 책이 사회과 부도였습니다. 초록 양장으로 다른 책보다 크고 무거웠으며 색감도 풍부했습니다. 책장은 도톰하였고 손끝에 닿는 지면의 촉감이 좋았습니다. 새 책 냄새가 알싸하게 퍼지는 첫 장을 넘기면 지구 표면의 지형, 도로, 하천, 평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축척에 따라 그린 세계지도가 두 쪽 양면에 신기루처럼 펼쳐졌습니다. 지도의 아랫부분에는 총천연색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가 화려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길 때 박하 향처럼 퍼지던 신비로움과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를 보면서 국가와 수도를 확인하던 설레임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지도가 나오는 페이지의 양면을 활짝 열어 놓고 식물의 잎맥을 관찰하듯 자세히 지형도를 들여다보는 순간이 좋아했습니다. 뒤쪽의 대륙별 지도와 맞춰가며 국가명과 수도, 산맥과 강을 찾아 가고 독특한 지명을 입속으로 발음하는 것은 여행지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 느낌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 모스크바, 브뤼셀, 호찌민, 아바나, 시애틀, 쿠리치바, 쉬라즈…

입속에서 톡톡 터지는 과육처럼 신성한 도시이름들을 발음해 볼라치면 무생물의 활자들이 혀끝에서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학교의 사회시험은 대비를 하지 않아도 쉽게 풀렸습니다. 고동색으로 뚜렷하게 선을 긋던 히말라야산맥과 아메리카대륙의 중앙평원을 가로지르던 파란색 미시시피강이 사회시험지의 주관식 답란을 보기 좋게 채우기도 했습니다. 최고점을 맞으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 석양이 물드는 대청마루에 엎드려 지도를 읽으며 마음을 다지곤 했습니다.

앙코르왓, 페르세폴리스, 붉은 광장, 사하라사막, 파미르고원, 세렝게티…

직접 걸어보리라. 사람들을 만나고 땅과 나무가 풍기는 독특한 향취를 맡아 보리라. 다락방 구석에서 가슴 뛰며 들춰보던 사십구 쪽, ANTARCTICA라고 또렷하게 적혀있던 얼음색조

의 남극대륙 또한 잊을 수 없습니다. 백 페이지가 넘어가면 작은 인쇄체의 글씨로 통계자료가 나와 있었습니다. 국가별 인구와 산업, 수도와 무역량, 주요산과 섬, 호수, 강수량, 기온,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까지 자세하게 말입니다. 깨알 같은 글씨들을 읽어보며 기억했다가 수업시간에 대답할라치면 같은 반 친구들이 화들짝 놀라고 선생님도 놀라곤 하셨지요. 아무도 모르는 답을 발표한 순간, 그 자유함과 도도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저 사회시간이 좋았고 기다려졌습니다. 세계와 대륙, 나라와 지방을 자세히 알아나가던 순간의 만족감은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지도책의 맨 뒷장 '찾아보기'에서 우리나라 편과 세계편의 희한한 지명을 찾아내던 그 순간은 신대륙을 발견한 듯 의기양양했습니다.

겨울방학이 되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동생들을 모아 놓고 가끔은 지명 찾기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각자, 지도책을 펴들고 긴장되는 순간 온두라스랄지, 스리나가르랄지, 은자메나랄지 생소한 지명 찾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일등을 한 동생에게는 새우칩을 상품으로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참 즐거웠던 게임이었는데 중요한 학습이 되기도 했던 것이지요. 부모님은 늘 바쁘셨고 우리 남매들은 심심했습니다. 지명 찾기 놀이는 약간의 긴장감과 오락성을 함께 제공해 주었고 훗날, 우리형제들에게 독특한 세계관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사춘기시절을 겪어낼 수 있도록 다정히 손잡아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지, 한권의 교과서가 방황하는 영혼을 지켜보아 주었고 단짝친구처럼 길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반짝이는 기억과 함께 사회과 부도를 보석처럼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현실로부터 벗어나 휴식이 필요할 때, 자연과 인간으로부터 간절히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조용히 지도책을 넘기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하룻밤에도 몇 번씩 태평양을 횡단했고 아프리카 대륙을 종단하면서 오대양 육대주를 여행했습니다.

그래요. 때로는 무생물이 슬퍼하는 인간에게 따뜻한 위안이 되기도 하더군요. 여고생 때 입시준비를 하던 나날들, 책상의 한켠에는 희망의 부표처럼 사회과 부도가 놓여있었지요. 바래고 낡아 백 살 먹은 순례자처럼 보였던 책이었는데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아끼던 그 책을 대학을 입학하여 독립하던 해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1984년, 대홍수 나던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책을 찾을 수 없어 마음이 몹시 허전했고 안타까웠습니다. 오래도록 서운했습니다. 오래 사귄 친구를 잃은 기분으로 학교 도서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아틀라스 출판사나 라루스출판사에서 제작된 지도책에 코를 박고 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과 부도는 학창시절의 친구이자 희망이었고 미래를 제시해준 지휘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빨간 책가방, 가방을 열면 나란히 세워져 있던 적당한 크기의 책들, 1교시 시작종이 울리는 순간, 손에 잡히는 책의 두께, 선생님의 슬리퍼소리, 익숙한 기침소리, 드르륵 문이 열리고 까만 출석부와 교과서를 옆구리에 낀 선생님모습과 교실의 정적을 기억합니다. 흑백 사진 한 장으로 인화된 풍경은 바로 제 삶에 찍힌 시간의 점입니다. 그 매혹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다가오는 입시로 흔들리던 위협적인 시간의 늪에서 거뜬히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준 것은 교과서를 열면 퍼지던 편안한 종이냄새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시간의 점이 있다. 이 선명하게 두드리는 점에는 재생의 힘이 있어… 이 힘으로 우리를 파고들어 우리가 높이 있을 땐 더 높이 오를 수 있게 하며 떨어졌을 때는 다시 일으켜 세운다."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를 빌립니다. 그리고 청년시절, 꿈을 꾸던 순간을 당당히 예찬할 수 있습니다.

양진태 선생님은 칠판에 오색 분필을 이용해 세계지도를 그리셨습니다. 교실의 칠판가득 녹색의 공간에는 순식간에 세계의 지형과 기후, 도시와 인구를 상징하는 부호들이 옮겨와 있었습니다. 여학교 3년간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는 따로 공부할 일이 없었습니다. 교과서와 선생님, 지리시간, 세 개의 요소가 삼각형의 꼭지점 처럼 똬리를 틀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그저 머릿속에 들어와 지식이 되었습니다. 물이 흘러 바다에 모이듯이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모든 지점들이 연결되었고 저절로 세상과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지리적 특성과 현상들을 배우면서 언제가 직접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섭렵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여행으로든, 일로써든 불가사의한 역사적 현장을 몸으로 느끼고 광활한 대자연의 곳곳을 아우르고 싶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책 한권을 통해 내 삶의 방향성을 자연스레 찾았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회과 부도를 펴놓고 세상을 들여다보는 법을 가르치는 지리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요. 지도에 나와 있는 수많은 육로와 철길들, 그리고 바닷길, 대권항로들이 나의 진로를 확인하고 인도해주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에 입학 했지요. 대학생활 4년은 행복했습니다. 한반도의 등뼈인 산맥을 찾아가고 혈류인 강을 찾아 다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철이 지도책에서 보았던 그곳들을 찾아갔고 등고선과 강줄기에 붉은 줄을 그어 확인을 했습니다. 답사 보고서를 쓰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삶의 한 시절을 수놓는 질료가 되었습니다.

교직에 들어와 사회과 부도를 가지고 세계각지를 가르치는 날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흥분과 즐거움으로 아이들도 수업을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언제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끝으로 지도책을 훑어라. 자주 들여다보고 입속으로 지명을 발음해 보아라. 교실에서 만나는 세계가 행복했습니다. 방학이 되면 어릴 적 사회과 부도에 붉은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쳐가며 섭렵하고자 했던 곳을 찾아 순례를 떠났습니다. 쿠바의 하바나 방파제에 누워 웨밍웨이를 만났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상뜨 페테부르그까지 시베리아열차를 타고 횡단을 했습니다. 이란의 쉬라즈, 페르세폴리스왕도의 기둥에 기대서서 고구려에서 보냈던 사신의 흔적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때로는 길 위에서 아름다운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집에 초대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의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사자의 야성을 들었습니다. 타지키스탄 파미르 하이웨이에서 늑대도 만났습니다. 그렇게 어린 날 책으로 만났던 꿈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돌아오면 새로 만든 자료들을 가지고 교단에서 학생들과 함께할 시간들이 기대되고 흥분되었습니다. 교과서의 주제에 맞추어 내 어린 날 꿈을 찾아 떠나던 그 길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려 노력

해 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워진 e-교과서에 붉은 레이저빔을 툭툭 던지며 소통합니다. 동영상이나 사진, 녹음 자료로 그들의 영혼에 어린 시절 사회과부도의 첫 페이지에서 찾아내던 울림을 주려 합니다. 지도위를 걷기도 하며 프로젝션에 대형화면으로 교과서의 한쪽을 펼쳐놓고 전자펜으로 붉은 동그라미를 그리기도 합니다. 이제 교과서는 확대와 축소도 자유롭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은 종이교과서보다는 전자교과서를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세월은 변했고 매체도 말할 수 없이 다양해 졌습니다. 활자로 만들어진 종이교과서도 많이 변했습니다. 흑백사진에 검을 글자만 가득하던 작은 교과서는 이제 화려하고 두꺼워졌으며 크기도 다양합니다. 총천연색의 사진과 그림이 가득하고 e-book까지 함께 묶여 제공됩니다. 교과서는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어 종류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출판사가 학교별로 해마다 바뀌기도 하고 내용이 개정되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학년 초에 무료로 제공되는 책을 가방에 소중히 넣어 다니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학교의 사물함에 두고 참고서만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맞잡은 친구의 따뜻한 손처럼 교과서를 소중히 여기는 주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단언컨대 교과서는 그들 인생의 한 시절을 담당하는 에너지이며 그 이상의 길잡이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교과서를 통해 사춘기의 아픔을 달래고 꿈을 키웠던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라고 여깁니다. 나의 아름다운 사회과 부도가 내 삶을 인도해 주었듯 요즈음 학생들에게도 교과서는 삶을 안내하는 신호등이라 믿습니다.

정말이지, 앞으로는 교과서가 일 년 쓰고 버려지는 한해살이 꽃이 아니라 배웠던 책들을 후배들이 다시 활용하고 그 후배들이 또 받아서 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항로를 찾아가고 삶의 혜안을 얻어가는 여러해살이 꽃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일반부 동상

엄마의 국어책

오 화 석
충북 낭성초등학교
교사

"저런, 너 또, 또, 또…….
흙벽을 빨아먹으면 병 생긴다고 했지! 자꾸 말 안 들을래?"

햇살이 따가운 오후.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다. 조금 전 낡고 오래된 초가집 흙벽을 빨아먹다가 외할머니에게 혼이 난 터라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는 눈길이 더 조심스럽다. 벌써 여러 번 엄마나 할머니에게 혼이 난데다가 이번에는 할머니의 눈흘김까지 덤으로 받았으니 숨는 것이 최고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집안에서 제일 멀면서도 가까운 나만의 비밀 장소이다. 안채와 사랑채를 둘러싼 싸리울은 요즈음 담과는 달리 어느 한 부분을 막아서 통하지 않게 e자 모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뒤안(뒤꼍, 뒤란)을 지나 이곳으로 오면, 내 눈에는 대문과 마당이 훤히 보이지만 잘만 숨으면 다른 사람들은 날 찾을 수도 없다. 혹시 찾았다 해도 집안을 한바퀴 빙 돌아야만 만날 수 있으니 그 사이 뒤안 장독대를 올라 집 뒤의 동산으로 도망가기에도 참 좋다. 게다가 보통은 장작이나 김장 움집, 베어 놓은 옥수숫대 등이 어지러이 놓여 있으니 어린 아이가 숨어있을 것이라 상상도 안 해서 눈에 안 띄는 데는 금상첨화다.

낡은 닭둥지에 감추어둔 책을 꺼낸다. 원래는 가마니로 문을 달아놓고 재로 뒤처리를 하는 뒷간(화장실)에서 밑씻개(화장지)로 쓰이던 책이라 앞뒤 몇 장이 찢겨진 상태지만 그래도 내가 몰래 구조(?)해서 비밀 장소로 옮긴 다음부터는 먼지만 조금 내려앉아 있다.

이제부터 약간의 시간은 내거다. 싸리 울타리와 수숫대를 빼곡히 세워놓은 사이의 봉당에 앉았다. 바람까지 솔솔 불어준다. 완벽하다.

나비가 아이와 숨바꼭질을 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노랑나비가 하얀 꽃에 앉았더니 금방 찾았는데 노랑꽃에 앉았더니 찾을 수 없었단다. 민들레를 닮은 꽃 몇 송이 그림과 나비, 그리고 나비를 찾아 둘러보는 조그만 갈래머리 소녀의 그림도 있다. 우선 꼼꼼히 읽고 나서야 책장을 넘긴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글도 나오고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는 글도 나온다. 도표도 있고 흑백으로 된 사진도 있다. 동시도 몇 편 있다.

벌써 몇 번째 읽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난 책을 펼치면 노랑나비 이야기부터 또 시작한다.

언젠가 무슨 책인지 엄마에게 슬쩍 물었더니 국민학교(초등학교) 시절에 사용하던 교과서란다. 4학년인가였는데 국어 교과서였다고 했다. 우리 엄마도 나만큼 작은 시절이 있었다는 증거구나. 상상은 안 되지만 그 교과서만은 내 손에 있다.

남들보다 조금 많이 일찍 외로움도 많이 타고 생각도 많았던-지금 보면 우습고 별 거 아니지만-나는 수많은 생각과 호기심과 나름의 염세적(?)인 판단의 검증을 책을 보면서 하곤 했다. 그러나 주위에서 책을 쉽게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보던 책만 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낡은 시내버스에서 내려 10여리 길을 걸어 첩첩산중 산골의 외가에 가면 어린아이들과는 거리가 먼 연세 많으신 외조부모님들만 사시는 터라 읽을거리는 더욱 찾기 어려웠다. 전깃불도 거의 맨마지막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늦게 들어온 산골이라 밤이면 등잔의 불꽃으로 장난을 하고 낮이면 커다란 달력을 놓고 할아버지의 낡은 주판으로 여러 가지 셈을 하며 놀다가 겨우 발견한, 할머니가 읽으시던 '홍길동뎐', '숙영낭자뎐'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옛문체의 해석을 위해 꽤나 머리를 굴렸던 기억이 난다.

그러던 중 볼일을 보러 뒷간에 갔었다. 목침만한 나무 두 개에 올라앉아 귀퉁이에 잔뜩 쌓인 재도 둘러보고, 가마니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을 보며 장난도 하다가 발견한 책이 있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어느 무엇보다 기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읽기 시작한 책을 몰래 품속에 넣고는 나만의 비밀 장소로 갔던 것이다. 아직 종이가 많이 남은 책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뒷간 주변을 여기저기 찾으시는 외할아버지의 말씀에도 난 모르는 척 딴전을 피우고 말았다.

아무도 없을 때만 살금살금 걸어서 숨어드는 나만의 공간에 가면 엄마의 교과서는 늘 혼자서 나를 기다려주고 있었다. 혹시라도 내가 안 간 사이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청소를 하시다 책이 발견되었을까 안달을 내다가 눈치껏 조심스레 달려가면 몇 달 만에 외가에 온 나에게 뽀얀 먼지와 시간의 길이만큼 누래진 얼굴로 반가움을 표시하곤 했다.

지금 나는 뒤안의 모퉁이 마당에서 책을 읽으며 혼자 키우던 꿈을 이루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그 책이 교과서였음을 알게 되면서, 막연하게 꾸었던 선생님의 꿈에 책도 같이 등장하게 되었고 결국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굳이 뜯겨진 교과서를 애지중지하지 않아도 다양한 교과서를 접한다. 참 예쁜 그림과 정말 좋아진 종이 질을 느끼면서 책을 펼치면 더욱 다양한 내용에, 자세한 설명, 지루하지 않도록 꾸며진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면 아득하게 떠오르는 책 한 권을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엄마의 국어 교과서는 책이 그리운 나에게 참 많은 것을 주었던 것 같다.

어려운 형편에 몇 푼 안 되는 점심값을 아껴서 길거리 동화책 한 질을 사다 주신 아버지 덕분에 난 그 동화책들을 엄청 읽어댔었다. 잘못된 제본에, 파손된 부분이 중간 중간 끼어있었지만 내 상상력을 방해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같은 책을 수도 없이 읽어대는 딸 때문에 아버지는 또 한참의 점심값으로 길거리 위인전 한 질도 사다 주셨다. 지금까지 써먹는 역사 지식의 바탕이 된 책이다.

하지만 그 때까지 내게는 동화와 위인전 분야 이외의 다른 장르는 사실 대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교과서에 있던 여러 종류의 글들은 제각각의 형태로 내게 다가왔던 것이다.

그것들은 나에게 꿈이 되었고, 아직 풋내 나는 생각들을 여물게 하는 바탕이 되어 주었다. 수많은 상상력을 키우고, 때로 어리지만 현실적인 눈으로 스스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며 내 안의 있는 것들을 표현할 줄 알도록 도와주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자가 주는 기쁨을 알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기호로서의 문자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많은 것들을 흡수하고 새로운 내가 되는 영양분이 되게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 기억으로는 다양한 방향에서 책을 읽고, 신문을 보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3년 전 여름, 정확하게 30년 만에 외가를 찾아갔다. 초등학교 6학년 봄에 외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는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곳이다. 초가는 이미 허물어지고 마을 누군가가 동물을 키우는 곳으로 쓰고 있었다. 늘 그리웠던 곳. 그리고 늘 그리워했던 것들.

난 외가에 가면 그 책을 만나고 흙벽을 빨아먹을 수 있을 거라고 은연중에 기대했었던 모양이다.

그때 그 황토와 짚을 섞어 만든 흙벽은 오래도록 햇빛에 말려지고, 바람에 휘둘리며, 빗줄기에 버텨오느라 길고긴 시간의 냄새를 품고 있었었다. 혓바닥을 길게 빼고 벽돌장을 핥으면 꽁꽁 얼은 얼음을 혀에 댔을 때처럼 순간적으로 짝 붙는 맛이 있다. 침이 재빨리 흡수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러다가 계속 혀를 대고 있으면 표면이 축축해지면서 황토 특유의 냄새와 켜켜이 스며든 먼지가 멀고먼 시간의 맛으로, 냄새로 내게 스며들었다. 더러울 뿐만 아니라, 집에다 그러는 거 아니라고 수도 없이 혼나면서도 난 그 맛을 포기할 수가 없어 어른들만 안 계시면 집 벽의 구석구석에 침칠을 하곤 했었는데.

비밀 장소에 가서 봉당에 앉아 황토집에 몸을 기대면 솔솔 부는 바람이, 내가 채 다 맛보지 못한 그 맛들을 옮겨주었고, 그 품에서 읽는 책은 어린 마음에도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임을 알게 해주었다. 알아가는 것이 귀찮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친근한 것임을, 지식을 갈구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 몸에 스며드는 것임을 향기 젖은 바람과 누런 책이 가르쳐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아직도 나를 기다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모양이다. 갑작스레 더 이상 가지 못했던 곳에 대한 그리움이었을까.

꿈을 꾸는 사람은 결코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했던가. 나는 일곱 살 즈음에 꿈을 꾸기 시작했고, 꿈을 이루는 삶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계속 꿈으로 내 삶을 가꾸며 산다. 그 속에는 늘 많은 책들이 있다.

그러나 넘쳐나는 책의 홍수 속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활용하며 살고 있지만 늙지 않도록 나의 시작을 지켜보았던 엄마의 국어 책은 내 마음의 책장 한 곳에 고이 간직되어 있다. 무너져가는 초가의 한 곳에서 아무에게도 의미가 되지 못한 채 없어졌겠지만 아직도 나에게는 수많은 이야기를 속삭여주는 좋은 벗이자 선생님이었고 내가 교사가 될 수 있는 바탕이었기 때문이다. 눈에서 멀어져도 마음에 고이 간직된 나만의 벗, 스승… 문득 그 속에 담겨있던 많은 이야기들과 그림이 눈에 선해진다.

그립다…

http://library.textbook.ac

교과서가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협약 체결 기관에서
교과서 원문 DB 이용가능!”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교과서정보관

교과서 원문 이용안내

메인페이지 원문검색 안내

Screen description

① **페이지 주소창** - http://library.textbook.ac/의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접속.

② **도서관 협약유무 확인** - 협약도서관이 아니면 이용하실 수 없으며, 홈페이지 우측 협약도서관 안내를 통해 원문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

③ **원문검색** - 원문만 검색결과에서 보고 싶은 경우 메인 페이지에서 원문검색탭을 클릭하여 활성화 진행 후 검색(또는 소장자료 검색란의 원문 검색 클릭 후 검색).

④ **검색어 입력** - 원하는 교과서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어를 입력한다. (ex. 국어, 검정, 6차교육과정 등)

검색결과 간략화면 안내

Screen description

① **간략검색 결과** - 검색조건을 충족하는 결과가 보여지는 간략검색 결과 화면. 원문이나 목차 등의 부가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음.

② **원문 아이콘** - 원문이 존재하는 서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아이콘. 클릭하면 해당 도서의 원문을 볼 수 있음.

③ **검색결과 제한(Facet)** - 키워드 등을 통한 검색결과에서 출판사, 발행년도 등으로 검색결과를 제한하여 볼 수 있음.

검색결과 상세화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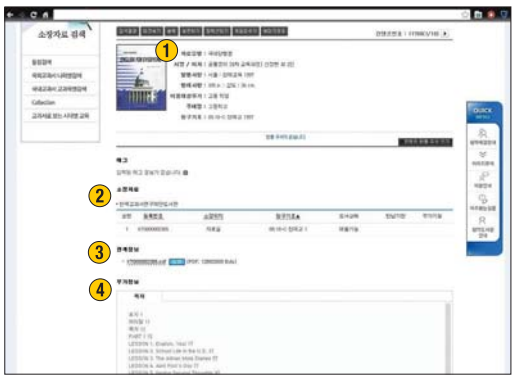
Screen description

① **상세검색 결과** - 간략검색에서 선택한 서지의 상세내용이 보여지는 화면. 해당 서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② **소장 정보** - 해당 서지의 소장자료 정보 확인. 등록번호, 소장위치와 인쇄도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③ **관계정보** - 해당 서지에 연결된 관리정보를 보는 화면. 원문을 볼 수 있다. 파일명을 클릭하면 원문이 열림.

④ **부가정보** - 목차, 초록 등의 부가정보를 보여준다.



원문이용시 이용요금 확인

Screen descri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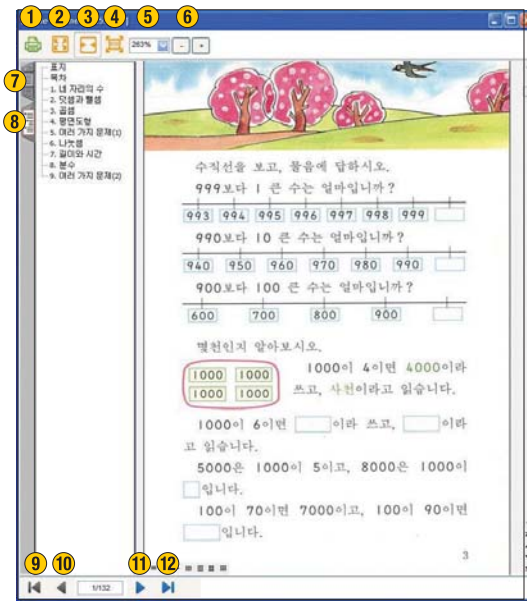
① **열람이용요금 확인** - 원문 클릭시 저작권법 안내를 포함한 열람시 발생하는 이용요금에 대한 안내 및 확인.

② **열람** -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료가 부가됨의 안내를 받고 지불의사가 있을 경우 클릭하여 원문을 열람.

③ **닫기** -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료가 부가됨의 안내를 받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클릭하여 닫음.

원문뷰어 이용

Screen description



① **인쇄** - 원문을 프린터로 출력. 출력시에 발생하는 과금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음.

② **창크기에 맞추기** - 원문뷰어의 창크기에 맞춰서 원문 크기를 조정.

③ **창너비에 맞추기** - 원문뷰어의 창너비에 맞춰서 원문 크기를 조정.

④ **100% 크기로** - 원문이 구축된 100% 사이즈로 원문 크기를 조정.

⑤ **원문크기 콤보박스** - 창크기, 창넓이, 15%, 25%, 33%에서 300% 까지 대표적인 원문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 콤보박스.

⑥ **크기조절 버튼** - +/- 로 원문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

⑦ **페이지 미리보기** - 페이지 별로 미리보기를 보여줌.

⑧ **목차보기(기본값)** - 원문뷰어 오픈시 기본화면으로 목차를 보여줌.

⑨ **처음으로** - 원문의 첫 페이지로 이동

⑩ **이전페이지** - 현재페이지의 이전페이지로 이동

⑪ **다음페이지** - 현재페이지의 다음페이지로 이동

⑫ **마지막으로** - 원문의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원문 협약 체결 안내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구축한 원문DB를 이용하기 위한 협약 절차 안내입니다.
우리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지난 2013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교과서 전문도서관 구축 사업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국회도서관의 원문서비스와 같은 방식으로 제6차,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3,350권) 원문 DB를 구축하였습니다.

대 상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자료실), 학교도서관 등

협약 절차 안내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협약 체결
○ 협약 완료 후 재단으로 이메일 통보 또는 협약관련 담당자에게 전화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유순기, 02-6206-6357, editor@textbook.ac)
○ 공문서에 의한 협정방식 담당자에게 협약서 전송 요청
○ 우리 재단과 협약 완료 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회원으로 가입
○ 이메일을 통해 재단 담당자로부터 관리자 프로그램 권한 부여 받음
○ 도서관 정보, IP정보 등을 확인 후 이용 허락

참 고

○ 고정 IP 또는 유동IP 등 기관의 네트워크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함
○ 도서관 보상금 과금을 위한 뷰어 및 프로그램 설치(내려 받기)
  - 저작권 있는 원문DB 이용 및 정산
  - 개인납을 사용하는 기관은 자체 프린터 기기 및 과금장치업체와 연결되도록 조치해야 함
○ 협약체결 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수원박물관,
  신라대학교, 목원대학교,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한국스포츠개발원,
  용인대학교, 경기대학교, 부산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교과서 개발 연수 안내]

우리 재단에서는 전국 초 ·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대상으로 여름 · 겨울방학 중에 교과서 개발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과정 소개

○ 과정명 : 교과용도서 개발 전문가 양성 과정(전문성 향상 과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4년도 특수 분야 연수 기관 지정(서울교육 2014-482)
○ 연수종별 : 직무연수
○ 연수 대상 : 전국 초 ·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 연수 시간 : 30시간(인정 학점 : 2학점)
※ 최저 이수 기준 시간 : 24시간, 80% 이상 출석(성적 산출 안함)
○ 교과과정 : 교과서 정책 · 제도와 법령, 개발 방법, 편집 및 인쇄 등

□ 기간 :

구 분	기 간	시 간	인 원	비 고
제 1 기	2014. 7. 28 ~ 8. 1	10:00~17:00	40	
제 2 기	2014. 8. 4 ~ 8. 8	10:00~17:00	40	
제 3 기	2015. 1. 5 ~ 1. 9	10:00~17:00	40	선착순 마감
제 4 기	2015. 1. 12 ~ 1. 16	10:00~17:00	40	선착순 마감

□ 신청 방법

○ 직무연수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2-2651-1982)로 접수

○ 연수비 납부
- 연수비 : 7만원
- 납부 방법 : 해당 과정 신청 마감일까지 지정 계좌 입금
(신한 140-009-109202, 예금주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선종근)

※ 연수비 환불조건 : 연수 시작 10일 전까지 연수취소(포기) 신청서 제출한 자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교과서 개별구입안내

2014학년도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교과서별 구입처

교 과 서			구입처	전화번호
국정	초등	• 국어(국어활동, 듣기 · 말하기 · 읽기, 쓰기 포함) • 과학(실험관찰 포함)	㈜미래엔 textbookmall.mirae-n.com	1800-8890
		• 수학(수학익힘책 포함) • 사회(사회과탐구, 사회과부도 포함) • 도덕(생활의길잡이 포함)	㈜천재교육 www.chunjae.co.kr	1577-0902
		• 통합과목(학교, 봄, 가족, 여름, 나, 이웃, 가을, 겨울, 우리나라)	㈜지학사 www.jihak.co.kr	02-330-5302
	고등	• 체육계, 수산 · 해운계	㈜미래엔 textbookmall.mirae-n.com	1800-8890
		• 공업계, 농업계, 상업계, 외국어계	㈜천재교육 www.chunjae.co.kr	1577-0902
		• 가사 · 실업계	㈜지학사 www.jihak.co.kr	02-330-5302
검 · 인정	초등 중등 고등	• 위 교과서 이외의 검 · 인정교과서 (인정교과서 일부 제외)	(사)한국검인정교과서 www.ktbook.com	02-3663-5409~12

□ 서울지역 직매장

(사)한국검인정교과서 직매장 – 검 · 인정교과서 전문매장(일부 인정도서 제외)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47길 3 (당산동6가) 다옥빌딩 별관 2층 (☎ 02-3663-5409~12)

– 지하철 : 2호선 당산역 1번, 9호선 당산역 13번 출구에서 롯데리아, 스타벅스 사이 골목 30m지점 (동양생명 2층)

(주)미래엔 직매장 – 초등학교용 국정교과서만을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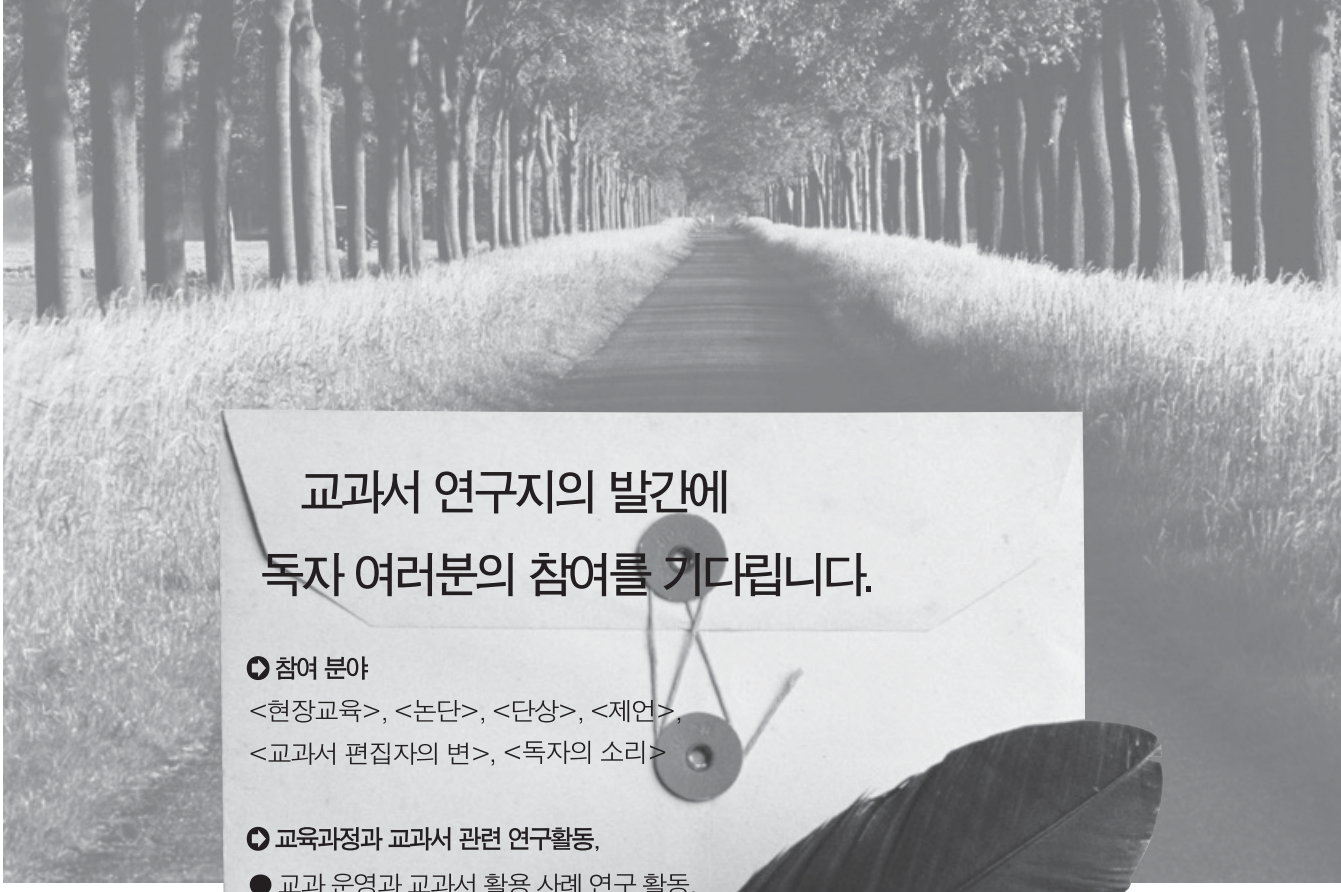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 ㈜미래엔빌딩 1층 (☎ 02-3475-4097)

– 지하철 :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에서 직진 도보 5분소요

각 지역별 교과서 지정 판매서점

지역별		상호	전화번호	판매도서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광화문)	02-397-3551~2	국·검·인정
	서초구	교보문고(강남)	02-503-0313	국정
	송파구	교보문고(잠실)	02-2140-8821	국정
	양천구	교보문고(목동)	02-2062-8801	국정
	영등포구	교보문고(영등포)	02-2678-3501	국정
	종로구	영풍문고(종로)	02- 399-5625	국·검·인정
	성북구	영풍문고(미아)	02-2117-2880	국정
	영등포구	영풍문고(영등포)	02-6137-5254	국정
	동대문구	영풍문고(청량리)	02-3707-1860	국정
	노원구	그랜드문고	02-938-1065	국정
	서초구	서울문고(센트럴점)	02-530-0718	국·검·인정
	강남구	서울문고(코엑스점)	02-556-6002	국정
	강동구	예림문고	02-477-8600	국정
	도봉구	예일문고	02-995-5206	국정
	성동구	경일사	02-2296-7671	검·인정
	구로구	㈜리브로(구로점)	070-4726-2841	국·검·인정
	동대문구	성현문고	02- 967-3838	검·인정
	용산구	㈜대교문고	070-4619-5225	국·검·인정
	노원구	㈜노원문고(중계점)	02-2091-0633	국·검·인정
	강동구	동북문고	02-477-8200	국·검·인정
	관악구	㈜북션커뮤니케이션	070-4700-1975	국정
	중랑구	관악도서	02-2207-7802	국정
부산	금정구	영풍문고	051-590-8300	국정
	부산진구	교보문고	051-806-3501	국정
	부산진구	영광도서	051- 816-9500	국·검·인정
	사하구	문학서점	051- 204-0465	국·검·인정
	사하구	예림서적	051- 203-3383	검·인정
	중구	남포문고	051- 245-8911	검·인정
	중구	문우당서점	051-241-5555	국정
	사상구	태학도서	051-313-1718	국정
	해운대구	영재서적	051-703-0708	국정
대구	중구	영풍문고	053-428-6700	국정
	수성구	㈜세원출판유통(범어점)	053-423-0517~19	국·검·인정
인천	중구	(주)대한서림	032-764-7337	국·검·인정
	부평구	부평문고	032-529-0077	국정
광주	서구	영풍문고	062-364-0210	국정
	동구	종합도서	062-222-4354	국·검·인정
대전	중구	㈜계룡문고	042- 222-4600	국·검·인정
	서구	세이북스	042-611-8061	국정

지역별		상호	전화번호	판매도서
경기	수원	㈜경기서적	031-248-6300	국·검·인정
	의정부	숭문당	031-846-2666	국·검·인정
	안산	대동서적(주)	031-406-6666	국·검·인정
	부천	㈜경인문고	032-613-2197	국·검·인정
	구리	동원서적	031-563-4621	국·검·인정
	일산	정글북	031-922-5000	국·검·인정
	평택	평택문고	031-651-9204	국정
	분당	리브로	070-4726-2857	국정
	광명	일지서적	02-2613-2744	국정
	안양	교보문고	031-466-3501	국정
	용인	수지문고	031-265-4031	국정
	성남	중원문고	031-736-2600	국정
	수원	영풍문고	031-267-5555	국정
	시흥	한가람문고	031-404-0161	국정
	화성	더북스삼성	031-8015-4451	국정
	성남	공손서점	031-703-7279	국정
	김포	열린문고	031-982-2007	국정
강원	춘천	교학사	033-244-0044	국·검·인정
	동해	제일서점	033-521-3131	국정
충북	청주	유신상사	043-252-5945	국·검·인정
	충주	이학사	043-847-3493	국정
충남	천안	열린문고	041-573-0827	검·인정
	천안	천안서적	041-576-1545	검·인정
	천안	국민도서	041-558-0004	국정
전북	전주	홍지서림	063- 288-5311	국·검·인정
전남	순천	중앙서림	061-723-9902	국·검·인정
	목포	책사랑문고	061-279-2504	국정
경북	포항	학원사	054-249-3396	국·검·인정
	경산	성암교재사	053-811-8222	국정
	경주	현대서점	054-742-4885	국정
경남	창원	그랜드문고	055-283-2848	검·인정
	창원	창원서적	055-282-1544	국정
	김해	근비도서	055-343-7894	국정
	마산	영풍문고	055-240-5690	국정
	진주	대양서적	055-741-2835	국정
제주	제주	탐라도서(주)	064-755-3335	검·인정
	제주	현대서점	064-748-1177	국정



교과서 연구지의 발간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 분야

<현장교육>, <논단>, <단상>, <제언>,
<교과서 편집자의 변>, <독자의 소리>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연구활동,

- 교과 운영과 교과서 활용 사례 연구 활동,
-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 또는 단상,
- 기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

보내실 곳 : editor@textbook.ac

문의전화

02-6206-6357「교과서연구」담당자 유순기

모두가 1등이 되는 세상

천재교육이 **앞장**서겠습니다.

"엄마, 독도에 코끼리가 살아요.
코끼리바위가 괭이갈매기를 매일 업어줘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리 독도엔 코끼리바위가 있습니다.
이제 독도도 교과서로 배웁니다.
우리의 독도는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하니까요.
독도 사랑도, 독도 공부도 우리가 1등입니다.

천재교육

1948년
교과서 사업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었습니다.

2014년
교육, 출판 및 국내외 인쇄사업을 아우르는
새로운 교육출판문화를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미래엔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본부
검정교과서, 참고서, 파사쥬논술

교과서사업본부
국정교과서, 인정교과서

출판사업본부
아이세움, 아이즐, 휴이넘, 북폴리오, 와이즈베리

인쇄사업본부
국내·해외인쇄, 디지털인쇄

계열사
전북도시가스, 서해도시가스, 현대문학, 미래엔 에듀케어, 미래엔 인천에너지, 부흥개발
목정문화재단, 목정장학회

www.mirae-n.com

사람을 키웁니다, 미래를 키웁니다

Mirae N 미래엔
대한교과서의 새 이름